



1

198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2. 1호

(루게 411)



◆◆◆◆◆◆◆◆◆◆

차 례

◆◆◆◆◆◆◆◆◆◆

신년사	4
축원	9
우리 어버이	11
절세의 위인 김일성 동지	13
은혜로운 태양 김일성 주석	13
오, 향도의 별	14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14
어머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네	15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으며	16
눈내리는 밀림속을 거닐며	17
혁명전적지답사길에서	18
조국의 사랑	19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 대하여	20
간석지의 밤	26
혁명의 성산 백두산	27
나의 희망, 나의 결의	30
장편소설 《먼길》을... ..	30
혁명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1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31
충성의 마음을 담아	31
불타는 충성심을 지니고	31
전투장의 제 1 선에	32
참다운 소년애국자의 형상을 창조하겠다	32
인민이 즐겨부르는 명가사를!	32
청년들을 당의 전투적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33
앞서간 발자국	37
언제건설자의 노래	44
당을 따라 총진군 앞으로	46
보답	47
행복한 날에	50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51
봄빛	55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는 동화, 우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70
나의 공장(외 1 편)	75
너와 떨어질수 없구나	75
의거가	76
병사의 노래	76
생활의 길동무	77

김일성

신년사

(1982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의 첫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희망찬 새해 1982년을 맞이합니다.

새해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여 지금 온 나라의 도시와 농촌마을, 모든 가정들에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인민들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으며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당이 가리키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1982년을 맞이하면서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뜨거운 열정을 안고 새해의 힘찬 진군을 시작하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英勇한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군사파쇼분자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청년학생들, 애국적민주인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멀리 이국땅에서 사회주의조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70만 재일동포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새해에 해외동포들의 생활에서 보다 큰 행복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1981년은 우리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한해였습니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지난해에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하여 총진군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양양된 정치적분위기속에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과정에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졌으며 우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이 반석같이 다져졌습니다.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풍모로 되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헌신적로력투쟁을 벌려 공업생산을 빨리 발전시켰으

며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은 일떠세웠습니다.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지난해에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지어 대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어로전사들은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겨울철물고기잡이에서 전례없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생산과 건설을 적극 다그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문화건설분야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학교교육사업이 더욱 발전하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이 많이 창작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과 민족문화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발명과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웅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부대의 전투준비를 더욱 완성하고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였으며 적들의 군사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파탄시키고 조국의 방선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헌신적으로 투쟁한 결과입니다.

나는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발휘하여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첫해 전투에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의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1982년은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항일유격대를 창건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한 때로부터 50돐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항일무장투쟁의 시작은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킨 력사적인 사변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첫 총성이 울린 때로부터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혁명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스런 길을 걸어왔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매우 높은 단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며 뜻깊은 이해를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한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시원을 열어놓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온 나라

가 양양된 정치적분위기로 들끓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 남포갑문 건설과 래천발전소 건설의 4대자연개조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 남포갑문 건설과 래천발전소 건설은 국토를 넓히고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시키는 대자연개조사업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입니다. 올해에 전당, 전국, 전민이 4대자연개조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대자연개조사업에 동원되는 모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조국의 융성발전을 위한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전투에 참가하는 높은 금지와 영예를 간직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건설장마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대자연개조사업은 많은 자재와 설비, 로력을 요구하는 매우 방대한 사업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자연개조사업에 요구되는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자재와 기계설비들을 우선적으로 생산공급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대자연개조사업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은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전투를 잘하여야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을수 있습니다. 올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국가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화학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선차적힘을 넣어야 합니다. 화학고지를 점령하는것은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올해에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한편 일부 생산시설들을 개건확장하여 화학섬유와 화학비료, 합성수지를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화학공장들을 많이 전개하여 여러가지 보조원료와 화학약재, 칠감 생산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금속공업은 올해에 우리가 힘을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입니다. 금속공업에 힘을 넣어 금속고지를 점령하여야 날로 늘어나는 철강재와 유색금속에 대한 수요를 보장할수 있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규모가 크고 전망이 좋은 철광산들과 유색금속광산들에 힘을 집중하여 광물생산을 확고히 앞세우며 금속생산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강철과 압연강재, 유색금속 생산을 훨씬 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미 건설하여놓은 주체적인 철생산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кок스탄과 소성탄 생산을 늘이며 새로운 кок스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흑색야금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의 하나입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야 우리 나라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인민들의 늘어나는 생활상요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경제로대가 마련되어있습니다. 모든 지도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로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 인민들을 훨씬 더 잘살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키며 수산업에 힘을 넣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전군중적운동으로 도시와 농촌에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해에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업지도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경제지도를 현실에 접근시키고 중앙의 통일적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공업지도체계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도경제지도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여 경제지도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올해에 각급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들은 3대혁명수행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고조가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투쟁기세는 대단히 높으며 나라의 전반적형편도 매우 좋습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킴으로써 올해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입니다.

지난해에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력사상 류레없는 파썸폭압속에서도 생존의 권리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반파썸민주화투쟁을 줄기차게 벌렸으며 해외에 있는 각계각층 동포들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에 광범히 떨쳐나섰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국내외에서 벌어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은 우리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광범한 동포들속에서 조국통일기운이 높아가고있으며 통일의 려명은 다가오고있습니다.

올해에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더욱 굳게 단결하여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로선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려 대외관계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식량 및 농업 증산에 관한 뽐력불가담 및 기라 발전도상 나라들의 토론회와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각계층 인사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통하여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발전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연대성이 한층강화되었습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폭로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연대성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여줍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 벗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올해에도 우리 당의 일관한 대외정책에 따라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고 신흥세력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동지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영예롭고 보람찬 과업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뜨거운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승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십시오.

추 원

김석주

해마다 설날이 오면
사람들은 누구나
지나온 날과 달을 더듬으며
어버이수령님을 생각하고

누리는 행복에 목메어
한평생 수령님 걸어오신
사랑의 자욱자욱을 더듬으며
한가슴 뜨거움에 젖나니

어버이수령님
탄생 70돐을 맞으시게 되는
새해의 이 아침
어찌하여 우리 마음
이리도 깊어지고
우리 생각 이리도 많아지는것입니까

력사의 개선광장에서
젊으신 장군님을 맞이하던 그날이
바로 어제일같은데
돌이켜보면 어느듯 빠르기도 한 그 세월

조용히 생각하면
해방의 그날에도
전후의 그날에도
빈터우에 인민의 락원을 세우시며
한평생 마음고생인들 얼마나 많으셨으랴

례사로운 날 우리 받아안은
하나의 작은 기쁨에도
크나큰 어버이심려 깃들어있어
행복할수록 뜨거운 진정
해가 갈수록 깊어지는 생각이여

이 땅의 머나먼 한끝까지
빠지는 승용차를 미시며
눈석이 진펄길을 헤쳐가실 때
그날에 좋은 길 닦아드리지 못한것을
오늘에 두고두고 이야기하고

운명을 판가리하던 전화의 나날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으시여
준엄한 밤들을 새우실 때
그날에 방석 하나 못깔아드린것이
세월이 갈수록 가슴에 얹혀있고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주시려
삶은 호박과 감자로 끼니를 에우시며
언발머리들을 걸음걸음 채여가신 그 사연
우리 그 땅에서 농사지으면서도
이날까지 다 모르고 살아왔던가

어리광부리는 자식들이
속깊은 부모심정 다 모르고 받듯이
그렇게 날마다 사랑만을 받았으니
그날에도 모르고 오늘도 다 모르는 사연

어찌 천만가지로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시름은 한가슴에 묻어두고

웃는 얼굴로 자식을 마주하는 그 심정

온 나라 구석구석 다 돌보시며

언제나 우리앞에 웃으시며 찾아오시는

수령님은 우리모두의 아버지십니다

다 모른다는 어머니사랑에도 끝이 있고

인정도 마음도 다할 때 있건만

갈수록 더하는것이

우리 수령님 사랑이옵니다

한평의 땅을 더 줄수 있다면

그 바다를 밀어내시고

한모금의 물을 더 줄수 있다면

그 강을 막아주시려

대자연개조의 전망을 펼쳐

행복의 한끝까지 안겨주시고

해마다 인민의 행복은 커가건만

오늘도 백리 또 백리

가시던 걸음 다시 오시여 돌아보시고

넘으신 고개길도 해마다 다시 넘으시며

사랑과 은정을 베푸시나니

아 머리에 흰서리 내리도록

오로지 인민의 행복에 바치시는 한평생

나라의 아버지

인민의 아버지

수령님 품을 떠나 살수 없는 우리읍니다

은혜가 크면

머리카락을 베여 신을 삼아드린다 했고

어려운 날에 나눈 한덩이 주먹밥을 두고도

한생울 못잊는것이 사람의 의리라 했거니

그날에 수령님을 위해 다하지 못했던

사랑의 그날과 달을 해로 하여

수령님을 천세만세 모시고

수령님을 천세만세 따르는것이

수령님의 인민

수령님의 전사된 우리의 의리가 아니옵니까

수령님, 우리 수령님

저 하늘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하늘이 된다 해도

만년청춘으로 계시웁기를 바라는

우리 인민의 이 진정

우리 인민의 이 축원을 안으시고

길이길이 만수무강하시라

만년청춘으로 계시여

해와 달 같이 누리를 비치시라

그 밝고밝은 사랑과 높은 은덕으로

만민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아 이 세상에서 단 한분이신

위대한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

장호건

우리르면

그 자애로움

다 헤아릴길 없고

그 은혜로움

다 안을길 없어

아이들은 맑은 목소리로

어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다함없는 흠모에 젖어

목메여 불러라

우리 수령님

인민의 아버지

아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

더 눈부신 미래를 열어주시려

사랑의 새벽길

끝없이 이어가시는

우리 아버지

그 사랑 그 보살피심속에

하루해 저물어

내 포근한 잠자리에 들면

그 보금자리도

수령님 친히 터를 잡아주시고

설계도 보아주신

사랑의 요람

봄빛 화창한 날에

유원지 꽃밭속을 거닐면

그 만발한 송이송이도

수령님 천만떨기 가꿔주신

사랑의 화원

그래서 누리는 행복

이리도 목메이고

그래서 보람찬 우리 삶

자고깨면 더더욱

소중해지는가

아 나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조차

영생의 기쁨을 받아안고

고마움에 목메여 부르는

우리 수령님

우리 아버지

단풍질은 가을

산촌의 먼먼 길을 걸으시던 그날엔

머루다래 싱그러운 단물을 보시고도

쇠물을 다루는

용해공들을 먼저 생각하신

그 사랑

창밖은 문화주택

새집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시려

령넘어 찾아오신 그 아침엔

토방돌의 높이를 두시고도

로인들을 먼저 녀려하신

그 은정

그 사랑이 어려

날마다 저 하늘은

더 푸르러지고

그 은정이 비껴

해마다 이 땅은

더 아름다워지는가

말하라

땅이여 하늘이여

록음 우거진 평양에도 중심에

정부청사들을

높이 세우리라

인민은 그려왔건만

아버이수령님

우리가 건설도 많이 했지만

수도의 한복판을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

《인민》자가 붙은 큰 건물들로 꽉 채운것이

제일 기쁘다고 하실 때

아 우리들 마음

그 얼마나 감격에 목메였던가

인민을 위하시여

감탕길 헤치시며 걸으신 서해기슭

몸소 타고넘으신 날바다 그 불길따라

만년대계의 갑문이 일떠서고

천리 방파제가 뻗어가는

아 나의 조국

오늘도 래일도

먼먼 그날에도

수령님을 아버이로 영원토록 모시고 살

조선은 화목한 대가정

우리모두는

복받은 친형제

끝없는 이 영광을 안겨주시려

눈보라 불바다를 헤치시며

오로지 한평생

인민위해 바치시는

70성상!

걸음걸음 수놓아오신

그 사랑의 자욱우에

삶은 한껏 만발하고

대기념비들은 솟아올라

인민의 기쁨으로 빛나거니

그 기쁨 누리에 펼치시여

자주의 창창한 하늘을 여시고

혁명하는 세계를

주체의 궤도우에 올려세우신

만민의 태양

우리 수령님

백번 불러

그 사랑 다 헤아릴길 없고

천번 불러

그 은덕 다 노래할길 없어

한마음 목메여 아버이로 부르며

받들어 보시는 한길에

모든것 다 바치리

아 만민이 태양으로 모시고

인류가 구성으로 따르는

우리 수령님

한평생 헤쳐오신 그 길우에

이룩하신 혁명위업

당중앙 향도의 기치따라

만대에 길이 빛내가리니

내리는 흰눈처럼

티없이 깨끗한 인민의 한마음

삼가 옷깃을 여미고

만수축원의 인사를 올리며

목메여 부르고 부르노라

아 우리 수령님!

아 우리 아버지!

절세의 위인 김일성동지

라꾸뚜 말랄라 조세프 도리스

저는
진실을 말합니다
저는우화가 아닌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 누가
환상세계와도 같은
사회주의를 세웠습니까
아, 그이는 **김일성**
절세의 위인 당신이옵니다

조선의 빛나는 현실은
사상루각이 아니고
성실한 애국주의가 낳은
영원하고 아름다운 락원이오니
사회주의의 진정한 이 모습은

아, **김일성**
당신의 위대한 영상입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고
파도는 무섭게 설레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늘의 자비를 빌지 않거니
세계는 오직 한분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따르웁니다
아, **김일성! 김일성!**
절세의 위인이시여 !

(필자는 말가슈 시인임)

은혜로운 태양 김일성주석

기미즈카 히로시

만경대에 찬란히 솟아올라
3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인민들에게
끝없는 희망과 미래를 안겨주시는
아 위대한 태양 **김일성**주석

누리를 밝히며
위대한 태양 높이 솟아
들에는 해마다 만풍년 찾아오고
공장마다에는
창조와 기적의 대비약 이룩되어
아름다운 조선 주체의 조선은
세계에 더욱더 빛나는것이어라

세기에 빛나는 그 빛발따라
조선은 전진하고
인민들은 영광을 떨쳐가나니
온 세상 밝게 비치며
혁명의 새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은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아 혁명의 위대한 태양
만민이 우러러 따르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
자애로운 그 품에 안겨
인민들은 충성다하며
혁명의 한길따라 전진해가네

투쟁의 한길에서 승리해가네
은혜로운 태양
민족의 태양
온 세상 인민의 위대한 태양

오! **김일성** 주석 만세 만세
만만세!

(필자는 일본 고등학생)

오, 향도의 별

이본 라자나마씨

위대한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인민들을 미래에로 이끄시여
인류의 영원한 봄을 꽃피워가시는
오, 향도의 별이시며 공산주의태양이신
조선로동당의 뇌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인민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웁니다
통일단결의 중심이시며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영명한 지도자동지께

문학예술의 대가이시며
고매한 덕성을 한몸에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런 투쟁을
몸소 앞장아서 향도해가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 높으신 뜻을
찬란한 현실로 활짝 꽃피우시며
아름다운 나라 조선을
세계의 모범으로 빛내가시옵니다

오, 인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올리나니

위대한 **김일성** 주의자이신

김정일 동지

조선로동당의 령도자이시며
미래의 태양이신 당신께
인류는 심장의 목소리를 합쳐
최대의 영광을 드리웁니다

(필자는 말가슈의 녀류시인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아너 헬로우 피터슨

겸손성은 힘
위대한 령도자들은

쌓아올린 가장 큰 업적앞에서도
언제나 겸허하시거니

그이는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오, 그이는 강철의 의지

탁월한 령도로

온 세계를 놀래우는

창조의 력사 펼치시어

조선을 변혁시키시였어라

보라! 위대한 령도의 모범으로

이 땅에는 세계에 널리 알려진

그런 전변 얼마나 많은가

은률의 장거리벨트콘베아

황철의 자동화

눈부신 예술발전의 길

어찌 그뿐이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속도전의 불길속에

조선은 눈부신 오늘에로

힘차게 힘차게 달려왔거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가장 탁월한 리론 펼치시어

강철의 의지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조선을 이끄시는분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필자는 단마르크의 작가임)

어머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네

홍기품

붉은별 빛나는 군모쓰시고

인자하게 웃으시는 김정숙어머님

수령님께 기쁨드린 그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들을 맞아주시네

백두의 이슬젖은 군복을 입고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계시네

수령님 받드는 충성의 길에

우리의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네

해빛은 인민에게 안겨주시고

비바람은 앞서가며 헤쳐가셨네

따사론 사랑의 그 품에 안겨

우리모두 혁명가로 자라난다네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으며

강명복

해마다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면
깊어지는 스스로의 생각이 있어라

보내는 해와 함께 받은 사랑
오는 해에 더 큰 사랑으로 받아 안아
보답하리라는 다짐
보내는 해마다 다짐으로만 남아있어

이해엔 꼭 보답하리라
그러고도 한해 또 한해
내 몸이 한송이 꽃으로 피어
이 땅의 아름다움을 가꿔갔다면
그것이 소중해서 사랑을 더해주고

더해주고 더해주는 그 사랑에
어제날엔 시들어 스러져가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 한몸도
아 어버이사랑의 해빛아래
오늘의 청춘시절로 꽃피었으니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
설레는 봄의 대지마냥
푸른 희망 활짝 꽃피워준
은혜로운 사랑의 해빛
영광스러운 당의 손길이어

내 이제 더 무엇을 바라리
안겨서 새 삶을 찾고
안겨서 맞는 날이 희열에 넘친
은혜로운 그 품에

생각에 생각을 이으며
걸음은 열정의 바람을 달고
일손은 번개를 휘잡아와도
늘 안겨만지는 크나큰 사랑
늘 다짐하는 뜨거운 마음이어

그 언제면 보답하리
생각하는 사이에
내 두 아이마저도
벌써 나와 똑같은 생각을 품고

날이 갈수록 소원은 덧쌓여지고
날을 따라 은혜는 더 깊어만지니
이해엔 또 얼마나 아릅찬 행복이
또 얼마나 크나큰 사랑이
이 작은 가슴에
끝없는 바다처럼 안겨질것이나

어버이수령님 손길 드시여
가없이 설레이는 새땅의 금나락
대동강의 한끝이 생명수로 출렁이며
아름답게 펼쳐질 이 강산이어

따를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해빛아래
강산도 사람도 더 만발하리니
그 빛발아래 피어나는
나는 한송이 꽃
그 한송이
천만송이 씨앗 품고있는 꽃이 되어
만발히 피어나리니

지난해에 다진 마음 백배 더하여
이해에 다지는 마음 천만배 더하여
어버이수령님 우리러
영광스러운 당중앙 받들어
내 하는 일 모두
꽃으로 피고 알찬 열매로 주렁지우는것

위대한 태양이 솟아 일흔해
향도의 해발이 비쳐 마흔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이해에
내 한몸
만수대 푸른 언덕에
한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되리
대를 두고 영원할 꽃으로 피어나리

눈내리는 밀림속을 거닐며

김재윤

백두밀림에 눈이 내린다
사방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끝없는 밀림...
사방 그 어디를 바라보아도
끝없이 내리는 눈...
눈은 내리어 하염없이 쌓인다

밀림속
내 어디부터 발길 옮기랴
다시 또다시
머리들어 쳐다보는 하늘이여
눈내리는 백두밀림의 하늘이여

너는 속삭이누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도
세상에서 가장 송엄한 이야기도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환희도
눈내리는 이 밀림속
이 하늘가에서 울려갔다고...

때로는 돌아올
한 대원을 기다리시여
밀림의 긴긴 밤을 지새이시던
장군님의 어깨우에 내려던
그날의 흰눈
너는 가장 깨끗한 사랑의
눈송이 되어 내리였어라

아아, 눈내리는 날
이 밀림속에서
장군님을 모시고

웃으며 춤추며 노래부르며
그려오던
그날의 그 모든 념원들이

이 밀림 이 산발 넘어
락원의 이 땅
그 어디에나 펼쳐져있건만
눈이여
너만은 예나 다름없이
이 밀림에 내리고 내리는구나

가슴도 뜨거워라
오늘 내 답사의 첫걸음부터
네 나를 맞이해줄이
내번지는 시첩 첫장우에
쏟아지는 너의 눈발부터 내려앉음이

너는 그대로 나의 시첩우에 노래로 새겨지고
내 가슴에 뜨거운 감격의 눈물되어 흐른다
아, 내 한평생 가슴에 소중히 받아안을
백두의 흰눈!

너는 영원한 나의 노래
너는 영원한 나의 시

내리고 내리라
백두의 흰눈이여
무궁한 세월이 흘러
산천은 변하고 변하여도
이 땅에 영원할 너의 속삭임
내 한평생 가슴에 안고
살리라! 노래하리라!

혁명전적지답사길에서

오순희

백두밀림의 노을

이역의 하늘아래
충성의 꽃 고이 키워온
우리의 마음 비껴

백두밀림의 노을은
그처럼 붉디붉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추켜올리신
혁명의 봉화 높이 모시고사는
이곳 인민들의 크나큰 긍지 비껴

백두밀림의 노을은
그처럼 황홀한가

청봉으로부터 건창, 배개봉
무포를 지나 대흥단으로

장군님께서 거느리신
유격대원들의 발자욱따라
승엄한 마음으로 걷고걸은 혁명전적지

여기서 장군님께서
원썩격멸의 굳은 맹세 다지시어
대원들의 가슴가슴에

뜨거운 불씨 안겨주셔
여기서 장군님께서
기나긴 암흑 견힐
눈부신 빛발 비쳐주셨나니

이깎나무 숲속을 지나
경건한 마음안고 걷는 길마다에
장군님의 사색어린 발자욱 안겨오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충성의 노래소리 들려오는구나
머리 추켜들고 돌아보니
백두밀림은 온통 황금바다

유난히도 눈부신 황금노을속에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을 우러러
말을 잃어
걸음을 잊어
항일의 그날로 생각을 달리니

백두밀림의 노을이어
너는 예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심장을 그처럼 틀어잡아
이 나라의 휘황한 래일을 그려
싸움의 한뜻으로 부르고부르는구나

보천보의 한 로인

당신이 아니십니까

망국의 설움으로 멍이 든 가슴에
샘솟듯 희망을 안겨준
영광의 그날,
밤하늘에 높이 오른 보천보의 해불을
흘러내리는 눈물 닦을 념도 없이
만세소리도 오열에 막혀 지켜본
그 수수한 청년은

당신이 아니십니까

해불보다 더 환하신 장군님의 영상
뜨겁게 불리일으키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소생의 희열에 고통치는 가슴에 새겨

온몸을 환희로
투쟁의 열정으로 불태운
그 끝끝한 청년은

당신은 지금
봄빛같은 웃음 만면에 담아
고요한 세월을 보내십니까

마을의 조무래기들이 달려오고는
맑은 웃음 터뜨려 들썩거리다가
다시 어디론가 달려나가건만

당신은
사랑찬 눈길 애들에게 돌려
지나간 추억을 더듬어보십니까

하지만
추억의 세계에 잠기기에는
너무나도 다감한 당신이 아십니까

이 나라 방방곡곡
보천보로 찾아오는 사람들 그칠새없고

온누리에 비치는
동방의 태양 우러러
세상사람들이 다 찾아오건만

양지바른 처마밑에 자리를 잡아
당신은 그윽한 눈길로
어제도 오늘도 기다리십니까

남녘의 거레들도 줄곧 찾아와
뜨거운 맹세다져
이 길을 떠나가는 그날까지

가슴속깊이 새겨진 영광의 그날을
아득한 옛이야기로 할수 없는
뜨거운 마음지닌
당신이 아니십니까.

(총련교육일군대표단)

조국의 사랑

신국봉

충성아
할아버지의 가슴을 보아라
내 한생 바친것이라면
그저 마음밖에 없는데
조국은 내 가슴에 금별을 달아주었구나

가슴에 안겨
네가 만져보는 이 별은
하늘의 별이 아니다
탄부의 이름 영원히 빛내여주는
조국의 사랑이다

할아버진 지난날 이름조차 없었구나
끌려간곳이란 일본놈의 탄광
병들어 그 탄광마저 쫓겨날 때
이름이라도 한번 그 누가 불러주었으면
내 가슴 그렇게 쓰리지 않았으리

왜놈의 개는 아침저녁 이름을 불리워도
내 이름은 가슴에 단 168번
번호마저 일본말로 불리울 때면

터져오는 가슴엔 조국밖에 그리운것 없더니...

번호패쪽 달았던 이 가슴에
네가 안겨 쳐다보는 금별은
우리 이름 불러주는 조국의 사랑
웃으면 다 알랴, 울으면 다 알랴

이름도 없이 버럭처럼 버림받던
그 세상, 그 슬픔을 몰랐어도
생각할수록 조국이 고마워
할아버지는 네 이름을 지었구나
충성이라고...

충성아
우린 하늘의 별이 아니다.
한없이 넓은 사랑의 하늘에
대를 이어 빛을 뿌릴 조국의 별

아, 조국! 조국!
조국이 없어봐라
조국이 없어봐라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 대하여

최연경

최근 4.15문학창작단에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를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반영한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자기의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장편소설이 항일혁명투쟁의 가장 간고하고 준엄한 한 시기였던 1939년 하반기부터 1940년 3월까지의 역사적시기를 반영하면서 이 시기 독창적인 대부대선회작전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는 독자적인 사상주제적과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은 또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력사에 있어 본적없는 20만대적을 한해겨울에 격파하고 조선혁명의 새로운 양양을 마련한 대부대선회작전의 역사적승리는 오로지 아버지수령님께서 체현하고 계시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었다는것을 자기의 고유한 형상론리를 가지고 독창적으로 형상하고있다.

1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서 가장 간고하고도 의의있는 한 시기였던 1939년 하반기부터 1940년 3월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이 시기의 정세는 참으로 엄혹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산지구진출과 백두산동북부지대에서의 적극적인 정치군사활동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일제는 1939년 9월 길림에 《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대포위작전과 《장거리추격전》을 악랄하게 감행해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적들의 이러한 책동에 대처하여 1939년 10월 안도현 량강구에서 군정간부회의를 여시고 새로운 작전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격활동에서 대부대활동과 소부대활동의 배합은 병력의 집중과 분산으로 적을 약화시키고 적에게 결정적타격을 가할수 있게 하는 전술적원칙의 하나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주도권을 계속 틀어쥐고 적의 대병력을 격파할수 있는 대부대선회작전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대부대선회작전방침은 조선인민혁명군이 대부대로 미리 설정된 비밀로정을 따라 넓은 지역을 선회하면서 적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곳에 나타나 불의에 적을 치고 감쪽같이 사라지며 적들이 따라오면 다른곳에 옮겨가 또다시 축척대는 탁월한 방침이다.

이 방침은 당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주도권을 계속 틀어쥐고 적을 성과적으로 타격할수 있게 하는 명확한 방침이며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적극 보존하고 항일무장투쟁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과 그의 구현을 승리로 이끈 천재적인 령군술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적들의 《토벌》공세와 파쑈적폭압이 절정에 이른 그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도 일제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고 조선혁명을 새로운 양양으로 이끌어올릴수 있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바로 1939년~1940년 한해겨울 위대한 수령님께서 벌리신 대부대선회작전의 거대한 승리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은 이 장엄한 역사적시기에 탁월한 대부대선회작전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조선혁명의 새로운 양양기를 마련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이야기하는것을 사상주제적 과제로 내세우고있으며 아버지수령님께서 체현하신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야말로 이 거대한 승리를 마련한 힘의 원천이며 결정적요인이었다는것을 의의있게 밝혀내고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폭넓게 그리고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여기에 바로 소설의 가장 중요한 사상에술적성과가 있다.

소설은 총 10장 53개절로 구성되어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대부대선회작전의 력사적행정에 따라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대부대선회작전의 승리야말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천리혜안의 안광, 그 어떤 강적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크나큰 담력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의 고귀한 산물이었다는것을 힘있

게 확증하고있다.

소설은 3장까지의 앞부분에서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구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을 몸소 령도해나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하고 정력적인 활동을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은 우선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안광으로 천리앞길과 적의 흉계를 헤갈라보시고 여유작작하게 새로운 작전적방침을 구상하시어 그 어떤 역경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주도권을 쥐고나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감동적으로 형상하고있다.

경위중대장 배정식이 가져온 정세자료는 참으로 놀라운것이였다.

일제는 길림에 관동군직할로 《련합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준동을 시작하는데 이어 중장비를 갖춘 관동군, 위만군의 정규사단과 려단급 대무력들을 백두산동북부대로 물밀듯이 들여밀고있었다.

1939년 9월초에는 《련합토벌사령관》 노자끼가 작성한 《토벌》작전계획이 관동군 참모본부회의에서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라는 정식명칭으로 채택되였다.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혁명군지휘원들은 물론 경위중대장 배정식까지 긴장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 계시는 울기강밀영은 백두산동북부를 에워싸고 벌여지고있는 이러한 소동과는 인연이 없는 판세상처럼 변함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모든 정세보고를 신중하게 들으시기는 하시였으나 조금도 울기강을 뜨실 의향이 없으신듯 의연히 나드는 지휘관들과 련락원들을 통하여 각처에서 활동하는 부대들과 지방조직들을 여유작작하게 지도하고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이미 놈들의 흉계와 책동을 속속들이 꿰뚫어보고계시였으며 그리하여 적의 이 대규모적공세를 격파해버릴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고 계시였던것이다.

소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대부대선회작전은 그이께서 지니신 크나큰 담력에 의하여서만 마련될수 있었다는것을 인상깊은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가 20만명의 방대한 병력을 들이밀어 집요한 추격작전을 벌림으로써 10년간에 걸치는 공산군과의 전쟁을 끝장내겠다고 피눈이 되어 날뿔 때 《20만이라?... 그쯤 되겠지. 그러니 겨우 막을 올린셈이로구만...》라고 혼자말씀처럼 한마디 하시였을뿐이다. 그러시고는 곧 조선인민혁명군지휘원들을 부르시였으며 지휘관들의 긴장된 얼굴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시고는

긴박한 정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듯 웃으시며 추석명절을 잘 설데 대하여 말씀하시고 손수 짜신 명절계획을 내놓으시는것이다. 그것은 실로 레년에 보기 드문 호화로운 명절계획이였다. 너무도 뜻밖이어서 모두가 놀랐다. 이것은 참으로 적의 백만대군도 한손안에 쥐락펴락하고 적의 기도를 손금보듯하는 그런 위대한 심장만이 지닐수 있는 담력인것이다.

소설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여유작작하고 대담무쌍한 구상에 의하여 대부대선회작전이라고 불리우는 세상이 아직 알지 못하는 새 유격전술이 마련되여갔다는것을 감명깊게 펼쳐보여준다.

소설은 또한 혁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을 지니시고 몸소 한몸으로 난국을 헤치시며 새로운 작전적방침의 승리를 마련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와 정력적활동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울거울 대결작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본고리의 하나를 예비물자의 조성에서 보시고 전군이 백두산동북부전역으로 유동하면서 맹렬한 타격전을 벌려 적을 제압하고 무기과 탄약, 식량을 로획하여 저장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사령관동지사인께서는 3도구밀영에 사령부를 정하시고 잠도 휴식도 잊으시고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는 한편 예비물자준비사업을 친히 현지에서 료해하고 지도하시기 위하여 몸소 몇명 안되는 경위중대원을 이끄시고 적들이 육설거리는 량강구대안에까지 나가시는것이다.

이처럼 일찌기 항일전쟁력사에 그 전례를 모르는 적 20만대군과의 대결작전에서 적의 발악적공세를 격파하고 혁명의 새로운 양양을 가져올 사령관동지의 심원한 대부대선회작전은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철석의 담력, 끝없는 로고와 헌신성에 의하여 구상되고 준비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기초우에서 3도구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지휘관들의 회의를 소집하시였으며 천리 아득한 북만땅인 돈화에로의 원정을 명령하시였다.

마침내 력사적인 대부대선회작전이 개시된것이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제4장에서부터 전면적으로 펼쳐지는 대부대선회작전에 대한 거창한 화폭을 통하여 비범한 예지와 강철의 의지, 탁월한 전법과 지략으로 혁명앞에 가로놓인 천만가지 난국을 한몸으로 헤치시며 력사적인 대부대선회작전을 승리로 조직령도해나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그 력사적행정에 따라 감동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대부대선회작전방침에 따라 설정된 첫비밀로정은 돈화원정이었다.

돈화원정, 그것은 참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

하는 간고한 원정이었다.

돈화에로의 길은 그 걸음 걸음이 앞뒤에서, 좌우에서, 때로는 머리우에서 달려드는 적과의 혈투의 길이었으며 군용지도에 숲의 키가 백자가까운것으로 표시된 천협의 대원시름을 뚫고가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다.

한달가까이 걷는동안 식량이 떨어졌고 쫓라병, 축한, 동상이 사람들의 생명을 간단없이 위협하였다...

초인간적의지로 이 모든 시련을 이기며 전진해 나가는 불사신의 대오, 항일대전의 영웅들의 대오의 맨 앞장에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서계시었다.

그이께서는 이처럼 이해 겨울 광막한 동북만주의 산과 들을 누비며 수천수만리로 뻗어나갈 대부대선회작전의 간고한 로정의 굵이굵이마다에 몸소 한치 또 한치 드림없는 승리의 주춧돌을 쌓아올리시는것이다.

소설은 이 험난한 돈화원정의 길에서 특히 대부대선회작전의 첫돌과구를 열어놓은 룡과송전투 장면을 빛나는 화폭으로 형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전사 오중훈의 희생적투쟁으로 마련된 룡과송전투의 승리는 실로 적 20만대군과의 대결작전에서 주도권을 틀어쥐며 조선인민혁명군을 확대강화하시려는 사령관동지의 작전적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었다.

이와 같이 소설은 전대미문의 간고성을 띤 돈화원정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초인간적의지와 비범한 예지에 의하여 마련된 빛나는 결실이었다는것을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나가는 대부대선회작전의 역사적행정에 따라 돈화원정으로부터 백석탄밀영에서의 동기군정학습에 대한 형상예로 그 화폭을 옮기고있다.

적 20만의 대군이 2중3중의 포위망을 늘이고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정황에서 40일간이나 군정학습을 벌린다는것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 동지께서는 전군을 오중훈련대장의 복수전예로 불러일으켜 40일간의 동기군정학습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시였으며 무쇠힘으로 자라난 강대한 대오를 이끄시고 두만강반예로, 조국에로의 진격의 길을 떠나시는것이다.

소설은 이 력사적인 진군길에서 있는 대마록구 전투와 홍기하전투를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홍기하전투는 대부대선회작전의 마지막로정으로서 6개월간에 걸치는 일체의 발광적인 《토벌작전》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린 크나큰 승리의 작전이었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력사적인 대부대선회작전은 적의 20만대군의 대포위작전과 놈들의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과 《동남부토벌작전》을 분쇄하고 빛나는 승리로 결속되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일찌기 항일전쟁사에 그 전례를 모르는 일체의 20만대군을 한해겨울에 완전히 격멸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력사적인 대부대선회작전에 대한 거창한 화폭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예술의 독창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였으며 그것은 또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전략과 천재적인 유격전술의 빛나는 결실이라는것을 생동한 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소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조직령도하신 력사적인 대부대선회작전에 대한 거창한 화폭을 통하여 일체의 파쇼적폭압과 《토벌》공세가 절정에 이른 그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조선혁명군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끝없는 헌신성, 로고에 의하여 새로운 양양을 맞이할수 있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확증하고있다.

2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일찌기 항일전쟁사에 있어본적없는 20만의 대적을 한해겨울에 격파해버린 력사적인 대부대선회작전의 승리는 오직 혁명전사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 뜨거운 혁명적의리에 의하여서만 이룩될수 있었다는것을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서 감동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여기에 작품이 이룩한 또하나의 사상예술적성과가 있는것이다.

일찌기 온 겨레와 민족이 일체의 쇄사술에 묶이워 몸부림치던 그 암담한 비운의 시기 10대의 어린 가슴에 조국광복의 원대한 뜻을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거연히 나서시여 류례없는 험난하고 곡절많은 조선혁명의 길을 한몸으로 헤쳐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그대로 인민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불같은 사랑으로 수놓아진 가장 위대한 인간의 력사이다.

위대한 사상과 령도, 이것은 오직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결합될 때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을수 있으며 그 어떤 준엄하고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인민대중을 불러일으켜 거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수령은 인민을 믿고 보살피며 인민은 수령을 친아버이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여기에 백전백승하는 조선혁명의 힘의 원천이 있으며 언제나 승승장구하며 영원히 통성변형하는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가장 위대한 인간, 위대한 수령에 대한 영생의 송가이며 위대한 수령만이 지닐수 있는 인간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의리, 크나큰 신뢰와 믿음에 대한 불멸의 서사시이다.

장편소설 《준엄한 지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인간애를 오중훈, 배정식, 리철범, 최창호 등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극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특히 의의깊게 그려진 오중훈, 리성립, 최인관 등의 형상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이 어떻게 그들의 운명과 뿔수 없이 련결되어있는가를 깊이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성립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통하여 그이께서 체현하고계시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크고 숭고한것인가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주체의 철학적신념에 토대한 인간에 대한 드림 없고 변심없는 신뢰와 믿음은 참된 인간애, 혁명적동지애의 기초로 된다.

사람의 마음을 믿지 못하고서는 인간을 사랑할 수도 그를 위해 헌신할수도 없으며 사람의 힘을 믿지 못하고서는 그 힘에 의거할수도 그 힘을 불러일으킬수도 없다.

사람의 량심과 힘을 믿고 그들을 혁명으로 불러일으킨다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철석의 신념, 이것이 바로 간고하고 험난한 조선혁명의 초행길을 헤쳐가던 때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체현하신 확고한 의지이고 신념이었다.

인간을 믿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사람의 운명을 한어깨에 걸머질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심장만이 그 누구도 믿기 어려워하는 그런 역경속에서도 변심없이, 드림없이 인간을 끝까지 믿을수 있다.

그러한 믿음은 또한 참으로 위대한것이여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의리, 믿음에는 믿음으로 보답하는 고결한 혁명적 의리를 낳는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위대한 철학,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그러한 위대한 믿음을 체현하실수 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위대한 믿음이 있기에 한때 엄중한 과오를 범하였던 성립이 고문의 형틀에 매워서는 혁명가의 생명인 절개를 지켜냈고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서는 육신에 덮쳐드는 죽음을 이겨낼수 있었다.

참으로 성립에게 기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으시였다.

그가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을 때에는 꼭 다시 일어서여 할 남다른 사연이 있는 귀중한 사람이라 하시며 꼭 땅을 디디고 일어서게 해야 한다고 하시고 그의 건강이 좋아져갈 때에는 그가 다시 총을 잡게 해주어야 한다고 심려하시는 어버이

수령님이시다.

그리하여 이러한 현실에 접한 최인관은 한사람의 운명을 위하여서는 너무도 엄청나게 큰 정성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한생 처음으로 참된 인정과 사랑의 세찬 밀물이 가슴에 밀려드는 것을 체험하였다.

실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전우에 대한 뜨거운 믿음, 그것은 간고하고도 시련에찬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끈 힘의 원천이며 요인이였다.

혁명전사들에게 베푸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이 뜨거운 사랑은 50평생 인정에 메마르고 의리에 거칠어지고 도리에 어두워졌던 곡절많은 운명의 주인공 최인관의 가슴에도 따사로이 비쳐지고있다.

소설은 새 인간으로 탄생하는 최인관의 극적운명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인간애의 또 한 측면인 크나큰 포용력에 대하여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령도자라고 하여 누구나 다 위대한 풍모를 스스로 갖추게 되는것은 아니며 뜨거운 포용력을 지닐수 있는것이 아니다.

크나큰 포용력, 그것은 오직 사람들의 심장을 매혹시킬수 있는 비범한 예지와 안광, 스스로 이끌리게 하는 끝없는 믿음과 뜨거운 인간애, 사람의 허물보다 량심을 믿고 죄많은 어제날보다 새로 결심하고 나선 앞길을 열어주고 믿어주는 그런 한량없는 아량과 도량을 한몸에 체현한 그런 위대한 수령만이 지닐수 있다.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그런 끝없이 큰 포용력을 지니시고 만사람을 한가슴에 안아 혁명의 한길에 세워주시는 가장 위대한분 이시다.

의의깊은 최인관의 운명이 바로 그것을 생동하게 실증해준다.

한평생을 악덕과 무법, 포악과 잔인, 온갖 비인간적인것이 판을 치고 온갖 인간적인것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세상을 보며 살아온 그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곡절많은 운명의 주인공인 최인관을 크나큰 사랑의 한몸에 안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혁명가로 키워주시였으며 그를 혁명동지로 불러주시였다.

그리하여 50평생 머리는 종교에 마비되고 육신은 유산자의 생활에 관습되었으며 공산주의에 대하여 의혹과 불신을 로골적으로 품기던 늙은 의사인 최인관이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반년가까이 수천리 간고한 원정의 길을 걸어온것이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러한 최인관을 보실적마다 만일 혁명이 정의와 진리를 구현하기만 한다면 량심과 의리를 가진 만사람을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그런 까닭으로 하여 혁명은 멀지 않은 앞날에 수천만 대중을 묶어세워 승리의 결정적국

면을 열어제낄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더욱 굳게 하실수 있으시였다. 실로 사령관동지께 있어서 최인관은 리성림이와 더불어 간고한 이해에 인간의 슬기와 잠재력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재삼 확인하여준 잊으실수 없는 사람이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는 이처럼 한없는 도량과 아량, 크나큰 포용력을 낳았다.

억지로 끌어당길수 없는것이 사람의 마음이며 스스로 이끌리면 떨어질수 없는것이 또한 사람의 마음이다.

함께 있으면 힘과 믿음과 삶의 보람을 안겨주고 헤어지면 못견디게 그리워지는 품, 그러한 위대한 심장만이 크나큰 포용력으로 만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할수 있다.

어버이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신 길지 않은 반년 동안 최인관은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벅찬 그 위대한 모든것을 가슴이 터지게 체험하고 통감하였다. 실로 반년간의 혁명의 원정길은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새 인간이 나서자란 뜻깊은 로정이기도 하였다.

혁명전사들에게 베푸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은 언제나 몸가까이 거느리고계시는 친위전사들에 대한 사랑, 혁명적동지애에서 가장 숭고한 경지에도 승화되고있다.

오중훈, 배정식, 리철범 등 친위전사들에 대하여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정녕 잊을래야 잊을수 없고 뻔해야 뻔수 없는 친혈육의 정보다도 더 뜨겁고 귀중한 친어버이사랑이었다.

소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혁명전사 오중훈에게 베푸신 어버이사랑이야말로 혁명적동지애의 최고의 정화이며 가장 빛나는 귀감으로 된다는것을 참으로 감명깊게 형상하고 있다.

가장 어려우시고 힘겨우실 때면 먼저 찾으시게 되는 사랑하는 전사였고 그가 데리고간 대원들이라면 그가 어디에 가있건 직접 자신께서 거느리고 계신 부대와 다름이 없이 마음이 놓이시였다.

친위전사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고 한량없는것이기에 오중훈의 죽음은 그이께 있어서 너무도 참기 어려운것이였다. 소설은 눈물없이 읽을수 없는 이 극적인 화폭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적동지애의 헤아릴길 없는 크기와 뜨거움에 대하여 의의깊게 보여주고있다.

사랑하는 전사의 비보에 접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가슴아프심은 이루 다 헤아릴수가 없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크시였으면 그이께서 추도의 말씀조차 따로 하시지 못하는것이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조용히 자신의 외투를 벗으시여 오중훈의 몸우에 덮어주시였다. 죽은 사람이 추운줄을 알리 있으랴만 가셔도 자신의 뜨거운 정을 느끼게 하시려는것이리라. 그리고 장군님께서

는 오중훈의 군복팔소매를 더듬으시여 지난 초겨울 3도백하기습전투에서 탄환에 터진 자리를 찾아보시였다.

오래도록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시고 손으로 오중훈의 무덤을 어루만지시다가 사령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무심하오 중훈이, 너무 무심하단말이요. 우리가 함께 총을 잡고 걸어온 길은 십만리도 넘고 이십만리도 더 될텐데 그 험한 길을 이날이때까지 함께 걸어오다가 어찌 이렇게 불쑥... 우리를 남겨두고 동무 혼자 가는 법이 있단말이요!...》

오중훈의 전사가 가져다드린 마음의 상처는 너무도 큰것이여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후 오래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싶이 하시였으며 잠을 이루시지 못하시고 뜬눈으로 지새우곤하시였다.

그러나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아프신 마음의 상처를 투쟁으로 전환시키시였다.

협신자전투로 돈화땅을 발각 뒤집어놓으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전체 대원들을 오중훈련대장의 복수전으로, 동기군정학습으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사랑하는 전사에게 영생하는 생을 안겨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우신 사랑에는 끝이 없으시였다.

학습을 잘하지 못하여 오중훈에게 애를 먹이던 최장호가 동기군정학습에서 모범을 보였을 때에는 그가 알았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고 떠나간 전사를 잊지 못해하시며 동기군정학습을 마치고 새로운 전투에 들어갈 때에는 예비물자보관장소를 적어놓은 오중훈의 수첩을 꺼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가슴에는 육신은 갔어도 살아있는 그 정신, 그 공적과 함께 또다시 오중훈을 자라난 부대의 전열속에 세워주시려는 헤아릴수 없이 뜨거운 념원과 사랑이 굽이쳐흐르고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위대한 사랑과 믿음속에서 성장한 혁명전사이기에 오중훈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것처럼 사령관동지께 끝없이 충성다하였던것이다.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이 세상만물을 키워내듯이 어버이수령님의 이 위대한 사랑의 품은 영원히 태양을 우러러따르는 수천수만의 충성의 별무리들을 낳아키운다.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을 인간의 마땅한 도리로, 수령을 모신 혁명전사의 웅대한 의리로 여기는것이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오중훈이도 그러한 사람들중의 하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혁명전사였던 오중훈동지를 원형으로 하고있는 오중훈의 형상은 소설에서 수령님께 영원히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빛나는 전형으로 훌륭히 그려졌다.

홀잠뱅이바람에 떨어진 짚신을 신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한 오중훈은 어버이장군님의 품속

에서 처음으로 혁명을 깨우쳤고 유격대의 분대장으로, 소대장, 정치지도원을 거쳐 중대장으로 그리고 사령관동지를 가장 몸가까이에서 받아들여오는 친위전사,련대장으로 자라났다.

그리하여 그의 육신도 정신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장군님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은 그의 생활의 전부이고 목적이였다.

참으로 그는 충성의 화신이였다.

오중훈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것이였다.

그러한것은 그가 무기와 탄약, 식량 등 전투에 비물자를 마련할데 대한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드팀없이 집행해나가는데서 감명깊게 그려지고있다.

그가 사령관동지의 명령대로 예비물자를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에 파문을 때였다. 언제나 기관총에 눈독을 들여온 최창호가 기관총 한점을 자기에게 줄것을 간청해나선것이다. 그의 심정을 모를 오중훈이 아니였다.

그러나 이 무기들이 어떻게 쓰일지, 사령관동지의 원대한 구상속에 이 무기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있는지 아직은 알길 없어도 그이께서 이처럼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련대에 맡겨주신 임무이니 한치도 드릴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는것이였다.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집행하는 오중훈의 자체와 립장에는 실로 한치의 드팀도 없었다. 그는 사령관동지의 명령대로 예비물자를 마련할뿐 아니라 그이의 구상대로 그 예비물자들이 제때에 원만히 쓰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수첩에 예비물자를 보관한 장소를 적고 락도까지 그려넣는 것이였다.

소설에서 오중훈의 이 수첩에 대한 세부는 참으로 의의깊게 그려졌다.

오중훈은 혁명전사는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명령을 집행할뿐 아니라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기전에 그이께서 의도하시고 심려하시는 문제를 미리 알고 그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그의 확고한 신조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추석물자를 마련할 과업을 그에게 주시지 않았다. 다만 배정식이 그를 만나러 립시병원에 갔을 때 무슨 말끝에 사령관동지께서 달을 보시다가 오늘이 음력으로 몇일인가고 물으신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을뿐이였다. 그런데 그는 적과의 전투를 여러차례나 벌려 푸짐한 추석물자를 마련하였으며 이리하여 추석을 앞두고 대원들을 생각하시여 심려하고계시는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린것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 동무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라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이 한마디의 말씀속에 천마디 만마디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것

이다.

그는 정녕 그런 사람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동기군정학습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면서 오중훈에게 파정안을 잡아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올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군정학습에 소용되는 그 방대한 제강들을 사령관동지께서 손수 다 만드시기를 바라고만 있겠는가고 생각한 그는 그이의 품속에서 자라온 자신의 체함을 연구하고 탐구하여 체계를 잡아 자신이 제강을 썼던것이다. 실로 그는 간고한 행군이 계속되는가운데 남다 자는 그 짧은 휴식의 한때 한때에도 쉬지 않고 얼어드는 만년필을 입김으로 불어가며 한자한자 정성을 기울여 쓰고 또 썼다.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 그가 사령관동지께 전해달라고 손으로 더듬은 전투가방속에는 미처 그가 다 끝맺지 못한 이 제강이 썩여있는 보풀이 인학습장이 있었던것이다.

오중훈의 모든 사색과 행동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을 더 잘 위해보시고 그이의 안녕을 보위하겠는가 하는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일관되어있었다.

3도구밀영에서 원정을 떠나는 날 밤 오중훈련대장은 련락병인 영남이에게 보꾸레미를 쥐여주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걸 배낭속에 깊이 건사해둬라. 울거울 음력설, 양력설은 다 어느 행군길에서 설지, 어느 전투마당에서 지낼지 알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설날아침 하다못해 장군님께 밥이라도 한끼 대접해야 할게 아니냐? 작년 백날행군때 설날아침 밥한그릇 지어 대접하지 못한게 내 일생 한이 될것같다.》

꾸레미속에는 소고기통줄임과 오이통줄임 그리고 한되박가량의 하얀 찹쌀이 가득차있었다.

이처럼 뜨거운 오중훈의 정성이 깃든 이 음식들은 그가 전사한 다음 아버지수령님께서 최인관과의 작별을 나누시려고 마련하신 식사때에 김정숙동지께서 그이께 대접해드리였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떠나간 전사가 남기고 간 잊지 못할 동지의 사랑을 가슴뜨거이 느끼시며 감회도 깊으신듯 세상에 동지의 정보다 더 큰 정이 어디 있겠는가고 최인관에게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오중훈은 바로 이처럼 맑고 깨끗하며 이처럼 뜨겁고 드팀없는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언제 어디서나 조선혁명의 심장이시며 뇌수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해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비물자준비정형을 료해하시기 위하여 몸소 위험한 량강구내안으로 나가셨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오중훈은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었다.

그는 끝내 4중대를 이끌고 그이께서 계시리라

고 생각되는 량강구방면으로 마중하러 떠나갔다.

그후 사령관동지께서 지체되신 경위를 대충 알게 된 오중훈은 3면대복에 조우하시였던 그 위험한 시간을 되새겨보며 후둑후둑 불안하게 뛰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어했다.

참으로 오중훈은 위대한 수령님께 자신의 한생을 바쳐 끝없이 충성다한 혁명전사의 참된 귀감이었다.

실로 수령은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또한 수령을 끝없이 따르고 충성다하는 여기에 필승불패하는 조선혁명의 힘의 원천이 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힘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간악한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을 광복하였으며 현대제국주의의 아성인 미제가 내리막길을 걷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우리는 이 위대한 힘으로 재더미만 남은 폐허 위에 강대하고 존엄있는 주체의 조국을 일떠세웠으며 오직 이 위대한 힘으로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빛나게 완성해나갈 것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마땅히 이 위대한 힘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여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덕성을 따라배우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워나가는데 훌륭히 이바지할것이다.

간석지의 밤

김희종

파도소리 청다운
간석지 바다가에
새 보금자리 깃을 편
개간자들의 천막에
소리없이 밤은 깊어가도

잠들수 없어라
어버이수령님 부르시는
그날의 새땅우로 달리는 마음
노을처럼 피어나
불길처럼 타올라

이 밤 나는 걷는다
곧게 뻗은 제방뚝을
래일의 포전길을 거니듯
밀려오고 밀려오는 파도소리를
새땅우에 넘실거리는
이삭의 물결소리로 들으며

저 멀리 바위산에
발파의 돌연기 피워올리며
점점이 이어가는 섬들은
황금벌에 솟아
빨강게 무르익을 과일동산이런가

일어서는 간석지 새 마을은
락원의 기슭에 이어지며 이어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달빛타고 정겹게 울려와라

아, 잠들수 없어라
그날은 얼마나 좋으랴
바다는 일렁이는 황금의 파도
우리 수령님 풍년이삭 만져보시며
더없이 기쁘시여 웃으시며 걸으시는
그날의 환희의 파도

그때문에 저 날바다를 안으면
산악의 힘이 솟구치고
저 울부짖는 격랑과 맞서면
수리개의 용맹이 나래치고
저 허리치는 감탕판에 들어서면
노래소리 높아지는 청춘이 아니더냐

넓혀가는 새땅을
청춘의 찬란한 위훈으로 넘겨주고
조국에 드리는
청춘의 영원한 기념비로 새겨주며
생각깊이 흐르는 간석지의 밤

어떻게 잠들수 있으랴
영광의 그날이 마주와
아, 그날을 안고 바다를 밀어나가는
청춘의 장엄한 진군길이어
청춘을 부르는 래일의 아름다운 새 기슭이어

혁명의 성산 백두산

구희철

백두산을 가장 정확하게 잘 볼수 있는 계절이 일년치고 여름이며 여름치고도 8월이라고 한다. 다행히도 우리 답사단일행은 8월초에 백두산을 오르게 되었다.

답사로정의 첫걸음을 떼던 순간부터 백두산은 그 웅엄하고 웅장한 자기의 모습을 친근하게 드러내며 우리의 마음속에 높이 솟아있었다.

백두산!

백두산은 우리 조선의 자랑이며 우리 혁명의 기념비로서 뜻깊은 사연을 지니고 솟은 자랑 높은 력사의 산이다.

이 나라의 높고낮은 봉우리들과 산줄기들을 한 품에 거느리고 유구한 세월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무며 모진 풍상을 다 겪어온 조종의 산 백두산,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눈곱이 뜨거워오고 가슴이 웅엄해지는 백두산.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업적을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내이며 혁명의 성산으로 솟아있는 백두산!

지금까지 백두산을 몇번 보아온 사람도, 처음 백두산에 와보는 사람들도 무엇때문인지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되어 흥분을 똑같이 지니게 되는것이다.

우리가 해산역에 내린 그 순간부터, 아니 그보다 앞서 백암령을 넘던 때로부터의 뜻깊은 자욱들과 우리가 지나온 보천보, 청봉, 건창, 백두산 밀영, 배개봉숙영지, 삼지연, 《갑무경비도로》의 그 머나먼 로정들은 다 이 백두산에 와닿기 위함이었었던것이다.

대오가 《갑무경비도로》를 벗어나 삼지연의 넓은 광장에 들어서던 때의 감격을 어떻게 잊을수 있으랴.

붉은 기발을 앞에 날리며 《갑무경비도로》를 이어가던 대오와 대오의 흐름들.

길양옆에 울창하게 일어섰던 이깔분비나무숲, 오랜 세월의 풍상을 말해주듯 키높이 자란 나무들의 아지마다 줄줄이 드리워 흐느적이던 가벼운 초록의 송진, 그 울울창창한 밀림 바닥으로는 키낮은 잡관목들이 자라고 들쭉철이어서 어디나 나지막하게 아지를 펴고 보라색 열매를 도글도글 드리운 들쭉나무들이 익어가는 열매의 향기를 마음껏 풍기고있었다.

이윽고 도로의 양옆으로 늘어섰던 이깔분비나

무숲이 끝나고 삼지연못가의 광장이 환하게 안겨오던 순간 누구인가 먼저 감격에 목메여 웅치는 걱정 목소리가 들려왔다.

《백두산이다!》

《저기 백두산이 보인다!》

이 말은 사람들의 가슴가슴으로 옮겨져갔고 울창한 밀림도 이 뜨거운 말을 되받아옮기며 어디론가 멀리 멀리로 물결치는 설레임으로 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렇다. 백두산, 백두산을 멀리 배경으로 백두산의 장군봉을 딛고 서계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웅엄하게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이 준엄했던 그날처럼 젊으신 모습으로 높이 서계시었다.

얼마나 잘 어울려솟은 백두산인가.

참으로 백두산은 수천수만년 세월을 우리의 수령님의 그 위대하신 모습을 받들어 천만년을 솟아있기 위해 이 북방 언덕우에 그리도 높이 그리도 오래 솟아있을듯...

어떻게나 날이 맑았던지 멀리 솟아있는 백두산이 마치도 지척인듯 가까이 선명하게 바라보였다.

백두산지방의 날씨치고 구름과 안개 없는 날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그날만은 구름 한점 없이 개여있었다.

그러니 백두산은 자기의 웅장한 모습을 마음껏 드러냈고 우리 또한 백두산을 마음껏 바라볼수 있어 저마다 가슴속 터친것은 감탄뿐이었다.

대체로 답사자들은 백두산답사를 위한 좋은 날씨를 택하기 위하여 삼지연 휴양각에서 2~3일 묵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일행은 아예 걱정할 아무런것도 없었으니 그때의 그 기쁨을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을는지...

다음날 우리는 백두산을 향하여 일찍 떠났다. 물론 우리의 행군은 이제까지 온것처럼 빠스행군을 하며 가는것이였다.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두갈래로 나있었다.

한길은 모든 답사생들이 다니는 삼지연에서 대흥단으로 가는 갈림길까지 8km, 그 갈림길에서 다시 백두산쪽을 향하여 33km 가면 백두산에 닿는다. 그러니 이 길이 100여리 길로 되는것이 다.

다른 또 한길은 삼지연에서 배개봉까지 10km,

거기서 다시 백두산까지 20km 가야 하니 역시
이 길로도 100여리를 헤아려야 하는것이다.

우리가 가는 로정은 첫 길이었다.

빠스는 백두산을 향해 여름날의 수림속을 달리
었다.

가고 또 가도 처음 보던 수림과 지나온 수림과
어쩌면 꼭 같은것 같은 수림을 지나 계속 빠스
로 달렸다.

노래를 부르기도 시를 랑송하기도 아니면 차창
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들도 보였
다.

어쨌든 부르는 노래도 읊는 시도, 그리고 하는
생각도 형식은 저마끔이나 백두산과 련관된 의
의 있는 하나의 귀착점에 모두의 마음은 닿아있
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혁명은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어집니
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하여야
만 그들을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키울수 있
으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생각도 많으리.

하지만 그 모든 생각 하나와 같으리.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감사의 정.

아니면 위대한 수령님을 언제나 목숨으로 보위
하며 투사들이 싸워온 간고한 시련의 20여성상
한치한치를 천년맞잡이로 간고하게 찾으며 하루
를 10년맞잡이로 헤쳐온 피어린 길로 너무도 행
복하게 빠스를 타고 달리는 송구함.

뜻깊고 숭엄한 산악은 뜻깊고 숭엄한 생각을
안겨주었다.

백두산으로! 백두산으로!

군인들이, 대학생들이 붉은넥타이를 날리는 소
년단원들이 저마다 백두산에 먼저 오르려 걸음들
을 재촉하고있었다.

길이 아니라 길을 메운 대오의 굽이침이라고
할가.

참말로 혁명의 뜻을 배우려는 간절한 마음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답사행렬은 그 끝을 알수
없었다.

수림속길을 벗어나자 백두산이 점점 가까이 바
라보이기 시작하였다.

백두산으로 오를수록 백두산보다 낮은 산줄기
들이 하나, 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며 아득한
먼곳까지 평평집하고 넓다란 등판을 보기 좋게 펼
쳐놓았다.

백두산가까이 오를수록 울창하던 수림은 키를
낮추었다.

나무 없는 지대와 나무가 자랄수 있는 지대를
갈라놓는 표식이기라도 한듯 키낮은 우산모양의
아지를 펼친 나무들이 자라고있었다.

이것은 사실 이 백두산이 얼마나 높으며 그리
고 얼마나 사나운 날씨의 변덕스러운 조화를 다
받고 있는가 하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드문히 한두그루씩 무성한 수림에 섞이지 못하고
고 떨어져있는 나무들은 백두산의 세찬 바람세를
말해주는듯 동북쪽인 백두산쪽으로는 아지를 짧
게 내뻗쳤고 동남쪽으로 향한 아지들은 대조를
이루며 길게 내뻗치고 선것이 마치도 추위와 따
스한 양지의 그 계선인듯했다.

이윽고 빠스는 백두교에 도착하였다.

이제는 삼지연에서 아득히 멀게 바라보이던 백
두산이 눈앞에 보이고 올려다보니 산말기는 하늘
끝에 닿은것 같았다.

여기서부터는 짐작해서 누가 한 말인지 아니면
실지 거리가 그런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백두
산마루까지 10리남짓하다고들 했다.

겨울에는 흰눈을 이고 솟아 백설의 산인 백두
산!

여름에는 흰 부석을 이고 솟아 흰빛을 사시절
잃지 않는 백두산!

천만년 뿔어번지던 용암이 굳어져 그대로 바위
로 굳어진듯 기세찬 천애벼랑들, 엄엄한 바위뿌
리를 내리고솟은 장군봉.

오르는 산기슭엔 키낮추 자라는 갖가지 꽃과
이름모를 풀들.

이름모를 작은 꽃들이 이 높은 백두산에 피는
자랑을 알아선지 아니면 모진 눈서리를 이겨내며
핀 그 자랑에 겨워선지 어쨌든 작고 고운 꽃들
이 저마다 제 모양을 독특하게 드러내며 향기를
질오게 풍기고있었다.

다만 우리가 그리도 친숙하게 알고있는 진달래
와 만병초는 이미 8월이라 다 저버린 철이었으나
다른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아쉬운 마음을 아무
일없이 메꾸어주었다.

꽃은 졌어도 꽃송이들 못지않게 청신한 기운을
뿜으며 산이슬을 잎일에 얹고 기름을 바른듯이
반들거리는 만병초잎들이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
었다.

백두산마루에 오른 순간 저마다 환성을 올렸
다.

그리고 오래도록 산우에서 다시 아득히 내려다
보이는 천지의 검푸른 호심이며 그 넓은 수면우
에 스쳐지나는 바람결이며 호수둘레를 높낮이 들
러선 산봉우리들을 생각에 잠겨 바라보았다.

우리 일행중에는 백두산을 벌써 몇번 올라봤다
는 60남짓한 아바이도 있었다. 그는 감격에 겨운

소감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백두산은 세상에서 보기드문 산입니다. 이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려고 바로 우리 조선땅에 솟은 산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마음은 뜨거운 생각에 젖어있었다.

젊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잃은 조국을 부르시며 광복의 해불 높이 드신 혁명의 성산 백두산, 이 백두산이 제아무리 명산이라도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이 깃들지 않았다면 오늘처럼 빛날 수 있으랴.

백두산은 아득한 옛날 신생대에 화산의 분출로 인하여 생겨난 검푸른 천지와 그 두리에 병풍처럼 솟은 수많은 산봉우리들의 총칭이라고 한다.

백두산 봉우리가운데서 제일 높은 것이 장군봉인데 그 높이는 2,750미터이다.

백두산의 부석층은 5만평방미터의 넓은 대지를 이루며 백두산의 주위는 1,500리에 달한다고 한다.

이 땅위에 줄기줄기 뻗어내린 수천수만의 봉우리들과 산줄기들은 백두산에 그 뿌리를 박고 연연 삼천리에 뻗어 한나산에 이르고있으며 압록강, 두만강을 비롯하여 동서남북으로 부채살처럼 퍼져간 물줄기들도 백두산에 근원을 두고 흐르고있다.

어떻게 자연의 현상만이라 이야기할 수 있으랴.

우리 혁명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 동지께서 20성상 싸워오신 불멸의 위업이 깃들어있는 백두산!

우리의 영광스러운 당의 첫자옥이 찍혀진 자랑 높은 백두산!

그렇다. 그래서 백두성산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배우는 대로천박물관의 빛나는 기념비로 혁명전통교양의 뜻깊은 거점으로 되는 것이다.

장군봉마루로 오르는 그 중턱에서 사람들은 오래도록 발걸음을 뻘줄 몰랐다.

한것은 거기에 백두산사적비가 세워져있고 사적비문 시가 새겨져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화강석에 쏘아박아쓴 한자 한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뜨거운 심장에 되새기고 그 글줄들이 자기의 몸에 흐르는 피줄기속에 맥맥히 굽이치게 하고있었다.

실로 사람들은 이 백두령봉우에서 삼천리강토를 바라보며 천리수해처럼 마음을 설레이고 백두의 칼벼랑처럼 의지를 가다듬고 천지의 그 깊이처럼 혁명의 뜻을 깊이 새긴다.

승엄하고 성스러운 산악은 승엄하고 성스러운 생각과 시를 또 불러내는 것이다.

사람들속에 섞여 백두산에 오른 기쁨을 마음껏 느껴보는 내 가슴속에서는 절로 시가 흘러나왔다.

《백두산에 올라서》

백두산!

혁명의 성산아!

너 조국이 캄캄한 어둠에 잠겼던 때엔

젊으신 장군님 높이 추켜드신

혁명의 붉은 해불로

조선을 불러

장군님 사랑의 품이던

백두산, 백두산으로

나라 잃은 인민이 굽이쳐오게 하더니

백두산!

력사의 성산아!

너를 찾아

오늘은 락원의 이 강산

수령님을 태양으로 높이 받든

조선의 영광을 노래하며

백두산, 백두산으로

행복한 인민이 굽이쳐오나니

아, 백두산 백두산!

높이 솟아 빛나라 천만년

해와 별을 머리위에 이고

그 찬연한 빛발로

온 세상을 밝히며

온 인류를 부르며...

오래도록 발길을 뻘줄 모르는 끝없는 대오, 사람들은 백두산, 여기에서 자기의 한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충성의 맹세를 다지며 이 세상 첫걸음을 떼는듯 살아오는동안 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하던 깊은 생각의 자욱을 남기는 것이었다.

우리가 오를 땐 백두산밑에서 8월의 더위를 느꼈으나 백두산우에서는 겨울날의 찬랭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추운 바람을 맞아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간직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생각은 백두산우의 찬바람도 식힐 수 없었다.

백두산 뜨거운 마음속으로 불러보는 이 이름, 그러면 어느덧 승엄한 생각이 온몸에 조용히 깃든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어디서나 백두의 그 기상에 자기의 삶을 견주어보며 한생이 수령님과 당을 위한 값높은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 충성의 맹세를 다지는 것이다.

새해 작가들의 결의

1982년! 새해의 아침이 밝았다. 우리 인민의 가장 경사스런 민족최대의 명절을 맞는 새해가 왔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1981년을 보내고 새 승리를 약속하는 이 아침에 우리 작가들은 새해의 결의를 다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가지고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 탐구하며 창작예술적기량을 높여 혁명적인 문학 예술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1982년!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70돐을 맞는 영광의 새해! 생각할수록 가슴뜨거운 격동과 감격과 흥분으로 충만된 새해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태어나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향도의 빛발을 받으며 당의 문필전사로 자라난 우리 작가들!

지난 1970년대에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소설들을 비롯한 수많은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여 문학예술의 대화원을 가꾸어놓았다.

우리 작가들은 이해에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기수답게 자기의 작가적사명을 다할 굳은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으며 혁명의 붓을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있다.

우리 작가들의 충성의 결의들가운데서 그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편집부)

나의 희망, 나의 결의

우리 인민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을 가장 뜻깊게 맞이한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 탄생 70돐을 앞두고는 더욱 그렇다. 나는 주체시대 새 인간의 탄생을 그린 장편소설 《열정의 노래》를 새해에 충성의 선물로 올리려 한다.

이 소설이 어버이수령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릴수 있다면 작가로서 그 이상 행복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나는 또한 새해에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조국 해방전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위훈을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 《로동자편대》의 자료연구사업을 시작해서 구성작업까지 끝낼 욕심이다. 해방후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자유와 행복을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용해공들과 조립공들이 청춘을 바쳤던가. 그들이 조국강산에 기록한 영웅서사시를 훌륭히 재현하기 위해서 작가적인 기량을 높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다.

김홍무

장편소설 《먼길》을...

새해엔 누구나 뜻깊은 충성의 선물을 올리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1982년을 이처럼 귀중히 여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는 해이며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크나큰 은덕을 더 가슴 뜨겁게 안게 될 뜻깊은 해이기때문입니다.

력사는 이 뜻깊은 해의 크고작은 일들을 기록에 오래 남길것입니다.

저 역시 이 경사스러운 해에 장편소설 《먼길》을 세상에 내놓겠습니다.

이 장편소설에서 우리 시대 청춘들이 아름다운 것은 리상이 있기때문이며 그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기때문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리상을 지니지 못한 청춘들의 심장엔 참된 삶과 애정과 우정도 깃들지 못한다는것 역시 이 소설에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주제 측면입니다.

정창윤

혁명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경사스러운 1982년을 맞으면서 사람들은 아마도 저마다 송엄한 추억을 더듬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불타는 결의들을 다질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장편소설 《설레이는 숲》의 초고를 완성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은정깊은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혁명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저는 이 문제를 놓고 무엇인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역사적 위업에 저의 적은 힘이나마 바치겠습니다.

백보흠

충성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은 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됩니다.

가장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며 저는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의 한없는 사랑에 언제한번 변변히 보답을 못하고있는 자신을 두고 깊은 자책감을 금할수 없습니다.

정녕 민족최대의 경사스런 명절을 맞게 되는 이해에 위대한 수령님께 뜨거운 흠모와 깨끗한 정성이 고인 충성의 선물로 만수축원의 인사를 올리지 못한다면 어찌 이 땅에서 삶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해설한 책 한권을 쓰려고 합니다.

오직 전사의 다함없는 흠모와 정성이 그대로 우리 당의 광휘로운 빛발을 전하는 충성의 구슬로 아롱지기를 바라며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방연승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했거나 들어보지도 못했던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사변들이 앞으로 태어날것이며 또 나를 기다리고있는것인가.

새해를 맞으며 나는 이것을 더욱 강렬히 느끼게 된다.

나는 현재 장작중에 있는 장편기행 《대동강의 흐름을 따라》를 끝내는 차제로 오래동안 현지체험을 한바 있는 수력발전소 건설자들의 로력투쟁과 그속에서 맺어진 우리 시대 새형의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펼쳐줄 새 작품창작에 돌입하겠다.

그리하여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자기를 무장해가는 인간들이 어떤 기적을 세상에 창조해나가는가 하는것을 시적형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세기적위업에 적은 힘이나마 보태어가겠다.

오영재

불타는 충성심을 지니고

1982년! 뜻깊은 새해의 이 아침! 나의 가슴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 불타는 충성의 결의가 가득 차념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작품,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는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유서깊은 만경대의 초가집에서 주체의 태양, 인류의 구성으로 솟아오르신 때로부터 70성상,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그이께서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쳐오시는 로고의 자욱자욱은 오늘 우리 생활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과 한량없는 은정을 매일 매시각 뜨겁게 받아안은 시인의 가슴에 어찌 충성의 노래가 충만되지 않으랴!

나는 이해에 분초를 아껴 학습, 체험, 사색, 습작 또 습작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드리는 충성의 송가창작에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부었다.

나의 붓이여! 먹이 아니라 심장의 피를 찍어 위대한 우리 수령, 위대한 우리 당, 위대한 우리 시대와 우리 인민을 노래부르라!

김 철

전투장의 제 1선에

-전투장의 제1선에 선 시인이 되자-

이것이 새해를 맞으며 다지는 나의 결의이다.

민족최대의 경사를 맞는 이해에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에 드릴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 벅찬
전투장의 제1선에서 마련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설계도를 안고 용약
펼쳐나선 청춘들의 활무대-4대건설장은 이해에
내가 서고싶은 전투장이다.

나는 우선 난바다를 밀어내고 대자연을 정복하
는 간석지건설장, 청년돌격대원들속에 들어가 거
친 바다바람을 마시며 나의 청춘도, 정열도 다
바치려 한다.

발목이 빠지는 진펄우에 만풍의 금나락을 펼치
고 새 거리, 새 마을을 일으켜가는 시대의 개척
자-간석지건설청년돌격대원들속에서 나 역시 감
탕을 헤쳐 보석을 찾고 천리제방을 쌓아 바다물
을 밀어내고 구슬을 얻어내는 희생적인 노력으로
우리 당의 기쁨이 될 시들을 창작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어깨에 묵직히 지고 떠났던 배낭에
간석지건설시초를 넣어가지고 돌아오겠다.

오필천

참다운 소년애국자의 형상을 창조하겠다

덕지강은 이름없는 강이었다. 길이 백키로를
넘지 못하는 이 작은 강은 학생들의 지리교과서
에도 나지 않았고 항간에도 별로 알려지지 못했
었다.

그러나 1950년 11월에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
했던 서강령소년이 고향을 강점한 미제원수놈들
을 반대하여 그 기슭에서 싸우다 영웅적으로 희
생된 때로부터 덕지강은 이 슬기로운 소년애국자
의 이름과 더불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열여섯꽃나이를
서슴없이 바친 어린 애국자 서강령소년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깊이 알고싶어하는것은
우리 학생소년들의 심정이기도 하다.

나는 현재 쓰고있는 중편소설의 목표판을 다시
금 겨누어본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는다.

재미있고 깊이있는 소설을!

이것이 새해에 들어서면서 첫걸음을 떼는 나의
결심이다.

전기영

인민이 즐겨부르는 명가사를!

자기의 발자국,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걸어
가는것은 작가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창작의 첫걸음을 떼는데 불과한 저에게 있
어서 새해는 새로운 결의와 창작적열정으로 가슴
을 불태워주고있습니다.

저는 이해에 우리 시대의 장엄한 열정과 전진
의 맥박을 시어에 담아 철학적이며 정서적인 가
사,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명가사를 써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기쁨을 드
리겠습니다.

박윤

청년들을 당의 전투적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오랜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역사적위업이며 이 과정에 세대교체가 일어나는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명맥을 곳곳이 이어나 가며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믿음직하게 키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우리 당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속에서 최근에 진행된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7차대회는 전체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을 조선로동당의 전투적인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창건자이시며령도자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대회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역사적단계의 요구에 맞게 우리나라 청년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며 반제자주위업 완성을 위한 세계청년들의 투쟁을 강화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역사적연설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연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청년운동방침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파시한 우리 나라 공산주의청년운동의 자랑찬 로정에 대한 빛나는 총화이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우리 나라 청년운동이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강령적문헌이며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의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7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청년들은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며 앞날의 주인공들입니다. 청년들에게 우리 혁명의 전도와 조선민족의 장래가 달려있습니다. 청년들은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키워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할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이며 교대자들이다. 혁명의 명맥은 새세대들에 의하여 이어지며 조국의 앞날은 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은 새세대들이 혁명의 믿

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되는가 준비되지 못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청년사업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창시하시였으며 우리나라 청년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일찌기 《ㄷ, ㄷ》의 기발밑에 개척되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온 조선청년운동은 지난 1970년대에 우리 당의 령도밑에 새로운 역사적시기를 맞이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진두에서 이끄므로써 오늘 조선청년운동은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우고 기백있게 전진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과 배려속에서 항일혁명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청년들은 자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오늘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혁명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미래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으며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고있다.

새세대들이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역세게 자라나고있는것은 우리 조국의 크나큰 자랑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할수 없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아직도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지 못하고있다.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개척되고 우리 인민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발전하여온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하여야 할 숭고한 임무가 바로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맡겨져있다.

혁명위업의 전진과 더불어 이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등장하고있는 오늘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는것은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서 근본문제로 되며 매우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새세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우리 작가들이 지닌 임무는 대단히 크다.

혁명적인 문학작품은 새세대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으로부터 그들에 대한 교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새것에 민감하고 감수성이 빠른 청소년들은 책을 읽기를 즐겨하며 특히 혁명적인 문학작품들을 탐독하는 과정에서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더 튼튼히 세우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체득해나간다.

당사상전선의 초병인 우리 작가들은 새세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튼튼히 키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데 의의있는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오늘 청년들을 우리 당의 전투적후비대로, 우리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도록 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의의있는 형상을 창조하는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청년들에 대한 주체사상교양과 충실성교양에 적극 복무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하게 창작하는 것이다.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게 함으로써 어떤 환경속에서도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는것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기본방침이다.

청년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교양하는데 있어서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형상은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가진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것처럼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충성다한것은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한것도 아니였으며 혁명이 승리한 후 그 어떤 직위나 공명을 바라서 그런것도 아니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모시고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나아갈 때만이 조선혁명의 승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것이며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에서 솟아난것이다.

실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싸우는 길은 자기의 수명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길이라는것을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준 가장 열렬한 애국자들이였으며 참다운 혁명가들이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이 고귀한 충실성은 오늘 《조선의 별》의 노래의 충성의 선율을 타고, 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김혁, 차광수, 최창걸, 서정애, 설은주 등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의 심장속에 뜨겁게 흘러들고있다.

또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을 비롯하여 많은 혁명적문학작품들은 그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새세대들에 대한 주체사상교양과 충실성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왔으며 또 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따라 변함없이 충성의 한길을 가는 혁명전사들의 형상을 사상예술적으로 더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여준 빛나는

모범을 본받아 위대한 수령님을 더욱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령도에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다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작가들은 혁명전통을 주제로 하는 문학작품들을 더욱 활발히 창작함으로써 청년들을 우리 혁명의 전도와 조국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청년들을 당의 전투적후비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그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혁명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라고 하여 저절로 혁명사상을 가지는것도 아니며 혁명하는 사람들의 아들딸이라고 하여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것도 아닙니다. 만일 청소년

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높은 계급의식과 혁명정신을 가질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만족하여 혁명을 포기 할수도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8페이지)

력사적경험은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않을 때 그들속에서는 계급의식과 혁명정신이 마비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끝까지 수행해나감에 있어서 엄청난 후과를 미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성된 정세와 혁명의 대가 바뀌고있는 현실은 우리 청년들을 계급적으로,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작가들은 계급교양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제국주의의 반동성과 부패성, 침략적본성을 똑바로 인식하게 하며 착취계급을 끝없이 미워하고 전쟁관점을 바로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에 대한 혁명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주제분야를 더욱 폭넓고 심도있게 파고들어 새로운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모든 청년들이 사소한 안일해이와 권태도 철저히 배격하고 언제나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가도록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또한 청년들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며 그 부강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청소년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 그들의 지덕체교양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높은 사상의식과 깊은 지식, 고상한 도덕과 건장한 체력은 공산주의적인간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며 품모이다.

우리 작가들은 지덕체로 준비되고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생동한 모습을 작품의 다양한 생활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우리 시대 청년들의 새로운 성격적면모를 보여줌에 있어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그들의 참다운 모습을 진실하게 그리는데는 현시

기 청년교양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심화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이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청춘과 일생을 다바쳐 투쟁하려는 의욕이 강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생활에서 비할바없이 큰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새롭게 확립되어가는 청소년시기의 특성을 잘 살려 숨은 영웅들의 형상을 감명깊게 창조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누가 알아주건 말건 묵묵히 일해 가는 숭고한 애국심을 키워나가도록 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나무심는 운동, 토끼기르는 운동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널리 전개하고있는 청소년들의 전형적형상들을 창조함으로써 그들속에서 더 많은 영웅들과 혁신자들이 나오게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시대 청년들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우리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을 잘 반영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중앙은 청년들이 혁명의 요구라면 물과 불속에서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그러한 열정과 기백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돌격대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할것을 바라고있다.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거창한 총진군운동에 용약 떨쳐나 약동하는 청춘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였으며 오늘 수많은 일떠선 주체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에는 그들의 위훈이 깃들여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의 청년조립조장인 리상철을 비롯한 수도건설청년돌격대원들, 장편소설 《생명수》의 청년건설자인 주인공 대성이를 비롯한 청년돌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의 수도건설과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실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 혈기왕성한 청춘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쳤다.

우리 작가들은 자연과 사회개조의 선구자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주력부대인 우리 청년들이 오래

고도 간고한 투쟁속에서 지닌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돌격대라는 고귀한 칭호를 더욱 깊이 간직하고 새로운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보람찬 전투장에 적극 진출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어려운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여야 할것이다.

특히 발전소건설과 갑문건설, 간석지개간, 새땅찾기를 비롯한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들에 적극 진출하여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떨치고있는 청년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학작품에 리상철, 김대성과 같은 의의있는 형상이 더 많이 창조되어 우리 청년들의 생활속에서 선구자가 되고 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의 문학작품이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당의 전투적후비대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새세대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대단히 좋다.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혁명의 한길에서 억세게 싸워나가는것이 오늘 우리 청년들의 고결한 품모이다.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반들고 한가지 일을 하고 공식 하나를 풀어도 수령님과 당에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는 충성심이 아주 높은 새세대들이다.

그들은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지닌 새형의 청년들이며 자연과 사회개조의 선구자이고 담당자이다. 또한 용감하고 새것에 민감하며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시대 새세대들의 사상정신적 면모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성격을 다양한 생활분야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탐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작가들은 청년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당중앙에서 밝혀준바와 같이 현실은 작가들에게 있어서 지식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청년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간다는것은 그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사상정신생활과 생활현상을 종합적으로 체험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 작가들은 청년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야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전진을 정확히 리해할수 있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무한한 충성심과 그들의 념원과 지향, 불굴의 의지를 깊이 파악할수 있으며 따라서 다감하고 희망에 넘친 그들의 생활을 작품에 잘 반영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청년들의 생활속에 깊이 침투하여 현실체험을 잘하는것이 새세대들을 주체위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적극 복무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있는 근본 방도로 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현실체험을 더욱 실속있게 하여야 할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청년들의 새로운 성격적특징들을 더욱 깊이 탐구하고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밝혀 냄으로써 우리 문학의 전반적형상수준을 높여 당사상사업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문학은 당사상사업의 전초선이며 작가는 이 전초선을 지켜선 문예전선의 초병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가르쳐주고있는바와 같이 작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문학작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혁명에 복무하는 혁명가이다.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현시기 청소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와 당의 방침이 제시된 오늘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열정은 더욱 불타올라야 하며 사색이 내려쳐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와 구상을 높이 받들고 청소년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사상 전선의 초병으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자.

앞서간 발자국

허여극

종일 퍼붓던 눈은 멎었으나 외진 산골에는 어 느덧 어둠이 깃들었다. 아아한 메부리와 깊은 계곡, 우중충한 수림은 어스름한 장막속에 갇아들 기 시작했다.

깊은 눈에 말뚝이 반나마 묻힌 이정표가 인적 없는 길목에 외로이 서있다.

《해칠보→8km》

이정표에 먹글씨로 써놓은 글발을 보는 순간 나는 아득해졌다. 무릎이 잠기도록 쌓인 눈을 헤가르며 무려 네시간, 생소한 산골길을 홀로 헤맸는데 같길은 아직도 이십리나 남아있다. 그것도 이제부터 산중의 밤길을 걸어가야 하는것이다. 가까이 쉬여갈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주변에는 살림집 한채 찾아볼수 없다.

다만 눈우에 오목오목 찍혀있는 자그마한 발자국만이 우물구불한 행길을 따라 끝간데를 모르계 점점이 넓혀있다.

치너인지 부인인지 딱히 알수 없는 웬 너가자 한결음 앞서 해칠보쪽으로 걸어간것이다. 나는 내칠보로부터 그 굽높은 구두자국을 줄창 따라왔다. 어림쳐서 50리는 걸었으리라. 그런데 부득이 또 그 발자국을 그냥 따라갈수밖에...

이 얼마나 맹랑한 일인가! 실상 나에게는 이런 곳은 낯씨에 해칠보로 꼭 가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는것도 아니였다. 나는 이미 대학시절에 명승지로 이름난 이 일대를 탐승한바 있다. 로적봉, 종각봉, 풍금바위 그리고 금강굴의 수정샘과 외칠보의 해망봉... 정다운 학우들과 더불어 단풍든 산발들을 타고넘던 십여년전의 감명깊은 추억들은 지금도 나의 인상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때 유감스럽게도 늦가을장마에 길이 막혀 해금강과 절승을 겨룬다는 해칠보를 마저 돌아보지 못한것이 못내 아쉬워 언제이건 한번은 다시 찾으리라 별러오면서도 나는 종시 기회를 얻지 못했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지방에 있는 7탄광사업과 협동농장들에서의 새해 농사차비정형을 취재할 과업이 나한테 차례졌다. 이번길에 겸사 해칠보까지 돌아보리라 출장길에 오르면서 나는 이렇게 결심했었다.

거기에 키질을 해준것이 이곳 탄광당비서였다.

《협동농장은 바다가에도 몇개 있으니 아예 그리로 가보십시오. 예까지 왔다가 해칠보를 구경안하구 돌아간대서야 말이 됩니까? 자랑할만한

명산이지요. 사철경치중에 해칠보의 설경이 제일 이랍니다. 그리로 가보면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되지요.》

친절한 당비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아침 승용차까지 내주었다.

나는 나래돋친 마음으로 차에 올랐다.

비록 날씨는 음산하기는 했지만 탄광지구를 지날 때까지만 해도 눈 한송이 떨어지지 않았었다. 나는 점심녘에는 목적지에 가닿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날씨가 심술궂게 변덕을 부렸다. 산세 험한 박달령치기에 이르자 갑자기 함박눈이 무더기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령을 오를수록 날씨는 더욱 사나워졌다. 앞을 가려보기 어려운 뽕얀 눈발을 헤가르고 가까스로 령을 넘기는 했으나 휴양소가 자리잡고있는 내칠보를 벗어나자 눈이 어찌나 깊이 쌓였는지 차가 더는 앞을 헤치고 나가지 못했다.

《되돌아갑시다. 여기서 잘못 머물거리다가는 오도가도 못하고 고생할수 있습니다.》

눈에 박혀 헛되이 부르릉거리는 승용차를 간신히 돌려세운 운전사가 하는 소리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고장은 너덧달 교통이 완전히 두절된다고 한다. 그래서 정 오갈 일이 생기면 설피를 신거나 스키를 타기도 하고 철도를 통해서 읍에서 기차로 이웃군을 거쳐 배길을 흔히 리용하곤하는데 정 급한 중환자가 생겼을 때에는 직송기까지 부른다는것이였다.

만약 그때 눈우에 찍혀있는 이 발자국만 눈에 띄지 않았다면 해칠보까지 70리길, 그것도 눈내리는 산골의 초행길을 감히 걸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것이였다. 햇숨처럼 정갈한 눈우에 또렷하게 드러난 발자국, 어찌하면 쉽사리 따라잡을상심은 웬 너인의 앞서간 자국이 나로 하여금 결국 고행길에 나서게 한것이였다.

나는 바지런히 걸었다.

(너자가 걷는 길을 내가 못갈가?)

이런 승벽비슷한 알곳은 총동마저 없지 않았다. 하염없이 내리는 소담한 눈송이, 가지가 휘여들게 흰눈을 다복이 뒤집어쓴 아름다리스나나무, 깎아지른 벼랑턱에 종유석처럼 드리운 얼음기둥들

그리고 눈속에 콧처럼 웅크린 기암괴석들에 한동안 나는 현혹되었다. 눈우에 발자국을 남기며 앞서간 녀자 또한 호기심을 끌었다. 분명 처녀일듯 싶은데 무슨 일로 이런 곳은 날씨에 길을 떠났을까? 신자국을 뚱뚱 남기면서 가법계 걸어간 흔적은 사라지고 술취한 사람이 지나간듯 눈이 어지럽게 파헤쳐졌다. 이따금 손으로 눈을 움켜먹은 자취도 있고 발을 헛잡고 모재비로 나뿜군 자리도 보인다. 마침내 그 녀자는 길가에서 강대나무가지를 꺾어 지팡이를 만들어짚기까지 했다. 보매 무척 지친듯싶었다.

나도 지쳤다. 사위를 막아선 엄엄한 봉우리, 수림이 무성한 칙칙한 골짜기, 그사이로 뻗어간 굽이 많은 길우에는 갈수록 눈이 깊이 쌓였다. 눈은 허벅다리를 쳤다. 지어 허리까지 빠지는곳도 있었다. 나는 세찬 물결을 헤치듯 두팔을 허우적거리면서 한걸음 또 한걸음 가까스로 다리를 뽐군하였다.

앞서간 발자국도, 그 발자국의 임자를 따라잡으려던 욕망도 그리고 눈에 묻힌 자연의 류다른 정서도 이제는 모두 시들해졌다.

힘겨운 길이었다. 나는 기진맥진하였다.

아무데건 풍덩 주저앉아 쉬고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걸었다. 아니 걷는다느니보다 거의나 기계적으로 발을 옮겨놓곤하였다.

이윽고 좁은 골짜기를 빠져나왔다.

어둠이 내려앉은 야산너머로 멀리 수평선이 희미하게 보였다. 앞이 환히 트이기는 했으나 바다가는 바람새가 무척 사나웠다. 성칼지게 불어치는 바다바람은 눈보라를 휘썩영게 말아올리며 불맞은 짐승처럼 갈개치고있었다. 나는 모재비걸음을 치면서 연기처럼 훑날리는 눈보라를 맞받아나갔다.

바른편 기슭을 눈여겨 살펴보니 외판집 한채가 어렴풋이 보였다. 지붕 한쪽 귀퉁이에 뽕조룩이 솟아오른 까뭇한 굴푹에서 연기가 꾸역꾸역 솟구쳐올라 눈보라속으로 말려들고있었다. 길손을 반기는듯 반짝이는 불빛, 흰수건을 흔들며 손저어 부르는듯한 저녁연기...

(됐어, 저 집에서 하루밤 쉬고가자!)

나는 말못할 기쁨으로 몸이 허궁 뜨는것 같았다. 그 한점의 불빛을 시야에서 놓칠세라 발길이 닿는대로 걸음을 옮겼다. 갈림길이 나타나고 그 길 아무름에 이정표가 박혀있었으나 나는 헛눈을 팔지 않았다. 마음도 발길도 오직 불빛이 비쳐오는 그 외판집으로만 쏠렸다.

드센 바람이 눈을 말끔히 털어버려 비로 쓸어낸듯 길은 편편했다. 나는 땅이 드러난 거칠은

길로 허둥허둥 걸음을 옮겨짚었다.

눈보라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바람에 불려와 쌓인 눈이 또다시 앞길을 막아나섰다. 메를 이룬 눈더미가 실히 한길은 쌓인것 같았다. 그우로 눈보라가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나는 멈춰섰다. 앞길을 막아서 그 산더미같은 눈우에는 발자국 하나 찾아볼수 없었다. 불빛에 움해서 어디선가 발자국을 놓쳤던것이였다. 앞서간 그 녀자는 이리로 오지 않았다는것이 명백했다.

하다면?... 나의 뇌리에는 무심히 지나온 갈림길이 떠올랐다. 나는 발길을 돌렸다.

갈림길에 서있는 이정표에는 외판집이 있는 그쪽 길은 하평이란고장으로 뻗어간 도로이고 해칠보로 가는 길은 왼쪽편임을 가리키고있었다.

《해칠보→4KM》

나는 망연히 해칠보로 뻗은 길을 바라보았다. 눈보라가 휩쓰는 길우에 눈익은 발자국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 녀자는 곧바로 해칠보쪽으로 걸어간것이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나는 눈앞이 뿌잇해졌다. 한쪽편에서는 길손을 반기는 유혹적인 불빛이 안식처로 어서 오라는듯 다정히 반짝이고 다른편에서는 아무리 지쳤기로 가던 길을 포기하면 되느냐는듯 앞서간 녀자의 발자국이 랑심을 세차게 두드리는것이였다.

X

길은 깎아지른 절벽을 옆에 끼고 바다기슭으로 뻗어있었다.

사위는 이미 캄캄해졌다. 어둠속에서 먹물처럼 시꺼먼 바다물이 몸부림치듯이 꿈틀거리고 사나운 파도가 외로운 길손을 덮칠듯이 길길이 솟구쳐올라 심술궂게 물보라를 끼얹곤하였다.

자연의 광란은 너무도 모질었다. 나는 온몸이 곳곳이 얼었다. 소가죽처럼 파닥파닥 굳어진 바지가랭이에는 흰 설기같은 진눈덩이들이 다닥다닥 달라붙고 머리칼과 눈썹과 털모자의 귀덮개털에도 성애가 하얗게 끼였다. 살눈썹이 얼어서 자꾸만 맞붙고 낮가죽은 감각이 마비된듯 얼얼해났다. 눈보라가 어찌나 기승을 부리는지 숨이 꺾꺾 막힌다.

길은 또다시 수림속으로 뻗어갔다. 눈보라는 거무칙칙한 나무들을 미친듯이 후려치고 바람은 나무정수리에서 양칼지게 울부짖고있었다. 숲속에 드리운 캄캄한 어둠, 제멋대로 갈개치는 눈바람 그리고 숨막히게 우거진 거뭇거뭇한 고목들이

산지사방에서 나를 위협하는듯했다. 나는 미신적인 공포감에 사로잡히고말았다.

(외판집을 만났을 때 왜 거기서 묶지 못했던가?) 이런 뉘우침이 없지 않았으나 되돌아서기에는 너무도 멀리 왔다. 나는 허탈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넋없이 걸음을 옮겨놓았다.

별안간 구척장승같은 시꺼먼 괴한이 나의 앞을 막아섰다. 나는 질겁해서 얼결에 뒤걸음쳤다. 등골이 서늘해서 어망결에 앞을 바라보니 그것은 길가에 서있는 아름드리 참나무였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쓴웃음을 지었다.

(원, 범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잃지 말했는데 이따위에 놀라다니...)

주변을 살펴보니 나무밑에 앞서 간 녀자의 발자국이 눈에 띄었다. 그제사 나는 한껏 겁을 먹고 주위를 딱히 살펴보지 않은채 발자국만 곧추 따라온탓으로 하마트면 나무에 이마를 찰을번했음을 알았다.

나는 길복판으로 나왔다. 그러나 불과 열발자국을 못가서 또다시 무춤 멈춰섰다. 웬 짐승이 눈을 마구 파헤치고 길을 가로 꿰질러간 흔적이 보였던것이다.

나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그리로 다가가 유심히 굽어보았다. 눈우에 어지러이 찍혀있는 소발굽같은 짐승의 발자국! 메돼지들이 무리를 지어 눈길을 헤치르고 숲속 어디론가 사라진것이였다. 나는 머리칼이 곤두섰다. 혹시 앞서 가던 녀자가 여기서 짐승때와 맞닥튼것이 아닐까? 금시 숲속에서 맹수가 뛰쳐나올것만 같아 가슴이 죄여들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널장뛰듯 활랑거리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하고 나는 눈여겨 길을 살펴보았다. 그 끔찍스런 메짐승의 스산한 발자국우에 굽높은 녀자의 구두자국 하나가 도장을 찍어놓은듯 뚜렷하게 드러나있었다. 분명 여기서 짐승때와 맞닥들어 저 참나무뒤에 몸을 숨기고있다가 길을 떠난것이 확실했다. 아니나다를까 숲사이로 희끄무레 뻗어간 눈길우에는 그 녀자의 발자국이 점점이 널려있었다.

나의 관심은 또다시 그 녀자한테 쏠리기 시작했다. 어떤 녀자일까? 책임성 높은 3대혁명소조원일까? 아니면 래일아침 교단에 서야 할 바다가마을의 녀선생일까?... 혹시 시간을 다투는 중환자를 찾아가는 녀의사이거나 잠시도 지체할수 없는 급한 전보를 전하기 위하여 눈길에 오른 내칠보체신분소의 우편통신원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풍설을 무릅쓰고 당돌하게 홀로 떠난것으로 보아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는 녀성임이 틀림없을 것이였다. 나의 머리는 그 미지의 녀성에 대한

가지가지 공상과 호기심으로 한가득 차있었다. 심장을 비틀던 공포와 살을 에이는듯하던 혹독한 추위, 온몸을 짓누르던 자연의 위압감은 어디론가 날아나고 마음도 걸음도 한결 가벼워진듯싶었다.

점점한 어둠속에 허영게 드러난 눈길은 나지막한 고개마루까지 수림속으로 곧게 뻗어있었다. 앞서간 발자국은 눈보라에 묻히여 도간도간 사라졌다가도 다시 나타나군했다.

무명필같은 허연 길, 저 멀리에 까뒸한 점이 얼른거리고있었다. 언뜻 보기에 그것은 눈우를 기여가는 짐승갈기도 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풀덤불갈기도 했다. 길은 어둠속에 그 형체를 좀처럼 가려 볼수 없었지만 나는 룡감적으로 그것이 내가 여직껏 따라온 녀자임을 알았다. 반가웠다. 애오라지 저 녀인을 따라 생소한 초행길, 눈보라사나운 험한 길을 헤쳐오지 않았던가!

나는 저도모르게 손나팔을 입에 대고 소리쳤다
《동무우-》

《우우-》 첩첩 들어앉은 메부리들이 그 소리를 메아리로 되받아넘기면서 찌렁찌렁 숲속으로 울려퍼졌다.

《동무우- 같이 감시다아-》

나는 거듭 큰소리로 웨쳤다. 그리고는 앞으로 내달리려 헛되이 허우적거리다가 그 자리에 쓰러지고말았다.

(원, 무슨 눈이 이래?) 나는 짜증 섞인 소리로 웅얼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궁둥이를 털었다. 그런데 눈우에서 얼른거리던 그림자가 가뭇없이 자취를 감췄다. 아마 고개너머로 사라진듯했다.

나는 종종걸음을 쳤다. 허겁지겁 등성이에 올라서니 얼마쯤 동안뜬곳에 검은 그림자가 앞서가고있었다.

《동무우!》

나는 손을 마구 흔들면서 더욱 잔걸음을 놓았다. 이제는 외투를 걸치고 목도리를 둘러감은 녀자의 자태가 룡박적으로 드러나보였다.

나는 반가운 소리를 지르면서 헐레벌떡 가까이로 다가갔다. 녀인은 겁나는듯 길옆으로 비실비실 뒤걸음치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그 순간 목에 둘러뒸던 목도리가 무릎으로 흘러내리면서 둥그렇게 틀어앉은 머리타래가 드러났다. 처녀가 아니라 나이지숙한 중년부인이였다.

나는 친절하게 말을 건넸다.

《겁내지 마십시오. 저도 해칠보쪽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녀인은 어깨를 와들와들 떨뿐 고개를 들념을 못하고있었다.

《허, 무척 놀란게로군요.··· 그만 진정하구 함께 가십시오.》

나는 되도록이면 그 녀자의 마음을 농쳐주려고 가볍게 웃어보이기까지 했다.

녀인은 흐느끼다싶이 몰래 한숨을 들이키며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말없이 목도리를 왼팔에 감아들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나는 은근한 눈길로 그 녀자의 모습을 뜯어보았다. 호리호리한 몸에 단정하게 걸친 외투차림이며 손에 든 자그마한 부인용가방 그리고 발에 신은 목 긴 구두며가 시골녀성답지 않은 인상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그 녀자는 험클어진 머리를 가볍게 다듬고 나서 창백한 얼굴을 목도리로 감쌌다. 놀란 참새처럼 가슴을 들먹이면서 숨을 쉴 때마다 허연 입김이 뺨을 스치며 흩어지고있었다.

나는 련민에 찬 눈길로 이윽히 녀인을 지켜보다가 《갑시다.》 하고 먼저 걸음을 옮겨놓았다. 녀인은 소리없이 나를 따라섰다.

눈은 여전히 무릎을 쳤다. 나는 생눈을 헤치며 앞서 걸었다. 누구 하나 지나간 흔적이 없는 길에 쌓인 눈흔길을 뚫고나가자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이 녀자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나는 못내 경의감을 품고 다시금 그 녀인을 돌아보았다.

《무척 혼났겠군요! 눈보라가 것처럼 심한 날씨에··· 중간에서 메돼지무리를 만났던게 아닙니까?》

《아아!···》 그 녀자는 그 소리에 몸서리치면서 손으로 두눈을 가리는 것이었다. 그 끔찍스런 순간을 회고하기가 소름이 끼치는 모양이었다.

《여하간 용하십니까. 전 내칠보로부터 아주머니의 발자국을 따라오느라고 영 진땀을 뿜았군요. 이런 고생은 난생처음이랍니다.》

나는 스틱스적 걸음을 옮기면서 감회깊은 어조로 말했다. 그 녀자는 이윽도록 잠자코 있더니 한참만에야 입을 열었다.

《손님은 어디서 오시는가요?》

《평양에서 탄광에 출장왔던길에 겹사 해칠보를 구경하려고 승용차로 길을 떠났었는데 허, 그만 길이 눈에 막혀서··· 듣자니 이교장 경치가 여간이 아니라면서요?》

《그렇긴 하지만··· 하필이면 이런 날에?》

《허허, 그러기말입니다. 아주머니의 발자국만 눈에 띄지 않았던들 전 아예 길을 생각일랑 할수도 없었지요. 근데 아주머니는 이교장에 사시는가요?》

《네, 이곳태생이랍니다.》

《실례이지만 여기서 무슨 일을 보십니까? 혹시 교편을 잡고계시지 않는가요?》

《교편이요? 호··· 아니랍니다.》

녀인은 전혀 당치 않은 소리라는듯 가볍게 웃

었다.

《그럼 병원에서?》

《병원은 또 무슨··· 아니예요. 전 그저 평범한 어로공이랍니다.》

《아아, 그래요?! 그런걸 전···》

나는 열적게 웃고말았다. 머리속에 그려보던 예상과 추측이 줄지에 무색하게 뒤집히다보니 멋적기 그지없었다.

《그래, 어디 갔다오시는길입니까?》

잠간 침묵끝에 내가 물었다.

《음에 불일이 있어서 갔다오는길이에요. 근데 간밤 군방송을 들으니 여기 해변가에 눈이 많이 내리겠단지 않아요. 암만해도 빠스가 다닐것 같지 않아 어뜩새벽에 떠났는데 그만···》

《저런?! 그러니 백여리길을 종일 걸었겠습니까 그러···》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 그를 돌아보았다. 녀인은 말없이 두눈을 깜빡이며 어딘가를 조용히 바라보고있었다. 어둠속에 빛나는 그윽한 눈동자에 웬 불빛이 어리어 불꽃처럼 아름답게 반짝이고있었다. 그 녀자는 미소를 머금고 부르짖는 것이었다.

《이젠 다 왔어요! 바다가마음이 보이누만요.》

×

높고낮은 산발들이 병풍처럼 둘러앉은 아늑한 골짜기에 마을이 오붓하게 자리잡고있었다. 집집에서 비쳐오는 무수한 불빛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활등처럼 휘여든 후미진 부두에 측수 높은 전등들이 그 주변을 대낮처럼 밝혀주고있어서 닳을 내린 기관선 몇척이 바위처럼 우뚝우뚝 솟아있었다.

바람도 멎고 눈보라도 잦아들었다. 어둠속에 아득히 펼쳐진 광막한 바다만이 여전히 소란스레 설레이고있었다.

마을이 가까와오면서 길은 사람들의 못발길에 적지 않게 티어서 한결 걷기가 험해졌다. 우리는 오솔길처럼 패여든 좁은 눈길을 따라 비탈진 산굽이를 돌아섰다. 불밝은 마을쪽 어디선가 손뽕금소리가 울리더니 처녀들의 구성진 노래소리가 파도소리를 짓누르며 랑랑히 들려왔다. 어른들의 호탕한 웃음소리, 짹자그르 떠드는 애들의 말소리··· 별무리가 그대로 내려앉은듯 불빛이 총총한 바다가마일은 활기있게 흥성됐다.

마을어구에서 별안간 전지불이 번쩍거렸다. 누군가 이쪽으로 마주오고있었다. 그림자는 둘이었다. 소년인지 처녀인지 딱히 알수 없는 체소한 사람을 데리고 전지불을 켜다켜다하면서 가까이 다가오던 키가 꺾두룩한 사나이가 50미터거리에서 거센 목소리로 이쪽을 향해 소리쳤다.

《거 누구요?》

《아이, 세포비서아바이가 어떻게?》

너인은 깜짝 놀라 부르짖더니 《세포비서동무!》하고 반갑게 소리치며 앞으로 내뛰었다.

《어마나! 해옥아지미 아니예요?》

그쪽에서 처녀의 목소리가 쉧쉧하게 울렸다. 뒤미처 성급한 남자의 목소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엉! 빠스도 다니지 않는데... 걸어오는게 아니요?》

눈부신 전지불이 그 녀자의 머리로부터 외투를 걸친 몸매를 더듬으며 발부리까지 쪽 내리훑더니 다시 얼굴에 날아와 멧었다. 순간 여태 어둑속에 가려있던 용모가 불빛속에 선명히 드러났다.

해풍에 거칠어진듯싶은 푸름한 살갓이며 숙부드럽게 생긴 얼굴의 표정은 무척 순박한 인상을 안겨주었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눈을 끄는것은 짙은 살눈썹밑에서 매력있게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 녀자는 그윽하게 빛나는 두눈을 깜박거리면서 방시례 웃었다.

《아유 읍에서 새벽에 떠났는데 어찌나 날씨가 사나운지... 그래 늦지나 않았어요?》

《늦으나새나 어찌자고 이런 날씨에 길을 떠난 단말이요? 도대체 정신이 있소 없소? 엉!》

《호호... 무사히 왔는데 뭘 그러세요?... 그건 그렇구 웬일이세요, 밤중에 어디로들 이렇게...》

《하, 이 정신바라! 정말 해옥동무, 저기 서있는 어른이 혹시 평양에서 오시는...》

그제사 그들은 먼발치에 홀로 서있는 나한테 고개를 돌렸다.

《그래요. 평양에서 오시는 기자동무래요... 서로 인사하세요.》

너인은 세포비서를 데리고 나한테로 다가와 어줍게 웃으며 너가래같은 손을 내밀었다.

《이거 손님을 세워놓구 안됐수다. 실은 방금 탄광당비서동무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기자 한분이 내칠보로부터 걸어서 떠났다는데 도착했느냐구요... 종일 막장에 들어가있다가 조금전에 운전사를 통하여 이야기를 들었나보는데. 그래서 부라부라 마중나왔는데...》

《아아, 그렇습니까?》

나는 저으기 감동되었다.

《이거 녀려를 끼쳐 미안합니다.》

《원 별말씀... 어쨌든 반갑수다. 취재도 하실겸 해철보구경을 오셨는지요? 래일 날씨를 봐서 배를 타고 한바퀴 돌아보시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무지개바위니 술섭이니 돌몬이니 하는 이 일대의 명승지에 대하여 한바탕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소탈하면서도 구변좋은 이야기는 끝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자기가 살며 일하는고장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진 사람만이 낯선 손님에게 이처럼 허물없이 그리고 열정을 담아 이야기할수 있는것이였다.

우리의 등뒤에서는 그 너인과 처녀가 무척 정답게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세포비서

의 이야기에 도취되어 한동안 그들을 잊고있었던 나는 은연중 두 녀자가 주고받는 말소리에 귀가 솔깃해졌다.

《야아, 그러니 결국 나때문에 이런 눈길을 헤쳐온 셈이군요? 그렇지요 네?...》

《말하자면 그렇다구두 할수 있지. 오늘이 너의 일생에 두번다시 없을 그런 뜻깊은 날이 아니냐? 계속이, 안그래?》

《그렇긴 하지만...》

모름지기 그들사이에는 이 밤 남다른 인연으로 얹혀진 류달리 뜻깊은 사연이 있는듯했다. 그것이 못내 궁금했으나 나는 그 내막을 알길이 없었다. 우리는 어느덧 함속에 이르렀던것이다.

《그럼 여기서 꼭 쉬십시오. 밤도 퍼그나 깊었는데... 우린 이제부터 모임이 있답니다.》

세포비서는 나를 함속에 안내하고 이런 말을 남기면서 사라졌다.

×

이튿날 나는 늦게야 잠을 잤다.

처음 한동안 나는 내가 어디에 와있는지 얼머름 했다. 려독에 몰려 세상모르게 굳잠이 들었던 것이였다. 나는 잠에 취한 눈을 뚜부럭거리면서 낯선 방안을 더듬어보았다. 산뜻이 도배를 한 무늬 고운 벽이며 알른알른 윤기도는 거울같은 장판이며 덮고있는 침구며 방안의 가구들이 더없이 정갈하고 깨끗하였다. 어느덧 해가 퍼그나 솟은듯 창유리로 쓸어드는 눈부신 해발이 방구석에 내려앉아 해죽해죽 웃어댔다.

뜨뜻한 온돌방에서 하루밤 폭 쉬고났으나 몸은 여전히 찌뿌둥하였다.

추위에 얼었던 낮가죽이 감각이 마비된듯 뻣뻣하게 굳어지고 먼지끼든 눈시울이 텅지그레하였다. 입술에는 팔알같은 물집까지 부풀어 한쪽 입귀가 두툼히 부었다.

나는 천근처럼 무거운 몸을 궁싹거리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무더기로 퍼붓던 함박눈, 절벽을 들부시던 사나운 파도, 제멋대로 갈개치던 기승스런 눈보라... 어제 하루 걸어온 힘겨운 려행길이 눈앞에 선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서물서물하는것은 눈길우에 찍혀있던 발자국이였었다. 그 발자국을 따라 험한 눈길을 헤쳐오던 일이며 마을어구에서 간신히 녀자를 따라잡던 순간들이 유난히 뜻깊게 돌이켜지는것이였다. (그의 이름이 해옥이랬지...) 나는 그 녀자의 자태를 그려보면서 홀로 빙그레 미소지었다. 눈앞에 어려오는 그 녀자의 모습은 너울속에 가려진듯 흐릿했으나 차츰 한쪽의 그림으로 옮길수 있으리만큼 선명한 화폭으로 안겨오는것이였다. (아마 그도 지금 자리에 누워 움썅달썅 못하고있을테지...) 나는 깍지킨 두손을 뒤통수에 고이고 몸을 궁싹거렸다. 끊어질듯 허리가 켕기고 어깨와 다리가 징징 쑤졌다. 내가 이럴진대 연약한

그 녀자가 더 말해서 무엇하랴...

이런 생각을 번저가느라니 불현듯 날씨가 좋으면 오늘아침 배를 타고 해칠보의 경치를 돌아보기로 한 세포비서와의 약속이 머리를 쳤다.

나는 이불을 차고 일어났다. 주섬주섬 옷을 껴입고 아침밥을 몇술 뜬 다음 부랴부랴 합숙을 나섰다.

유난히 화창한 아침이었다.

해빛이 드리운 부두가마울은 어디라없이 눈에 묻혀 눈부신 은세계를 이루고있었다. 어느새 팔목팔목 눈을 밀어내서 포구로 가는 길은 폭넓고 환했다.

해는 이미 저 멀리 아득한 수평선위에 퍼그나 높이 솟아있었다. 썩-썩- 처절씩 철썩! 흰갈기를 날리며 밀려왔다 밀려가는 장엄한 파도소리. 람색비단같은 푸른 물결위에 뛰노는 금빛해발, 춤추듯이 날아에는 갈매기들... 눈앞에 안겨오는 모든것이 춤추며 노래하며 미소하며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있었다.

포구에 이르자 방수포를 걸친 꺾충한 어로공이 쪽배에 그물을 처실다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배에서 뛰어내렸다.

《나오셨군요. 어떻습니까? 피곤이 좀 풀렸습니까?》

허물없이 인사를 건네는 품이 간밤에 나왔던 세포비서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반갑게 손을 잡으면서 어쭙게 대답했다.

《네...》

《허, 얼굴이 부석부석하군요. 저런, 입술에 물집까지 생기구요.》

그는 나의 얼굴을 뜯어보면서 병실웃었다. 유난히 정기도는 부드러운 눈매며 정력이 넘쳐나는 장대한 체구며 언뜻 보기에도 무척 소박하고 활달한 인상을 안겨주는 선살안팎의 사나이였다.

나는 저도모르는사이에 입술에 손을 가져갔다. 비서는 소탈하게 말을 이었다.

《하긴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험한 눈길을 해치고 왔으니... 그런데 어떻거잡니까? 바다로 나가보시잡니까?》

《암, 나가다마다요.》

우리는 함께 배에 올랐다. 비릿한 물고기비린내가 지독하게 코를 찔렀다. 세포비서는 숨쉴이게 배머리를 돌려놓고 스적스적 노를 젓기 시작했다. 잔잔한 파도가 배전을 치면서 쉬임없이 처절씩거리고 굼니는 물결이 숨쉬듯 서서히 높아졌다가도 물마루를 이루면서 꺼져내리군했다. 쪽빛으로 물든 망망한 바다, 물속에 뿌리내린 기암절벽들 그리고 바다물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룬 눈덮인 물의 은세계, 그것은 정녕 그 어떤 그림이나 예술사진으로써도 옮길수 없으리만큼 황홀하였다. 나는 바다에 나온 첫순간부터 수려한 자연

의 풍치에 매혹되고말았다.

(만일 내가 어제 날씨가 사납고 길이 험하다고 해서 되돌아섰더라면 어찌 이 행복한 순간을 체험할수 있었으랴!)

이런 생각이 새삼스러워지면서 주저앉고싶도록 힘겨울 때마다 나약한 마음을 채찍질하면서 걸음걸음 은근한 힘을 주고 앞으로 줄곧 이끌어주던 그 녀자의 발자국이 눈앞에 어려왔다.

(과연 그 녀자는 어떤 녀자이며 계속이란 처녀와 무슨 연고가 있기에 불원천리 눈길을 달려왔을까?...) 은연중 생각은 그 녀자에게로 옮겨가고 말았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세포비서동무... 간밤에 저와 함께 온 녀동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옥이란...》

《네, 네... 왜 그 동무를 만나보시렵니까?》

세포비서는 활기를 띠고 물었다.

《글쎄요. 어쩐지 그 동무의 인상이 지워지지 않는군요.》

《그럴테지요. 한번 만나보십시오. 저 바위굽이를 돌아서면 그 동무를 볼수 있을겁니다. 지금 무지개바위앞 도래굽이에서 굴따기를 하고있을테니깐요.》

세포비서는 심상히 대답했다. 나는 눈이 동시래졌다.

《아니 그럼 그 동무가 바다에 나왔단말입니까?》

《그러문요. 벌써 해뜨기전에 배를 타고 나갔지요. 하루 꼭 휴식하라고 했지만 어디 말을 들어줘야지요.》

《그래요?! 저 여간한 동무가 아니군요. 난 그래도 마음속으로 혹시 몸살이나 하지 않나 하고 은근히 걱정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어찌면...》

《허허... 그 동무 위낙 그런 녀자랍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바다에 진출하여 단발머리때부터 배를 타는데 그때부터 스무해가까이 배우에서 뜨는 해를 맞군한답니다. 이젠 아이가 셋이나 달린 가정부인인데두말입니다.》

세포비서는 천천히 노를 저으면서 말을 이었다.

《처녀들로 무어진 그 작업반에서 그 동무자신이 입당을 했구 또 술한 당원을 키워내기도 했지요. 그 동무의 보증으로 간밤에 또 한동무가 당원의 영예를 지녔수다. 왜 간밤에 저와 함께 나왔던 계속이란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군요.》

나는 부지중 탄성을 지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간밤 두 녀자가 그토록 정답게 기쁨과 감격을 나누던것이 까닭없는 일이 아니었던것이다.

《그러니 해옥동무가 그 모진 눈을 무릅쓰고 백리길을 걸어온것이 바로 그때문이었군요?》

나는 저으기 감동에 젖어 다심한 어조로 말했다.

다.

《말하자면 그렇다고 할수 있지요. 그 동문 읍에 있는 남동생 결혼식때문에 몇해만에 휴가를 받고 친정에 갔더란말입니다. 어제밤 당회의가 있기로 예정되어있기는 했습니다만 생각해보십시오. 그 동무 한사람이 빠진대서 회의가 구성되지 않을리 없고 날씨가 그런것만큼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문 녀자의 몸으로 그 사나운 풍설을 무릅쓰고 백리길을 홀로 걸어왔단말입니다. 워낙 평소에도 조직관념이 높은 동무이긴 하지만 이게 어디 조련한 일입니까? 그 동무의 보증으로 당원의 영예를 지닌 계속동무가 간밤 모임에서 자기는 해옥동무를 통하여 당원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새롭게 깨달았노라고 눈물을 머금고 말했는데 참으로 당원의 량심과 의리를 두고 많은것을 생각해 하는 성실한 동무이지요.》

세포비서는 저으기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하다가 별안간 해변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움쭉 일어섰다.

《허허, 그 동무들이 바로 저기 있군요. 보십시오! 저쪽에 떠있는 배에 해옥동무와 계속이가 함께 타고있지 않습니까?》

《?!》

나는 그가 가리키는쪽으로 눈길을 옮겼다. 우리가 탄 배는 크고작은 바위들에 둘러싸인 후미진 도래굽이를 가까이하고 흘러가는데 도래굽이 저쪽편에 무지개모양으로 휘우듬히 휘여든 절묘한 바위를 배경으로 전마선 몇척이 뚝뚝 떠있었다. 배우에는 색고운 다후다지솜옷을 입은 수많은 녀자들이 두셋씩 짝을 못하고 굴따기에 여념이 없었다. 푸르른 바다위에 널려있는 알쏭달쏭한 그 모습은 말그대로 물결위에 떨기떨기 피여난 청신하고 아름다운 꽃파도 같았다.

나는 황홀한 마음으로 그들속에서 해옥이란 녀인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좀처럼 누가누군지 알아 보기 어려웠다.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 바위변두리에 있는 배말입니다. 가만 제가 소리쳐보지요.》

세포비서는 입가에 손바닥을 오그려붙이고 그 쪽을 향하여 목청 높이 웨쳤다.

《해옥동무우!》

그 소리에 굴따던 녀자들이 일시에 이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한 처녀가 배에서 움쭉 일어나 쟁쟁한 목소리로 맞받아 소리쳤다.

《뭇라구요요?》

《해옥동무를 찾는다아-》

《뭇 해옥아지미를요?》

《오냐오냐 해옥동무말이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서서 짹짹그 떠들기 시작했다.

《아지미이!》

《해옥아지미, 세포비서동무가 찾아요.》

《뭇 세포비서동무가?!... 세포비서동무, 왜 그러세요오!》

그들속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녀인이 있었다. 해옥이란 녀인의 음성이었다. 그러나 나는 종시 그 녀자를 가려보지 못했다. 옷차림이 비슷한 녀자들이 너나없이 일어서서 꽃발 설레이듯 술렁대는데다가 그 귀익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쩐지 가슴이 몽클해지면서 눈앞이 뿌옇해졌기때문이었다. 그런줄도 모르고 세포비서는 나를 바라보며 꺾꺾웃었다.

《허허, 보셨지요? 저 동무가 바로 해옥동무랍니다.》

나는 대답대신 눈을 슴뻑이면서 어쭙게 미소했다. 안개낀듯 흐려진 눈앞에 눈우에 새겨졌던 오목한 발자국이 삼삼히 어리여왔다. 그 인상깊은 발자국은 춤추듯이 설레이는 바다물우에도, 가없이 맑고 푸른 저 하늘 아득한 공간에도 그리고 눈에 묻힌 산과 바위, 바다가마을에도, 눈길이 미치는 그 어디라 할것 없이 환영처럼 떠오르는 것이었다. 지뭇게 서물대는 그 환영속에서 전지불에 드러났던 그 녀자의 모습이, 세련되고 완성된 조각상마냥 고상하고 지성적인 우아한 자태가 우련히 나타나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연의 매력은 계절의 변화와 변덕스런 날씨와 때로는 그것을 감상하는 각자의 기분에 따라 그 명암이 달라질수도 있다. 하지만 고결한 인간의 숭고한 정신세계, 거기서 받아 안은 강렬한 인상은 언제나 마음속에 길이 살아있어 그네들의 생활의 갈피갈피마다에서 값 높은 지향으로 넋을 불태우고 참된 삶으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길동무로 간직되기마련이다. 내가 알게 된 녀성당원, 바다가마을의 그 녀자야말로 바로 그런 동무가 아닐가...

나는 이런 상념에 잠겨 한동안 자기를 잊다싶이 하였다.

배는 무지개바위를 옆에 끼고 이고장사람들이 흔히 섬의 모양이 포아리같다 해서 《파바리섬》이라고 부른다는 술섬을 향하여 흘러가고있었다.

시조

언제건설자의 노래

김철

기념비

사랑하는 후세의 벗들이여!
먼 후날 이 강반에
우리를 위해 따로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우리자신이 그대들에게
위훈의 기념비를 물려주나니
대하를 막아 산악으로 일떠선
언제의 벽에서 우리 이름을 읽으라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붓으로 쓰지 않았노라
우리는 착암기의 정날로
천연암반에 그 이름 새겼노라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찬란한 빛갈을 입히지 않았나니
그 이름은
콩크리트혼합물속에서 끓어오르고
불같은 땀에 젖어 번쩍이여라

물소리 도도한 강줄기마다에
커다란 등불로 밝혀질 이름
우렁찬 발동기의 동음에 실려
먼 후세에도 높이 울릴 그 이름

청춘의 사랑도 가정의 행복도
모든것을
조국의 번영 위해 아낌없이 바쳐싸운
우리 숨결이 여기 깃들었나니

받으라 후대들이여!
그대들 아버지들이 이룩한
고귀한 창조물을
시대의 유산으로 기념비로 받아다오

하여 오늘에 티가 없던 우리 이름을
래일에 또한 흠이 없도록
사시절 맑은 물로 씻고 씻으며
무궁한 태양아래 빛나게 해다오

돌격의 기발

장화를 뺏으면 얼음물이 쏟아지고
고무호스를 꺾으면 뿌적뿌적 부러지는
이 흑한속에서도 우리는
장엄한 한순간을 그려보나니

허연 눈보라만 소리지르며 나오는
저 으스스한 골안에
이제 푸른 하늘을 이고 호수가 태어날 때
동무여 우리 무슨 말로 오늘을 회상하라

서로의 손에서 진동기를 뺏어잡으며
우리는 노래부른다
가렬한 전투의

저기 저 언덕...
불이 열고 입술마저 부서질가봐
이 노래를 부르는게 아니다

단숨에 점령한 타입구역에서
새 구역으로 불길같이 번져가는
돌격대의 기발-
그 붉은 기폭에서
온몸을 불사르는 하나의 이름이
순간도 쏘지 말라 우리를 부르거니

리수복!

우리 일찌기 생시의 그를 본 일이 없고
우리들속엔 그의 고향친구도 학창의 벗도
행군서렬에 같이 서고 화선에 같이 엮드린
한부대의 전우도 없건만

1211고지 상상봉에서
곧바로 건설장에 달려온 전사
선혈이 얼룩지고 총알자욱 력력한
전후복차림 그대로인 그가
기발을 높이 들고 서있지 않는가!

아, 적의 화구앞에 가슴 펴고 일어설 때
그의 눈에 비졌던것 불과 연기뿐이었던가
그가 불타는 고지에 청춘의 피로 쓴

《조국의 미래》란 엄숙한 시구에는
오늘의 이 땅, 저 하늘도 비끼지 않았던가

보아라! 또다시 선창을 떼며
돌격으로 돌격으로 수복이가 부르거니
이제 새 바다가 태어날 장엄한 그 시각에
우리 오늘을 돌이켜볼 말을 쉬이 찾지 못한대도
다만 한마디 이것만은 말하자-

수복아! 우리의 영원한 동갑아!
가자, 우리함께 더 큰 바다로
불뿔는 화구에 서슴없이 내대였던
그 가슴의 넓이에 마땅한 바다
그 가슴의 깊이에 어울리는 바다로

강반의 새봄 (1)

하루 몇차례 지동치는 남포소리에
빙판도 부르르 몸을 떨더니
그우에 후더운 땀이 쏟아져선가
휘틀장같은 얼음장이 둥 둥

착암기를 암반에 박아놓은채
강을 꺼안고 젊은이는 엮드렸다
타는듯한 입술을 물에 대이고
강을 통채로 들이킬듯...

삼동 강추위 눈보라속에서도
부글부글 끓어온 청춘의 혈기여

강심에 비낀 등근 얼굴이
흰이를 보이며 웃고있구나

어허 기다렸던 봄
신문에 크게 난 그 모습 그대로
두손을 척 허리에 짚고
젊은이는 이윽도록 강을 굽어보는데

강은 아직도
제 갈길 막아서려는 이 거인이
지난해엔 자맥질만 즐기던
애송이였음을 알아보지 못하누나

강반의 새봄 (2)

진초록 용단이 바람에 나뭇기둥
강물은 산굽이를 에돌아갔네
합숙에 사는 타임공총각이
며칠후면 등교수업 떠난다니
책보따리 풀어놓고 저기 앉았네

물방치소리 죽여가며 두드리는
처녀의 솟된 마음 옛보질랑 말아요
압축기소리 쿵쿵 높아오는 교대전 한때
바위우에 널어놓은 와이샤쓰가
어쩌면 저리도 눈부시게 흰가요

건설자의 길

랑림을 뒤에 두고 떠나왔듯이
서두수를 리별하고 여기 왔듯이
우리 얼마후이면
정든 이고장도 떠나야 하리

그때면 여기
산간의 거리는 호젓해지고
어느 먼 흐름 급한 기슭에서
우리는 이사집을 풀게 되리라

거기 이끼 덮인 벼랑과 바위크렁에
길들지 않은 강이 물보라를 뿌리는곳
거기 으스스한 골짜기와 그늘질은 숲속에
한여름까지 청얼음이 조으는곳

사태지는 비탈과 불모의 산정
안개와 비구름과 바람만이 노니는
거기 첫삽을 박아 생활의 씨를 심고
거기 첫길을 내어 빛을 끌어들이고

거기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
기발 한쪽을 높이높이 달면
그 기발밑에 대렬을 지어서서
대자연 향해 선포하리라
《자 이제부턴 우리가 주인이다!》

아 질풍같은 건설의 나날이 흘러
마지막 휘틀장을 타고왔을 때이면
문득 하늘가에 메아리쳐오는
래일의 목소리 래일의 부름이여

그 부름소리를 님의 소린듯
안해들은 미리부터 떠날 차비 서두르고
나자부터 그 소리를 새겨들으며
아이들도 지도우에 푸른 줄을 찾거니

하루에도 몇번 가슴에 차오르는
이 땅의 강줄기는 얼마나 되며
그 강에 흐르는 물 얼마이더냐
우리는 물의 그 방울방울을
펄펄 끓는 피방울로 살아 뛰게 하리라

오 구름에 닿은 언제꼭대기에서
죽지를 다듬는 수리개들아
또다시 먼고장이 우리를 부르거니
에서 깊어진 정은 예 두고 가자
언제건설자 우리의 길은
조국의 수천 강하 물줄기마다에
자기 전생애를 나눠주는 길이여라

가사

당을 따라 총진군 앞으로

대고조의 나팔소리 강산에 울리고
충성의 세찬 불길 가슴에 타오른다
모두다 희망찬 승리의 언덕을 향하여
나가자 영광의 당을 따라 총진군 앞으로

간석지제방따라 새기적 떨치고
발전소언제우에 불바람 몰아친다

온 나라 어디나 하나로 발걸음 맞추어
나가자 영광의 당을 따라 총진군 앞으로

3대혁명 기발아래 나래쳐나가며
력사의 새시대를 이 땅에 빛내여간다
언제나 한마음 불타는 충성을 다바쳐
나가자 영광의 당을 따라 총진군 앞으로

박필모

보담

최봉무

…고동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며 넓은 건설장을 지나 멀리 해암산에 메아리쳤다.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내렸다. 아슬하니 솟아오르는 첩탑우의 회색트라스에 금빛 은빛… 온갖 색갈이 부딪치며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어리광을 부렸다.

정오이다.

용접불꽃이 하나 둘 꺼졌다. 그러나 단 하나, 첩탑우의 해불처럼 하나만은 상기도 벅찬 흥분을 녹찾히지 못하는듯 땅바닥에 꽃보라를 쏟았다.

밑에서 누군가가 찾는 소리가 들렸다. 너인의 목소리였다.

맨 꼭대기 트라스를 가로타고앉아 불꽃을 일으켜가던 청년이 용접면을 이마우로 선뜻 올려밀었다.

모든것이 감실감실하게 타는 땡벌에서도 언제나 용접면속에 있어 더욱더 환해보이는 얼굴이 드러났다. 조립면공작업반 용접공 철남이다.

밑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철남의 검고 역설역실한 눈에 웃음이 피어났다. 그는 웃을 때면 눈부터 먼저 웃었다. 그래서 남달리 처녀들의 이목을 끄는지 몰랐다. 분명 건설장의 《수리개》로 속보판을 독차지하는 그것뿐이 아닌것 같았다.

역시 그는 오랜 용접공들이 하는 본을 따서 팔뚝으로 이마에 송골송골 내똥은 구슬땀을 흘렸다.

한끝은 등에 매고 한끝은 트라스에 맨 안전바가 후리줄처럼 허공에 길게 늘어져 흔들거렸다. 안전바는 용맹성의 상징이기도 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철남은 안전바를 매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다고 반장아바이의 눈을 속여가며 맨몸으로 제비같이 날아다니다가 영양제식당 똥똥보아주머니한테 걸려 혼찌검이 났다. 어쩌나 감동적으로 안전바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줬던지 그후부터는 안전바를 매는것을 철칙으로 생각했다. 그 모범으로 해서 철남은 더 소문이 났다.

《철남이, 내려오라구.》

네귀에 말뚝을 박고 긴 공동식탁과 나무의자를 들여놓은 야외식당에 파란 비닐지붕을 씌우고있던 반장아바이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재촉했다.

《빨리 내려오지 못할가. 오늘은 어림도 없어. 내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똑 버티고 서있겠다. 어서!》

흰 위생복을 입은 똥똥보아주머니가 올려다보며 손을 뻗혀 내저었다. 어제는 국통과 밥판을 바줄에 달아 올려보낸 아주머니였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다.

아주머니는 좀전에 각 직장으로 나가는 젊은 취사원들에게 국이 식어지는것은 취사원의 정성이 식는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독촉이 불갈았다.

건설장에서 위생복이 작업복으로 되는 사람은 단 두명이였다. 그 하나는 취사원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였다. 그러나 로동자들은 똥똥보아주머니만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의 말에는 누구든 고분고분 순응했다.

아주머니의 옆에서 몇몇이 떠들썩하며 노란 지게차에 싣고온 김이 문문 나는 늪국통을 부리우고있었다. 단고기국냄새가 물씬 풍겨올라오는것 같았다. 그 순간 철남은 똥똥보아주머니의 각별한 정이 느껴졌다.

사실이 그랬었다. 아주머니는 철남이를 자기 딸아들과 나이가 동갑이라고 남달리 사랑했고 철남이도 그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철남이뿐이 아니였다. 그의 혁신을 두고 온 건설장이 그렇게 불렀다.

강철기둥들이 숲처럼 일어서고 곳곳에서 혁신이 퍼덕이자 제일먼저 기발을 들고 고기냄새가 풍기는 좁은 식당문을 펼쳐나온 사람이 바로 그였다.

뒤집을 지고 서있는 위풍이 마치 건설장의 《지배인》 같았다. 자기도 제일 큰몫을 맡은 지배인 못지않게 한몫 단단히 한다는 배심이였다.

아주머니는 1분도 지체없이 이 시간에 나타나서 식사규률을 어기는 용접공들을 엄격히 불러내리여 부드럽게 타일러주었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어머니, 자 보라요. 요거, 요것만 더-》

철남은 새까만 양피장갑을 벗어 왼손에 겹쳐쥐고 오른 손가락 셋을 펴보였다. 3분만 더 기다리라는 신호였다.

아주머니는 철남이가 어떤 몸동작을 해도 그의 생각을 척척 알아냈다. 철남은 그것이 더없이 좋았다. 낱아기른 어머니는 아들의 속을 그렇게 알기때문이었다.

용접면을 다시 꼭 내려쓴 철남은 또 불꽃을 날렸다. 그는 지금 오전 계획량을 끝내고 한몫 더

하는중이었다. 이제 한 두어뿔가량 정확히 말해서 40센치미터만 더 때면 오전중 한사람 계획량이었다.

철남은 이것이 희천에 계시는 어머니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늘 이렇게 일했다.

철남이가 이 ㄷ기계종합공장건설에 지원해오던 날 저녁 집에서 있는 일이었다.

오랜 세월 선반공으로 일해오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어머니가 철남이를 앞에 불러앉히었다. 그리고는 새까맣고 윤기가 알른알른한 양피장갑을 앞에 내놓고 조용히 말했다.

《철남아, 그곳 건설장은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으로 큰 발전설비와 대상설비를 만드는 공장건설장이라고 하더라. 그런 뜻깊은곳에 네가 건설자로 가게 되니 이 어미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없다. 거기서는 두세몫씩 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지금 나라에서 얼마나 큰 배려를 받고 사느냐.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시각부터 나는 의복 한벌 해입히지 않고 학비 한푼 들이지 않고 키웠다. 다 나라에서 키워주었지. 그뿐이 아니다. 지금은 네가 세대주노릇을 하지만 이 어미를 위해 마음쓰는 일이 뭐냐?

나라에서 공로자라고 다 입혀주고 먹여주니 참... 전체 인민이 모두 이런 혜택으로 살고있다. 이것이 우리 생활이다. 우리가 그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나라에 바쳤다면 그저 마음뿐이었구나!...》

철남이는 양피장갑을 낄 때마다 머리뿔 소박한 어머니의 얼굴을 그려보곤하였다. 그러면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자기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빛앞에서 그는 항상 마음을 다 잡고 일손에 번개를 일으켰다.

그는 용접면 검은 유리속으로 초록빛쇠물이 뱅글뱅글 돌아가며 녹아붙는 모습을 재미나게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오늘저녁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야지. 한번 꼭 와보시라구....)

이때였다.

뒤에서 쾅쾅한 목소리가 또 날아올라왔다. 처녀의 목소리였다. 한뿔가량 때붙이면 끝날무렵이었다.

철남은 용접면을 머리위로 제끼고 아래를 굽어보았다. 아래우에 곤색작업복을 간편하게 입고 머리에 빨간 나이론수건을 쓴 통신원처녀였다. 바로 숙보관의 이름만 보아도 가슴이 울렁거린다는 그 처녀였다.

선이 진하게 돌아간 동그란 얼굴이 한고패 싸우고난 사람처럼 빨강게 상기되였다.

《철남동무, 좀 내려오라요. 말 좀 하자요.》

무슨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어느때같으면 질은 룡말을 걸어 그를 못살게 굴었을 용접공들이 그의 낯색을 보고 가만들 있었다.

《아니, 동무는 왜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면서 성화를 메기오?!》

철남이는 시끄럽다는듯 진속은 그렇지 않았지만 일부러 무뚝뚝하게 한마디 내뱉었다.

《글쎄 내려오라요!》

억양이 곱지 않았다. 점차 낯색이 새파래지는 것을 보아 일이 있어도 큰 일이 생긴것 같았다.

《.....》

그러나 철남은 그저 사람 좋게 싱긋 웃어보였다. 처녀는 그 웃음에서 무엇인가 더 모욕적인것을 느꼈던지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전보가 왔어요. 전보가요...》

비오는 날 용접아스선에 닿은듯 이상한 특감이 철남의 전신을 짜릿하게 자극했다.

《무슨 전보요?》

웃음밖에 모르던 철남의 눈이 둥그래졌다. 혹시 늙으신 어머니한테서 무슨 소식이 온게 아닐가 하는 이상한 예감이 피뚝 스쳤다. 늙은이들의 병이란 눈섭끝에서 떨어질수도 있다는 속담이 있기때문이었다.

《자, 빨리 내려오란데. 오늘은 국그릇이 <비행기>를 못탄다는걸 알아라. 어서!-》

이번에는 식탁우에 놓았던 메가폰을 들고 뚱뚱 보아주머니가 나무람투로 소리쳤다. 말뒤끝에 혀를 끌끌 차는 소리까지 들렸다.

《어서 내려오라구.》

야외식당에 비닐지붕을 다 씌운 반장아바이가 여전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덧붙였다.

기초볼트처럼 똑바로 서있는 처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철남은 갑자기 용접불꽃을 병긋 일으켰다. 푸른빛 거센 섬광이 얼굴정면으로 비쳐갔다. 그래도 통신원처녀는 눈섭 한오리 까닥하지 않았다.

철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용접봉끝에 익은 꼬아리갈이 달린 쇠물방울에 담배를 붙여물었다.

《가만... 통신원동무, 그럴거 있소. 거기서 읽소. 읽으라구요!》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자기로서도 기발했던지 무릎을 탁 쳤다. 하나 처녀는 얼굴이 새파랗다못해 하얘졌다. 입술을 옥물고 원망스레 쏘아보는 그의 눈에 물기가 가랑가랑 차올랐다. 결별을 앞둔 그런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는 더 서슴지 않고 마지막 결심을 내린듯 전

보장을 펼쳐들고 울먹울먹 했다.

《뭘 꾸물거리오. 빨리 읽소.》

《좋아요. 읽겠어요.》

《?!》

다음순간 철남이도 가슴을 찢릿하는 감촉이 느껴져 더 재촉하지 못했다.

《읽겠어요. <10월-6일-생남>.》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렇게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당황해서 통신원처녀를 바라보았다. 모두들 제문제들처럼 심각해졌다. 처녀에게 동정어린 눈길을 보내는 용접공들도 몇이 있었다.

수심?!- 침묵!!...

철남이도 웃지 않았다. 철근이 숲을 이룬 해암산쪽 한끝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밝아지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며 호방하게 웃었다.

《처녀동무, 경사가 났소. 우리 나라에 또 한식구가 더 붙었소!》

그말에 똥똥보아주머니는 제사 오히려 처녀 보기가 바빠났던지 뒤따라 소리쳤다.

《통신원체네, 참, 전보가 잘못 온것 같구만. 이 넓은 건설장에 철남이란 이름이 하나뿐이겠소. 우리 철남인 총각이우다!》

그러자 막혔던 물목이 열린듯 환성이 터졌다. 기름물은 용접공들의 모자가 철남이를 향하여 공중에 날아올랐다. 철남이의 머리우에서 《속도전》기발이 세차게 펄럭이었다.

정말 건설장에 경사가 났다고 똥똥보아주머니가 허리를 꼬부리고 국자로 늪국통을 마구 두드렸다. 곁에서 반장아바이는 웃다못해 손등으로 축축해진 눈곱만 문다지였다. 웃음소리에 온 건설장이 들썩했다.

잠시... 멍하니 서있는 자기를 발견한 통신원처녀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와뜰 놀라는 것이었다.

《어마나?!》

처녀는 얼굴을 싸쥐었다. 자기가 왜 이렇게 서있느냐는 듯이었다. 그리고는 날썩한 몸을 뒹굴었다. 바람에 나뭇기는 새빨간 머리수건이 《수리개》의 이름이 크게 나뭇은 속보관뒤쪽으로 얼핏 보일뿐이었다. 열정의 불길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똥똥보아주머니의 마음은 어쩔지 처녀시절의 젊음이 그들먹이 차올랐다. 기쁘고 힘만 솟아나는 듯싶었다...

철남은 고개를 들고 눈을 가느스름이 떴다. 정

오의 해빛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렸다. 그는 조국의 수도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해암산쪽 멀리를 바라보았다. 분수가 무지개를 그리는 화려한 산원이 그림처럼 떠올랐다. 어린시절 동화속에서 보던 웃음의 집이었다. 행복의 탑이었다.

저것을 우리 조국이,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생을 쉬시지 못하시고 마련해주시지 않았던가. 해와 달이 다하도록 대를 이어가며 갱아드려야 할 하늘같은 은덕이다!

철남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 웅장화려한 산원의 폭신한 요람속에 묻혀 웃을 아기의 모습을 그려보며 생각에 잠기었다.

(애야, 귀여운 복동아, 너는 태어나자부터 조국의 크나큰 은혜를 받아안누나. 내 너의 첫뽕을 이 트라스에 새겨주마!)

철남의 검고 억실억실한 눈가에 뜨거운 이슬이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모두 철남이를 울려다볼뿐 말이 없었다.

얼마후 철남은 똥똥보아주머니를 소리쳐불렀다. 아주머니는 한껏 고개를 젖혔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속도전》기발이 뚝뚝처럼 펄럭이었다.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만요!》

철남은 양피장갑을 벗어 무릎우에 올려놓고 손가락 열을 펴보였다. 10분이면 또 한사람 뭍이었다.

조국의 품에 태어난 한명의 식솔에 대한 로동계급의 보답이다.

《...! !...》

《참, 너석두!... 또 국그릇은 비행길 태워야겠구나. 어서 바줄을 내리보내지 못할가!...》

다음날 고동소리가 멀리 해암산에 메아리칠 때 흰 위생복차림의 영양제식당의 똥똥보아주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노란 지게차에 실린 늪국통앞에 검정천으로 만든 팔토시가 한보따리나 실려있었다. 밤새 푸른빛 탁상등을 켜놓고 누빈 것이었다.

용접불꽃은 변함없이 날렸다. 축복의 꽃보라처럼 벅찬 흥분으로 들끓는 땅바닥에 줄기차게 쏟아져내렸다.

온 건설장이 다 보이는 아슬한 철탑우의 회색 트라스우에서... 온 나라가 다 바라보는 높은곳에서...

대안에서

행복한 날에

허성훈

내 가끔 먼 출장길에서나 어느 거리의 유보도에서 낮익은 동무를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놀라는 때가 있다.

그렇다. 내 때로 기억의 먼 한끝에서 사라져가는 아이적 동무를 텔레비존화면에서, 그것도 금별 빛나는 모습과 만나지 않았던가. 그뿐이라. 소식을 몰라 안타깝던 동무에게 문안의 인사말이라도 전하자고 편지를 쓰다가 방금 온 신문에서 어느 개발지의 돌격대 대장으로 대오를 이끌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편지 겉봉에 주소를 다시 쓰지 않았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과 지혜와 창발성을 다 내여 일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이 창조되었습니다.》

실로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들이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이 나라의 모든곳에서 련이어 일어 나고있다. 공장과 광산, 바다와 벌목장, 우리 로동계급이 일하고있는곳이면 그 어디에서나 숨은 영웅들이 무수히 태어나고있으며 두고두고 전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끝없이 꽃핀다.

헤여졌던 동무를 몇달만에 만나도 벌써 그사이 그가 떨친 창조와 혁신 속에서 더 커진 담력과 패기로 하여 새사람을 만난것만 같다. 한두해만 지나서 고향에 가보아도 그사이에 넓어진 새땅, 새로 일어난 제방과 문화주택 등으로 하여 마치 생소한 초행길을 걷는상싶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며 내가 누리는 생활이다.

아무리 감각이 무딘 사람이라 한들 이런 현실 앞에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야 있을수 있겠는가.

나는 얼마전 우리 당 제6차대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해의 첫전투에 펼쳐나선 압연공들을 만나기 위하여 성진제강소 제2중판직장으로 찾아 간적이 있다. 그런데 그 공장가까이에까지 가도 압연기소리와 철판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혹 기대를 세운것이나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다.

바로 이 공장은 내가 10년전에 최장대를 쥐고 중판압연기를 돌리던곳이기때문에 설비의 기술적 특성을 속속들이 알고있다. 압연기를 통하여 나

오는 중판이 200여메터에 달하는 굴림대우를 굴러가기때문에 철판이 흘러가는 소리가 몹시 높다.

거리에 정적이 깃든 저녁이면 10리밖에서도 철판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공장문어구까지 와도 쥐죽은듯 공장안이 조용하니 어찌된 일인가? 이런 의혹을 품으며 공장안에 들어선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공장안에서 생산이 한참 맹렬하게 벌어지고있지 않는가. 그야말로 불꽃피는 전투장, 맹렬한 백열전이였다.

200%, 300%를 알리는 속도들이 여기저기에 나불었고 압연기와 벽기중기엔 테프와 꽃송이들이 장식되어있었는데 마치 새해를 경축하는 야회장 같았다. 그밑으로 흘러가는 붉은 강판은 어찌나 아름다운지 지금이 겨울철이 아닌 봄날이라면 시원히 열린 채광장으로 꽃나비라도 날아와 앉을듯 했고 한토막 톱- 잘라 옷이라도 지어입고싶은 마음이였다.

나는 꿈세계에 있는듯한 기분이였다. 그러나 꿈아닌 현실이기때문에 꿈속같아도 현실로 믿어야 했다.

세상에 갑작스런 변화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이런 변화야 이 땅을 떠나서 어데 간들 쉬이 볼수 있으랴.

너무도 모진 철판소리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도 손오갈을 귀가에 가져다대고서야 이야기를 나누던 그 모진 소음은 어데로 갔는가? 그 어데로 갔는가, 10메터만 넘으면 불려도 들리지 않던 그 모진 소음은?-

지나간 날들이 삼삼히 떠올랐다.

우리가 이 공장을 처음 돌리기 시작하던 그때엔 압연기에서 삼단같은 연기가 치솟았고 다가서기 어렵게 불화기가 떠밀었으며 철판이 흘러가는 소리 또한 땅이 진동하는것 같이 모질었다. 이 공장에서는 너자들이란 보기 드물었고 사나이들 중에서도 억센 사나이들만 있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이런 공장에서 일하는것을 일종의 자랑으로 생각하였고 남 못하는 일을 한다는 하나의 긍지를 느꼈다.

이 공장을 찾아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로동계급의 건강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보다 쉽고 편하게 강판을 밀어낼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과 가지가지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바로 그 교시들중의 하나가 공장안에서 철판이 흘러가는 귀아픈 소음을 없애라는것이였다. 그 뒤 다른 교시들은 모두 관찰하였지만 소음을 없애는 교시 하나만은 관찰하지 못하고 모색하고있었다.

나는 그때 이 소음을 잡는 사람은 참말 아버지 수령님께 큰 기쁨을 올릴 가장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 소음이 방지되였다.

이 부문에 다소의 상식을 가지고있는 나는 설비를 보고 소음방지구조를 인츰 알수 있었다. 작은 바퀴들로 철판의 진동을 잡아주고 굴림대 정관 밑에 석면을 깔아주는 방법 등 여러가지 원리를 적용한것이였다.

실로 로동계급의 몽친 힘은 강대한것이며 그 힘이면 못해낼 일이 없다.

무궁무진한 그 힘의 크기는 그 어떤 계산책이나 수자로써는 재일수도 없고 표시할수도 없다.

나는 그때에 너무도 여러차례의 실패를 거쳤던 나머지 이 소음을 잡을 사람은 과학원이나 연구소의 전문가들일것이라고 짐작했으며 그들이 영웅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 소음을 잡아낸 영웅들은 그전날 나와 함께 압연기를 돌리던 그 로동계급이였으며 그들의 지혜와 숨은 노력에 의하여 없앨수 없었던 소음은 방지되였다.

기술실무 하나만을 가지고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찰할수 없다. 수령님의 교시를 끝까지 관찰하려는 사상과 의지, 립장과 태도, 패기와 열정이 때로는 기술이 되고 지혜가 되고 원리와

리치가 되어 것처럼 큰 결실을 이루게 하는것이다. 우리의 심장만 뜨겁다면 수령님의 교시를 관찰해내지 못할것이란 있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찰해가는 그 과정이 어려우면 어려운것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더 큰 보람이 안겨지는것이다.

철판소리가 소란스럽던 그때를 지내보지 못한 사람들이야 오늘의 이 기쁨을 어떻게 감득할수 있겠는가.

소리쳐불러서 듣지 못하면 쇠장대로 철판을 두드려 인적을 알리고 손짓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수십킬레의 로동화를 갈아신었고 눈을 감고도 운전실과 휴게실로 찾아가던 나의 정든고장이건만 오늘은 철판들이 미끄러지듯 소리없이 흘러가고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이야기며 켜졌다 꺼지고 꺼졌다 켜지는 신호불들을 보니 마치 무지개 비낀 어느 새고장 동산우에 오른듯싶다. 이 시간의 이 황홀경은 아버지수령님의 현지교시가 꽃핀 바로 그속에내가 서있기때문에 느끼는 행복이다. 그런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다.

사람들이여! 아름다운 조국땅 그 어디나를 무심히 보지 말고 무심히 걷지 말라!

우리 어느 공장이나 어느 농장벌에서, 어느 려행길이나 휴양길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눈부신 현실을 보았거나 기적적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때 그것을 놀람으로만 느끼지 말자!

바로 이것은 아버지수령님께서 너, 나, 우리모두에게 베풀어주시고 안겨주신 그 사랑과 은덕이 너무도 크기때문에 그 사랑과 은덕에 받들려 인간존엄의 상상봉, 인간리상의 절정에 오르는 우리 인민의 영광임을 알자!

연속방문기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전호에서 계속)

13. 서정시의 샘

서정시의 고유한 본성이 서정성이라면 서정시의 비결은 그 무엇?...

머리가 희도록 시단에서 한생을 바쳐온 시인이라고쳐도 그 비밀을 다는 모르고있으리라.

퍼내고 퍼내여도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탐구할수록 더 진귀한것이 나오는 샘이 있다. 그것이 생활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수가 시인것이다. 때문에 세상에는 생활을 다 리해했다는 사람이 없듯이 시의 비결을 다 쥐고있는 시인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 그

비결의 보다 가까이에 접근하기 위해 북방의 한 시인을 찾아 먼길을 떠났다.

시인의 고향

꼬박 하루밤을 새워 도착한곳이 시인의 고향이였다. 이미 시집 《영광의 노래》를 통하여 시인의 생활과 창작에 대하여 닳익힌고장이다. 정다운 땅이였다.

발벗고 바다가 모래불을 뿜박질하며 소중한 희망을 싹틔운곳도 여기였고 화선천리길을 지나 세대배낭을 지고 어머니의 마중을 받으며 돌아온곳도 여기였다. 당의 가수가 되어 시대의 노래를

청높이 부르고있는곳도 여기이다.

이곳 김책시는 시인의 고정창작기지이다. 시인은 여기에서 60살이 가까와오는 오늘까지 썸을 뒀다. 그 썸에서 《영광의 노래》가 솟구쳐 조국땅우에 가장 아름답고 서정깊은 부드러운 선물로 울려 퍼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이 평양에만 앉아있어서는 인민과 떨어진 관료가 되며 귀족이 되고말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가, 예술인들은 조국의 현실을 모르게 되고 라락하여 편안한것만 찾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들이 분주히 오가는 길가에서 시인 조성관동무를 만났다. 닥쳐오는 겨울을 맞기 위해 어느 한 로동자의 집을 찾아가는 채소차에 그도 타고있었다. 실로 열두달만에 한번은 꼭 겪어야 하는 고정기지생활의 한 토막이였다. 우리도 그를 도와주었다.

그는 아름이 벌게 통이 배긴 배추를 문앞에 쌓아주며 이런 말을 했다.

《서정시인의 경우 이런 고정체험기지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취재창작의 성공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침투에서 고정기지와 취재창작!

시인 조성관동무에게는 서정시인으로서 눈에 띄게 독특한 생활체험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자신이 오랜 세월 땀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초석같은 것이였다.

고정기지는 시인이 생활속에 침투되고 언제나 로동계급속에 있기 위해 필요했다. 책을 읽어도 휴식을 해도 그속에서 읽고 쉬는것이 달랐다.

고정된 생활체험은 시인에게 고유한 생활감정을 몸에 폭 배게 하여주었다.

서정시는 벽찬 생활세부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발현되는 시인의 감정이다. 조성관동무는 내화물공장 로동계급속에서 그런 자기 생활의 독특한 감정을 체득했고 그것을 시창작에 옮겨 놓았다.

아침출근길에서도, 소성로앞에서도, 휴식날의 저녁 합숙창가에서도 시상은 거침없이 내려쳤다.

좋은 시들이 나왔다.

...시인은 처녀총각의 중매를 선적이 있다. 그것도 단 한번, 1961년 9월이라고 생각된다.

친구의 부탁을 받고 며칠째 마음속으로 자기가 아는 처녀들을 두루 골라보던 그는 하루아침 출근길에서 가슴에 천리마휘장을 단 처녀들이 지나가는것을 보았다. 시인은 그들을 지나보내고 한참이나 돌아보았다. 그들이 류달리 아름다와보였다.

(저런 녀자들이라면 혼담을 해도 물어볼게 있을가? 가슴의 저 휘장이 다 말해주고있는데...)

실로 그랬었다. 시인은 타관에 나서 길을 물어도 천리마휘장을 단 그들에게 묻고싶었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도 천리마매대에 가서 사고싶었다. 그저 스쳐지나면서 본 느낌이 아니라 천리마기수의 칭호를 쟁취하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수양하였는가를 직접 목격한 시인이였기에 그들이 더 아름답게 보였다. 그것이 시였다.

.....

천리마작업반처녀들의 혼담이라면

발벗고나서고싶더라

가슴의 휘장이 죄 말해주거니

그의 마음씨 사람됨에 대해선

굳이 캐여물을게 없다고-

.....

독자들이 사랑하는 시 《천리마휘장을 두고》의 한 구절이다.

그 가정은 서정시의 축복처럼, 행복한 가정이되였다.

몇해가 흘렀다.

시인은 어쩐지 호흡이 가빠지고 눈앞이 캄캄해오는감을 느꼈다. 옹근 한해 활자로 찍힌 자기의 노력을 볼수 없었다. 그는 고뇌와 번민 속에서 모대기였다. 어릴적 바다가 모래불에 누워 별을 보면서 꿈꾸던 소중한 꿈이 영영 밤의 어둠속에 묻혀버리는것 같았다.

이 안타까움을 목격한 한 시인은 《친구, 인젠 고집을 부리지 말고 창작기지를 좀 옮겨보게.》라고 다정히 말했다. 고정창작기지에서는 시가 얼마간 나오지만 그후에는 안나온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시인 조성관동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쩐지 자기가 판 샘터에서 떠나고싶지 않았다.

파연 썸은 바닥이 나고단단말인가?... 체험된 감정이 비록 고층기의 시줄에는 못웁겨져도 보이지 않는 심장속 한구석에 시를 써놓을것이다!

시인의 신념은 옳았다.

바로 그런 때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서는 시인들을 벽찬 조국의 건설장에 불러주었다.

시인 조성관동무는 흥분했다. 그는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걸머지고 청년돌격대원들의 대오에 끼여들었다.

그는 씩씩한 걸음으로 이천-세포 200리길을 한달동안에 걸었다. 금골의 막장에서 70일을 살았다. 김책제철소확장공사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화력발전소건설장에서 또 언제건설장에서...

그 기간은 대체로 취재창작기간이였다.

시가 터져나왔다. 그는 실로 조국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5년남짓한 기간에 자기 시집의 삼분의 하나를 채웠다.

현실은 너무도 명백히 서정시인은 고정기지를 가지고있으면서 당이 초미의 문제를 제기하는곳

에 달려가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었다. 진정 조국의 격동된곳이 시인의 자리였다.

우리는 얼마후 시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는 취재지에서 수많은 시를 쓴것이 결코 그 곳에서 창작된 시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시인의 말이였다.

오랜 기간 몸매 폭 뻗 감정이 시술에는 한줄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없이는 한줄도 옮겨놓지 못했을것이다.

아버지

이름석자가 적힌 빨간 문패로만 알아볼수 있는 노동자단층문화주택가운데 시인의 집이 있었다.

조성관동무는 이 동네에서 자식들에게 남달리 친근한 4남매의 아버지로 알려졌다. 가정에 대한 애착은 그의 마음을 비단결같이 부드럽게 만들어주었다.

그는 밤늦도록 아이들의 숙제를 돌봐주었다. 일요일이면 파도가 방파제를 치는 바다가에 나가 조국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주었다. 먼 출장지에서 돌아온 저녁이면 쌍고개에 올라 붉은 화광을 뿜어올리는 제강소의 풍경을 보여주었다.

남달리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였다. 꼭 그렇게 해야 했다. 시인 조성관동무는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아버지로서의 자기의 생활이 곧 시라고 생각했기때문이다.

우리는 수수한 널마루에 걸터앉아 그의 시집을 다시한번 펼쳐보았다. 그의 시집에서 특이한것은 아이들의 시가 9편이나 실려있는것이였다. 첫아들을 보았을 때로부터 막내딸을 키울 때까지 근20년에 걸쳐 쓴것들이였다.

시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인간의 기초감정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감정으로 승화되며 조국을 떠먼 고귀한 정신적재부로 되는가?)

서정시인의 경우 특히 이것이 중요했다. 우리는 몇편의 그의 시에서 능히 그것을 문증할수 있었다.

먼 출장길은 물론 하루의 퇴근길에서조차 시인이 프락에 들어서면 《아버지 오신다!》 하며 애들이 달려나와 옷자락에 매달렸다. 그때마다 그는 제일 작은놈을 가슴에 안고 무한한 행복에 싸여 이런 생각도 하곤했다.

그 무슨 기쁜 사연 그리도 쌓였더나
품에 안겨 랑볼 맞비비며
허리에 팔에 매여달리며
새무리처럼 조잘대는 네남매-

머칠동안을 못잇는 너희들을 뒤에 두고
한나절을 안타까이 기다리는 너희들을 남겨두고
아버지는 더 오래 더 멀리

집을 떠나야 할 때도 있으리

시인 조성관동무는 50년대 화선길을 헤쳐온 세대명사였다.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인다면 어린것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지 않는가. 그 채롱스러운것들이 있기에 그는 넘어서던 문턱을 결연히 되돌아설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전날에는 남겨둔것이 고향의 어머니 한사람이였다면 오늘은 4남매, 그들의 기쁨과 웃음으로 하여 더하여진 조국의 사랑이리라.

자식을 둔 부모이라면 누구나 다 외면할수 없는 심정이였다. 아버지의 진정이였다.

이런 각오가 있었기에 시인 조성관동무는 아버지로서 현지생활에 더욱 성신했다.

그가 써내는 전투속보의 글은 노동자들의 구미에 맞았고 그들을 위훈어로 불러일으켰다. 그는 조국앞에 지닌 시인으로 다 못하는 의무를 이로써 메꿔보려고 모색했다. 당조직과 노동자들은 그 마음을 찬양했고 그 마음을 귀중히 여겼다. 그들이 고마와 시인은 뜨거움에 눈시울을 적신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로 해서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길가에서 만나도 무슨 시를 쓰는가고 물었다.

그것은 큰 충격이였다. 바로 그런 인사는 뜨내기 시인들에게는 차례질수 없는 소중한것이였다. 생활에 대한 사람이 주는 값비싼 대가였다. 자기 고향, 자기 애들,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 주는...

그때로부터 세월은 10년이 흘렀다.

1976년 8월 18일. 라디오에서 미제를 징벌하는 최고사령부 보도가 울려나왔다.

우산장창작실에서 원고지에 정열을 쏟던 시인 조성관동무는 붓을 쥔채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전연초소에는 조국을 지켜선 시인의 두 아들이 서있었다. 미국놈들이 도끼를 들고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시인은 그 광경앞에 몸부림쳤다.

나도 가리

총을 메고 나도 떠나가리

총탄으로만 말할수 있는

침략자 미제

심장이 터지는 분노는 웨친다

나에게도 총을 달라!

전연의 전호가

총을 멘 두 아들의 곁에

총을 메고 나란히

나도 함께 서리

...

아이들을 둔 아버지는 조국앞에 투사가 되어야 한다. 시인은 서슬푸른 붓끝으로 아버지의 의무

를 적었다. 심장이 뛰치는 사랑과 증오의 선언이었다.

서정시 《아버지》(1966. 3)와 《나도 총을 메고 떠나가리》(1976. 8)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 인자한 아버지가 아니거는 천년을 가도 찾아낼 수 없는 시였다.

오늘도 시인 조성관동무는 또다시 시 《세전사》에서 자신은 두 전사의 아버지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받드는 한 전선에 선 혁명동지라고 긍지높이 웨치고있다.

우리는 시집을 덮으며 다시금 생각해보았다.

(인간의 기초감정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감정으로 승화되며 조국을 떠넌 고귀한 정신적재부로 되는가!)...

백두산의 높이에

백두산-2750미터!

그 높이를 산수적수치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우에 삶을 둔 인간이 아니다.

혁명선렬들의 슬기와 용맹으로 키를 높인 백두령봉, 세월의 오랜 풍상에 머리가 희어지고 선렬들의 붉은 피로 노을이 없어진 백두산이기에 우리 인민은 그 높이를 자로 재이지 않는다.

하기에 사람들은 가장 숭고한 말을 골라 백두산을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인간완성의 절정으로 이야기하지 않는가.

백두산답사에서 돌아온지 한분기가 지났어도 시인 조성관동무는 천지의 기슭에 서있다.

시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

《혁명전통교양에서 백두산답사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누구든 그 로정을 꼭 밟아야 합니다. 그곳은 곧 혁명의 대학입니다.》

그랬었다. 실로 그랬었다. 백두산은 주체형의 인간완성의 메부리로 시인의 가슴속에 거연히 솟아 오른것이다.

우리는 시인의 말을 귀담아들으며 그와 함께 동해기슭으로 나갔다.

노을비긴 바다는 황홀했다. 기슭도 물결도 온통 붉은 일색이다. 파도가 도래굽이의 깎아세운듯한 쌍바위에 부딪쳐 흰포말을 뿌린다. 갈매기들이 원양에서 돌아오는 《백두산》호를 따라 춤을 춘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고기배의 이름에도 백두의 정신이 깃들어있는것이 아닌가!)

너나없는 생각이였다.

그것이 나래치는곳에서는 기적과 비약이 창조되였다. 만선기 날리며 돌아오는 저 원양어선이 위대한 창조력을 과시하고있는것이다.

백두산은 사상감정을 주었다. 지식을 주었다. 생활을 주었다. 시인은 그 힘으로 지금 백두산시초를 마감하고있다. 바다가모래불을 걸으면서도 줄곧 그 생각이였다.

그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한가지 생각뿐 시인은 청봉의 밀림속을 걷고있었다. 목다이를 밟고 걷는 걸음이 황송했다. 옛날 시조에서는 말

없는 청산이라고 했건만 청봉은 시인에게 죄다 말해주었다.

4~5편으로 된 시초에는 이런 청봉의 이야기도 있다.

집필은 역시 고향의 고정기지에서 진행된다. 답사를 마치고 돌아와 민고장에서 백두산을 다시 우러르는 충동은 더욱 컸다. 진정 그 무엇이든 보면 그것을 시로 분출시키는 서정시의 샘은 고정생활체험기지에 있었다. 근거지와도 같은것이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앞두고 시인 조성관동무는 당원-시인으로서의 한생을 총화할수 있는 시, 누구나 외우고싶어하고 누구나 읊기싶어 하는 수령님에 대한 서정시를 내놓을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그 영예롭고 아름다운 과업을 실행하자면 시인이 말하대싶이 사상정신적높이를 백두산의 높이에 세워야 한다.

시인의 리정표는 명백했다. 그는 시를 쓰기앞서 자신을 그 절정에 세우려고 노력하고있다. 시인으로뿐만아니라 인간으로서 부단히 수양하고있다.

그는 그 파정이 샘의 물줄기를 더 깊이 파는 힘겨운 투쟁이라고 했다.

시인에게 있어서 2시간은 어김없는 학습시간이였다. 시간표의 일정에는 어느날이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첫자리를 차지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하루의 복잡한 머리를 정돈시키는 수 학문제풀이시간까지 다 들어있다. 정적분의 응용이라 해도 그것은 서정시에 필요한 자양분이였다. 염록소였다.

지식은 시인의 세계를 높여주고 시인의 세계는 서정시의 세계를 보장하기때문이다.

시인은 언제나 시대의 가수, 시대의 열정, 투사였다. 실천투쟁에 직접 참가하는 로력혁신자였다. 그러므로 당의 가수로서의 시인의 자세는 결정적인것이다.

백두산의 높이!-

그것은 시인 조성관동무뿐아니라 우리 시인들 모두의 위치였다. 정신적높이였다.

하기에 시인은 오늘도 인간완성의 절정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가르치심대로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피타는 심혈을 기울여가고있다.

백두산의 절정에 고인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천지의 물, 그것은 시인이 판 샘의 물줄기로 되였다. 거기에 원천을 둔 서정시의 샘이였다. 축적된 고유한 생활감정으로 오랜 세월 터를 쌓은 샘이였다. 삼복무더위에는 이 시린 찬물을 흘려보내고 눈보라 사나운 겨울에는 가슴훈훈한 더운물을 흘려보내어 언제나 사람들의 가슴에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물줄기...

샘은 영원히 마를줄 모를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본사기자 최봉무

봄 빛

백철수

1

5작업반의 끝나루마을은 분계선이남 교동도가 바라보이는 서해기슭에 자리잡고있었다. 리소재지에서 끝나루까지는 동쪽길이 곧추 뻗었는데 그 길로 지금 처녀분조장 리순애가 걸어가고있다. 다른때같으면 석양이 불타는 먼 수평선을 황홀히 바라보며 노래도 부를 그였지만 오늘따라 수십길은 눈길을 보도랑에 겨눈채 발걸음을 재우친다.

바다쪽에서 밀물을 실어들이는 찬바람이 보도랑의 눈녹은 물우에 가는 파문을 누비고있다. 거기에 오늘 오후에 당했던 일들이 얼른거리듯 비껴 와서 순애는 앞가슴에 울린 손으로 옷고름을 꼭 잡아잡으며 안타까이 중얼거리었다.

《어머님은 왜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실가?》

…시간반전, 새땅을 찾기 위해 벌려놓은 동막이 공사를 일찌기 거두었는데 순애는 오늘 일감을 다 축내지 못하게 몹시 안타까왔었다. 그레 반원들을 돌리보며 래일아침부터 더 빨리 나와 일손을 잡자고 호소하려다가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서 인숙이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더니 어머니는 새 상품이 많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상점으로 달려가더라는것이였다. 그러한 제집식구를 두고 강조할 체면이 못되어 순애는 작업총화를 대충 짓고 어머니를 찾아 상점으로 달려갔었다.

그런데 그가 상점에 이르렀을 때엔 어머니는 이미 소망하는것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뒤였다. 새 상품들을 받아놓고 입이 벌어진 판매원 아주머니는 순애를 보자 제사 아쉬워하며 말하였다.

《좀 더 빨리 오지 글썄, 첫날 입을 옷감으로 색갈 고운 천이 왔는데도 너의 어머니는 굳이 흰색이래야 되겠다면서 크레프를 … 끊어갔으니 보렴, 이 연분홍조세트가 더 곱지 않아?》

천필속에서 골라내어 매대우에 펼쳐놓는 조세트천은 유리창으로 흘러드는 석양을 받아 연분홍의 부드럽고도 은근한 색조로 하여 금시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는듯싶었다.

《첫날 옷감으로 제격이지뵈, 지금은 이렇게 색갈 있는걸 고른다. 도시로 시집간다니말이다만, 손티를 벗고 유행을 따라야 할게 아니냐?》

판매원은 어머니가 끊어가긴 했어도 순애만 마음있어하면 바꿔줄수도 있다는것을 암시하듯 눈웃음을 지어보였다.

《아니, 됐어요. 어머니 맘에 드시면…》

순애는 화끈 달아오른 얼굴을 숨듯이 수그리며 돌아서서 나오고말았다.

판매원이 상점에 나타난 자기를 옷감에 마음이 끌려 달려간줄로만 알고있으니 이제 그 수다스러운 아주머니 입에서 무슨 소문이 나돌지…

순애의 약혼자는 도소재지 농기계공장에서 손꼽히는 모범노동자였다. 사위될 청년과 굳건한 사돈집살림에 흠뻑 마음이 끌린 어머니는 다가오는 5. 1절날에 결혼식을 하자고 하는 상대측의 제의를 두말없이 받아들이고 그 차비에 움해져버린것이다.

(어쩌면 농장일을 그렇게도 생각밖에 둘수 있을가? 새땅찾기공사도 벌려놓고있는 때에…)

안타까운 생각과 함께 문득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1980년대에 알곡 1, 500만톤을 생산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안고 자신의 지난날의 사업까지 돌이켜보았던 일이 어제일처럼 되살아오른다. 그것은 분조장으로 선출받아 3년이 잡히도록 아직 마음싸게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기때문인지도 모른다. 첫해엔 경험없이 없어서 애는 애대로 태우면서도 겨우 평년작을 내었고 지난해에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더잘 관찰하여 례년에 없는 불순한 기후조건을 이겨내고 최고 수확년도와 맞먹는 작황을 마련했다. 올해엔 더 신심이 생겼다. 이제 미림이 뜰대로 짜고들어 적기적작, 적지적작 원칙도 더 철저히 관찰하며 새땅도 찾아낸다면 보란듯이 농사를 지어낼것 같았다. 그래서 이른봄부터 농사차비를 다그치며 새땅찾기도 통이 크게 발기해나섰던것이다. 그리고 사돈집과 결혼식날자를 정하고 와서 서둘러대는 어머니를 만류하는 한편 약혼자인 김창호에게도 농사를 잘 지어보겠으니 결혼을 한해만이라도 미루자는 간절한 사연을 담은 편지를 띄웠던것이다.

그런데 열흘이 넘도록 창호한테서는 감감 소식이 없다. 그쪽에서도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지, 아니면 창호동무자신이 정한 날자를 물릴수 없다고 무언으로 거절하는건지… 아니야, 그럴수 없어, 창호동무만은!

순애는 갈마드는 의혹을 털어버리려고 도리머리를 치고는 고개를 들었다.

바다기슭까지 무연하게 띄어나간 고향별… 그 논별을 가로지르며 걸어오고있는 한 녀인의 모습이 시선을 이끌었다. 바람을 피하느라고 수건으로 가리운 얼굴을 수긋하고 걸어오는 녀인의 어

깨우에서는 나비날개처럼 내뿜친 버들고리질통이 허우적거리듯 움직이고있었다.

(저게 누구일가?)

순애는 동쪽길에서 내려서 마주 걸어갔다. 바람결에 나뭇기는 머리수건사이로 해풍에 그을린 적동색의 얼굴빛에 좁혀든 눈이며 무겁게 다물린 입이며 낮익은 모습이 가려보이었다.

<인숙이 어머니구나!>

너인도 이쪽을 알아본듯 걸음을 멈추더니 주름잡힌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띠었다.

《어머님을 만났었나?》

《상점에서 벌써 사가지고 가셨더군요.》

《잘되었구나. 순애 첫날옷때문에 늘 걱정이지니...》

인숙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더니 때를 가려보려는듯 시름없이 서쪽하늘을 바라보았다. 수평선에 기울어진 해살이 설피게 퍼져와서 머리수건으로 가리워진 너인의 이마전에 내배인 땀기운을 간신히 비쳐주고있었다. 그 범상스러운 태도가 순애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다.

《아주머니까지 그러시니 정말... 농사철에 시집갈 차비를 해서야... 그건 제 양심이 허락치 않는걸요.》

하고 순애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슴속에 소중히 품고있는 자기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제침략자들의 강점으로 5년간이나 피눈물나는 불행을 겪었을뿐아니라 오늘도 그 원썬놈들과 직접 맞서고있는 고향방, 나서자란 이고장을 더욱 살기좋은 락원으로 꽃피워서 오늘의 행복을 마련하여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더욱 큰 기쁨을 드리리라. 순결한 마음속에 자리잡은 충성의 결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한번도 농사를 씨원스레 지어보지 못했던것이다.

인숙이 어머니는 사뭇 놀라운 빛으로 순애의 이야기를 듣고있다가

《많은 젊은이들이 태몽은 제고장을 잇고 살기 좋은 도회지로, 공장으로 떠나가려 하는데 순애는 정말...》

하고 눈시울을 조프리고 무언가 더듬듯하더니 불시에 기쁜 빛으로 말을 이었다.

《내가 바로 보았지, 우리 인숙이보구 늘 말해왔단다. <중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농촌에 남은 순애를 보렴. 난 그런 사람이 부러워.> 그랬더니 요즘 그 애 입에 예술학교보다 고등농전 애기가 더 자주 오르군하지.》

《아주머니도 참!》

하면서도 순애는 너인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의 남다른 처지속에 자신의 문제도 비껴들고있다는것이 놀랍기만 했다.

중학교졸업반인 인숙은 너인의 양딸이었다. 위낙 친딸로는 순애보다 7년이나 우연 계속이가 있

었는데 4년전에 도시의 중학교 교원한테 시집을 갔었다. 너인은 전쟁때 원썬놈들한테 남편을 잃고 혼자 남은 몸이라 계속을 따라갔었다. 교육자인 사위도 장모의 처지를 동정하여 잘 공대해주었으나 너인은 도시생활에 마음을 붙여내지 못했다. 평생 농사일로 뼈를 굳힌 그는 흙냄새가 못 견디게 그리워 1년도 못채우고 딸 4형제를 둔 시형한테서 인숙이를 데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인숙이 어머니로 불렀다. 애지중지 키워온 인숙은 또한 학교예술소조에서 춤을 잘 추어 도예술학교에 추천할 첫 대상으로 꼽히고있었다. 그런데 그 사랑받이를 순애, 자기의 본을 따라 앞으로 농촌에 진출하도록 마음을 돌려세우게 하였다니... 내가 무어길래...

인숙이 어머니는 순애가 몸돌바를 몰라하자 말머리를 돌렸다.

《우린 동막이에서 다른 방도가 서야겠어.》

《.....》

《방금전에 작업반장이 나와 돌아보더니 지금처럼 할바엔 중지하는게 나을것 같다고 하지 않겠니... 그래 삭도를 놓겠다면건 정 가망이 안보이나?》

《.....》

순애는 절로 얼굴이 흐려졌다. 삭도문제는 바로 작업반장이 제기한 일이다. 분조에서 해변가의 밀물받이를 동을 돌려쳐 새땅으로 살려낼것을 발기했을 때 작업반장 리종수는 이모저모 타산해보고 다른 마련이 있어야 하겠다면서 스스로 수리분조를 찾아갔었다. 그런데 삭도의 심장부인 활차제작이 실패를 거듭하자 이제와선 동막이공사가 어렵겠다고 원고개를 트는것이다.

《삭도가 가망 없다면 밀물때에도 일을 계속해야 할가봐.》

《어떻게말이예요?》

《맞은컨 산언덕에서 흙을 파다가 가려놓지. 썰물때에 처넣을수 있게... 오늘 해보았더니 스무짐은 넉근히 파서 나룰수 있더구나.》

(그러느라고 혼자 남았었구나.)

순애의 눈은 감사의 정으로 빛났다.

《고마와요. 저도 일손을 다그쳐야 하리란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까진... 아주머니, 미루지 말고 래일부터 그렇게 하세요. 오늘밤 모여앉아 토론도 하구...》

《그저 좋은 일이라면 우물도 들고 마시자는구나.》

인숙이 어머니는 순애를 정겹게 지켜보며 웃었다.

《소빨은 단김에 뿔으란 말도 있지 않아요.》

순애도 웃었다. 그의 가슴은 새로운 사업의욕으로 불타올랐다. 시름을 잊어버리고 한가지 사업에 몰두하게 된다는것은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순애가 기쁜 마음으로 반원들을 쫓기시

킬 저녁모임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이다.

저녁을 짓고있던 어머니가 방안에 들어선 딸을 보자마자 달려올라와 옷케부터 열어제끼더니

《야야, 이걸 좀 보렴.》

하고 얼굴이 환해서 천보자기를 풀어보이였다.

순애는 상점에서 당했던 일이 눈앞에 확 끼쳐와서 얼굴이 고추빛이 되었다.

《수집어하기두 원, 제가 입을 옷감인데... 얼마나 부드럽고 고운지, 어서 퍼보렴.》

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순애는 기쁨에 뜬 어머니의 모습을 차마 바라볼수 없어 자리에 앉자 한열을 지켜보며 말을 뱉었다.

《어머닌 일이 채 끝나기도전에 상점에 가시구... 전 어머님이 그러실줄은 정말...》

떨리듯 끊어져버린 목소리로 어머니는 자기 한 일에 대해 딸이 몹시 언짢아한다는것을 알아차리였다.

《너 뭘 그러니? 대사를 위해선 그럴수도 있는거지 별안간 하늘이 무너져내린것처럼.》

《그게 바로 잘못하는 생각이예요.》

《그럼 이 에미를 분조회의에 내놓고 비판하렴, 딸잔치를 준비하느라고 자유주의를 한다구.》

어머니는 한마디도 새겨들을 기색이 아니였다. 노여운 빛으로 근엄하게 굳어져버린 얼굴엔 세월에 탄 주름살들이 한시에 살아오른듯싶었다.

《그래 좋은 자리를 밀어놓고 세월 없는 분조사업에 얼굴이 까매서 돌아가는 너를 보구만 있어야 이 예미 마음이 편하겠니? 난 그런 너를 보자고 이때껏 살아오지 않았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순애는 일어나 밖으로 나오고말았다. 그대로 앉아있으면 또 어떤 가슴아픈 하소연을 듣게 될지 알수 없었다. 일찌기 남편을 잃고 순애와 순도, 오누이한테 보람과 희망을 불이고 살아온 어머니, 자기 순애를 좋은 자리에 살리고 순도를 장가만 보낸다면 오금이 펴이겠다고 임버릇처럼 외워온 어머니였다. 소원이 그랬던것만큼 사위될 김창호의 서근서근한 인품에 마음이 흠뻑 끌린 데다가 앞으로 순애가 살게 될 사돈집, 목욕통에 세탁기, 랭동기가 갖춰진 굳건한 도시살림살이를 보고와선 입을 다물줄 모르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돌아갔었다. 아무리 그러기로 이 딸의 심정을 그렇게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니...

순애는 입술을 감쳐물며 버릇처럼 웃고름을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어머니의 고집스러운 기색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으며 금시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것만 같은 야속한 감정이 목구멍을 지지며 끓어올랐던것이다.

(정말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바로 이해시킬수 있겠는지...)

분조모임을 위해 집집을 찾아다니는 순애는 땅거미 깔려드는 마을길이 한밤중처럼 캄캄해보이기만 해서 자주 발을 멈추곤하였다.

2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분조모임도 웬일인지 무거운 기분에 깔려있어 안타까와지지만 했다. 반원들은 의견을 제기하라고 해도 분조장의 기색을 슬깃슬깃 살피며 입을 열지 않았다. 순애는 그것이 자기 얼굴에 그려진 침울한 그늘때문에 그러리라느것을 깨닫자 애써 미소를 지어보이며 말했다.

《오늘 인숙이 어머님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의견도 제기했어요. 제가 대신해서 이야기할것없이 인숙이 어머님한테서 직접 들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일시에 인숙이 어머니에게 쏠려졌다.

《아유, 내가 무슨 큰일을 했다고서... 이러지들 말아요.》

인숙이 어머니는 큰 화단을 만난듯이 손을 내저으며 기겁을 떨었다. 그바람에 무겁던 분위기가 즐거운 웃음소리로 뒤바뀌어졌다.

《뭘 그렇게 비싸게... 빨리 얘기하시요.》

분조의 좌상인 권치도가 이렇게 한마디 해서야 인숙이 어머니는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생각하고 실천해본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발기에 대해 감심하면서 대견스럽게 쳐다보았다. 인숙이 어머니는 거기에 고무되어 자기 심정을 솔직히 터놓기 시작했다.

《내가 그렇게 해보게 된건 다름이 아니예요. 30여년동안 갈라진 남쪽땅을 바라보며 살아온 생각을 하면... 얼마전에 텔레비에서 광주에서 일어난 참상을 보고 난 며칠밤을 잠들지 못했어요. 미제승냥이놈들과 그놈들이 길러낸 전두환이란놈이 남쪽땅을 온통 피바다로 만들고있는데...한피줄을 이은 형제들이 그렇게 죽어가고있는데 어떻게 일이 좀 힘들다고 물려서겠나요. 우리가 일손을 늦추면 통일이 그만큼 늦어지고 형제들도 피를 더 흘릴게 아니예요. 나도 물건너에 친가를 두고 있어요. 오랍동생들이 그렇게 쓰러지고있으리란 생각을 하면...》

인숙이 어머니는 사무치는 분노로 몸을 떨며 말 끝을 맺지 못했다.

방안엔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물건너에 친정을 두고서도 안부조차 모르며 30여년이란 세월을 흘러보냈으니 한해가 십년맛잡이로 더더욱 간절해지는 통일에 대한 념원, 그런 절박한 심정은 인숙이 어머니에게만 한한것이 아니다. 미제원쑤놈들에 의하여 남편을 빼앗기고 자식과 생리별을 당한 사람들... 인숙이 어머니의 심정토로는 그들의 피맺힌 가슴에 불을 질렀다.

《살림들이 쭉 펴이고 통 사는 걱정을 모르게 되니 원썬놈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얹어지고있지, 통일하기 위해 일을 더 많이 할 생각을 안하고 있으니...》

《1,500만톤 알곡이 거저 생기진 않지요. 새땅을 기어이 찾아내자요.》

《아무렴, 래일부턴 더 빨리 달려나가서 인숙이 어머니 한대로 흙집을 저다놓잔말이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끓었다.

순애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저렇게 떨쳐나서는 데 못해낼 일이 어디 있을가싶었다. 그는 걱정을 누르듯 반원들을 미덥게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오늘밤 다진 결심대로 기어이 대풍을 이룩해서 아버지수령님께 꼭 기쁨의 보고를 올리자요.》

×

이튿날아침, 작업반장을 찾아가는 순애의 발걸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보고를 듣게 되면 반장아저씨도 반가와할거야. 참, 반장아저씨가 어제밤의 그 양양된 기세를 보셨더라면...)

어제밤 모임을 시작하기전에도 또 끝난뒤에도 찾아가보았지만 작업반장 리종수는 관리위원회에 불려가서 돌아오지 않았었다. 이틀전부터 작업반장협의회가 있을것이라고 하더니 그 모임에 참가한 모양이었다.

작업반장네 집앞에 이르자 때마침 리종수가 반장일지를 맡아쥐고 나오고있었다.

《어제밤 늦어서 돌아오셨나요?》

순애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며 다가서다가 무릎 발을 멈췄다. 류달리 특한 눈섭을 추켜들고 쏘아보는 리종수의 근엄한 눈빛에 저도모르게 가슴이 선둑해졌다.

《어제밤 분조모임을 가졌다면서?》

리종수의 목소리는 낮았다. 뭔가 들끓는 감정을 참을 때엔 침착해지려고 우정 목소리를 낮춘다는것을 알고있는 순애는 충구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토론한 다음 하려고 했지만 안계서서... 하지만 모임은 아주 잘되었어요. 새땅찾기공사를 다그치자고 기세들이 대단했어요.》

《기세가 대단했다-》

리종수는 미간살을 모아붙이고 말끝을 느리더니 다우치듯 물었다.

《오늘 작업조직을 어떻게 했소?》

《토론하고 하려고 아직...》

《됐소. 오늘부터 거름실어내기와 모판짓기에 뭉땅 붙이오.》

《그럼 새땅찾기공사는...》

《그것도 해야지. 그러나 먼저 거름실기와 모판짓기부터 하지요.》

순애는 아연해서 가시돌힌 리종수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리종수는 미간을 찌프리며 말을 뱉었다.

《일이란 욕망 한가지로 되는게 아니야. 동막이 공사만 붙들고있다가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치는 격이 되지. 열흘후엔 모판락종을 시작해야 될판인데 거름실어내기와 모판만들기를 언제 하겠는가말이요? 빨리 나가서 지시한대로 작업조직을 하오. 내 이제 트랙토르를 내보내겠소.》

《.....》

순애는 의견을 들을념도 않고 지시만 해대는 작업반장의 태도에 야릇한 모욕감을 느끼며 고개를 수그리고있었다. 그것을 무언의 접수로 여긴 모양으로 리종수는 그대로 돌아서다가 피득 생각난듯이 주머니에 손을 지르더니 봉투 한장을 꺼내주며 말했다.

《관리위원회사무실에 있더라니... 동무의 약혼자한테서 온것 같소.》

받아든 봉투표면을 스쳐보던 순애의 눈길은 발신인란에 적힌 김창호라고 쓴 세 글자에 가서 못박히었다.

리종수는 처녀의 얼굴에 확 피어나는 환희의 빛에 놀란듯이 눈섭을 추켜들었다가 그만에야 화가 난듯이 돌아서면서 중얼거려었다.

《일할만하게 키워만놓으면 날아간다니까.》

순애는 이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 아니, 반장이 떠나버린것조차 알지 못했다. 웃고름을 잡아 잡은 손을 꼭 대고도 뛺뛰는 가슴은 진정시킬수 없어 핵 돌아서자 총총히 동구박으로 줄달음쳤다.

(무어라고 적어보냈을가?)

동구앞 느티나무앞에서 발을 멈추고 둘러보았다. 너무도 애타게 기다리던 소중한 편지여서 그누가 엿볼가 겁이 났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것을 확인하고서도 숨듯이 느티나무밑둥이에 바싹 다가 서서야 봉투를 뜯었다.

눈에 익은 글발들이 앞을 다투며 안겨든다. 급하게 쓴듯 고르롭지 못한 글씨... 애타는 눈길로 더듬어가던 순애는 얼굴이 해쓱하게 굳어지며 숨이 꼭 막혀와서 그 자리에 쪼크리고 앉았다. 잠시 피롭게 숨결을 가누다가 다시 편지를 더듬어 보았다. 흐려진 시야에 갈겨쓴 글자들이 가슴을 저미며 되살아오른다.

순애동무,

결혼식을 미루자니... 정말 뜻밖이요. 동무 어머니는 찬성하는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 정해놓은 대사를 미루는 법이 어디 있는가고 펄펄 끓기만 한다오. 나는 동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주위에서 어떻게든 들끓어대는지... 이렇다는것을 알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기 바라오. 회답을 기다리면서 김창호 씬.

순애는 애오라지 믿고 의지했던 담벽이 와르르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은 환각에 자신을 지탱할수 없어 아름답드리밀등이에 쓰러지듯 몸을 기대었다.

(나의 일에 대해 그렇게도 알아주는듯하더니만 이젠 창호동무까지도…)

분하고도 서러운 감정이 눈물과 함께 솟아올랐다.

오랜 풍상을 이겨오며 마을에서 일어난 크고작은 일들을 묵묵히 새겨온 고목도 처녀의 가슴에서 솟아나는 눈물을 받기엔 참기 어려운듯 높이 펼쳐 든 가지들을 안타까이 흐느적이었다.

…지난해초에 군에서 조직한 농민축하단이 돼 지랑 신키서 도농기계공장을 방문하고 돌아온적이 있었다. 순애도 그 한 성원으로 갔었는데 그때 남달리 관심하게 된것은 한 기능공이 창안제작하고 있는 거름적재기였다. 그것만 성공되면 농사일에서 거름을 신키부리는 일도 기계가 다 하게 된다는것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것이다. 그래서 순애는 그것을 만들고있는 기능공, 김창호의 일손을 자진하여 도와나섰다. 그런데 김창호는 성미가 어떻게도 서근서근하고 호방한지 그의 일손을 돕느라면 도무지 힘든줄 모르고 마음이 즐거워지지만 했다. 찾는 공구를 헛갈려 잘못 섬겨주어도 슬쩍 뭉으로 돌리곤했다.

《이것 주소를 훔겼군요.》 《또 잘못 잡았군, 그건 총각네 집 문고리가 아니지요.》

힘껏 죄여야 할것이 있으면 같이 힘써보자고 자리를 띄워주기도 했다. 그렇게 무렵없어 일하는 파정에 서로 사회에 진출하게 된 사연이며 가정력이며 환히 알게 되었다. (김창호는 3형제의 막내였다.)

드디어 적재기조립이 끝났었다. 순애가 자신의 노력도 바친 그 창조물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창호가 꿈무늬에서 수건을 슬쩍 뽑아 들려주는것이였다.

《얼굴을 닦으시오. 이제 사람들이 모여오겠는데.》

순애는 돌아서서 손거울에 얼굴을 비쳐보았다.

이마와 볼, 지어는 보송보송 땀방울이 내뿜친 코밑의 인중에도 얼룩점이 비껴있었다. 순애는 너무 부끄러워 밖으로 달려나가 수도물에 얼굴을 씻고 닦았다. 그 순간 수건에서 쇠내가 배인 남자의 땀 냄새가 가슴이 몽글하게 끼쳐와서 버릇처럼 웃고름에 손을 가져갔다.

이튿날, 순애는 말쑥하게 빨아말린 수건을 남모르게 창호의 공구함에 넣었다. 공구를 가지러 갔던 창호가 그 수건을 발견하더니 빙긋이 웃으며 순애를 돌아보았다. 순애는 모르는척하고 하던 일만 계속했다. 그러면서 좀 손만 놓이면 돌아서서 손거울을 들여다보곤했다. 다시는 흉한 꼴을 해보이고싶지 않았다. 그런 눈치를 창호도 알아본듯싶었다. 한번은 가만히 들여다보는 손거

울속에 웃음지는 눈이 언뜻 비껴 화닥 놀라며 돌아다니니 뒤에 창호가 서있었다.

《아이참, 말도 없이…》

《뭘 공연히 그러시오. 내 눈엔 땀배인 동무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고상해보이는데…》

여느때의 룡쉬인 어조가 아니였다. 살뜰한 정이 어린 그 은근한 목소리에 순애는 가슴이 설레여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공장에 대한 로력적지원을 끝마치고 떠나게 된 그 전날, 축하단성원들은 공장에 왔던 기념으로 노동자들과 함께 여러장의 사진을 찍었었다. 순애는 사진관에서 나오는길에 창호가 이끌어 바다가로 나갔다. 만조된 바다가 부푼 가슴을 추기듯 모래톱을 안고 조용히 물결짓고있었다.

순애는 모래톱에 발자국을 남기며 고향땅에 붙인 자기의 남다른 꿈을 이야기하였다. 창호는 주의깊이 새겨듣더니 동무의 그 아름다운 꿈을 실현 시키기 위해 자기도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그 불타는 열정에 이끌리어 순애는 언제 모래톱이 끝나는 도래곶이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했다. 행복에 넘친 가슴을 살뜰히 쓰다듬어 주듯 물결도 조용히 속살거리는데 수평선에 붉게 비친 락조를 향하여 한쌍의 갈매기가 훨훨 나래쳐가고 있었다.

그날저녁 창호는 순애를 자기 집에까지 청했다. 어머니가 만나고싶어한다고. 순애는 그것만은 수락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던것이다.

그런데 그 이튿날, 떠날 시간이 다 되어 열차에 오르려는데 창호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타났다. 고향의 어머니를 편상시키는 소박한 몸차림에 귀밑머리가 흰 창호의 어머니는 아들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한눈에 순애를 알아보고 얼굴이 환해서 말했다.

《고생만 하다가 가누만. 공장에 와서 어떻게 일했다는 얘길 다 들었어.》

《어머님…》

순애는 얼굴이 확확 달아올라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열차가 기적을 울리었다.

순애가 승강대에 올라서자 창호 어머니는 들고 나온 선물구렁을 안겨주며 말했다.

《에그, 밥 한끼 지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보내다니… 앓지 말라구.》

《어머님!》

일본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도 따뜻한 정이 감기는 창호 어머니의 다정한 모습에 순애는 승강대에 상반신을 내밀고 손을 흔들었다. 창호 어머니는 손을 반쯤 올린채 서운한 기색으로 하염없이 이쪽을 지켜보고있는데 그결에 선 창호는 높이 쳐든 손을 열정적으로 내젓고있었다…

바다가를 거닐며 주고받은 이야기, 순애의 꿈을 그토록 리해하면서 한 약속… 열정에 넘친 그 목소리는 그대로 귀속에 쟁쟁히 남아있건만 이

제 외선 정말 뜻밖이라며 자기의 생각같은것은
아랑곳 하지도 않는게 아닌가.

(아, 어쩌면 창호동무까지도...)

순애는 자신이 배반당한것만 같은 억울하고도
분한 감정에 편지를 꾸겨잡고 그 자리를 떴다.
하나 그는 발길이 어디에 놓이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가슴이 괴롭게 옥죄이면서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기만 했다. 그런 속에서도 자기가 분조장
이라는 머리속에 지울수 없는 자각이 그를 동막
이공사장으로 이끌어갔다. 거기에는 그를 믿고
기다리는 반원들, 하나의 집단이 있었다.

3

동막이현장의 곳곳에 나무재기, 갈대들이 머리
를 쳐들고있다. 이곳에는 잘 공구어놓은 논판과
도 같은 4정보남짓한 감탕벌이 펼쳐져있었다. 이
때까지 거기에 군침을 돌구면서도 사람들이 업두
를 내지 못한것은 동막이에 소요되는 토랑해결이
어려웠기때문이다. 주위는 감탕판이 널려있을뿐
이다. 한가지 대담한 방법은 왼쪽에 꽃처럼 나았
은 산언덕을 허물어 쓰는것이 상책이었지만 그
사이엔 깊숙한 객고가 가로막아나서고있었다. 그
래서 삭도를 놓자는 창안도 나왔는데 활차제작이
뜻과 같이 되지 않았다. 수리분조에서 만든 활
차는 얼마 못가서 터져버리군했다. 그렇다고 이
좋은 땅을 그대로 버려두겠는가. 그 안타까운 마
음을 대변하여 인숙이 어머니가 밭기한것이 예돌
더라도 산언덕의 흙을 파다가 물가에 가려놓았다
가 물이 찰 때에 그것으로 동을 막자는것이였다.
그렇게 하면 물기없는 흙을 다루는것만큼 동막
이를 한결 능률적으로 할수 있을것이였다.

순애가 동막이현장에 이르렀을 때엔 반원들이
아직 밀물이 다 빠지지 않았는데도 감탕밭에 들
어서서 일손을 잡고있었다.

《왜 이리 늦었나? 우린 기다리다못해...》

감탕밭에서 인숙이 어머니가 말을 붙이며 나오
다가 해쓱하게 이지러진 순애의 얼굴을 보고 입
을 다물어버렸다.

《반장동지와 좀 토론할게 있어서...》

《반장이 또 웅고집을 부렸겠군.》

인숙이 어머니는 작업반장이 제 주장만 세워서
순애가 그렇게 될줄로만 알고 어성을 높였다.

《반장은 그저 우리 분조가 하는 일엔 원고개만
튼다니까.》

이 청높은 목소리를 신호로 반원들이 모여왔다.
의혹과 기대를 담고 쳐다보는 얼굴들... 그러나
순애는 작업반장의 지시를 거역할수 없었다. 지
금 그에게는 그럴 힘조차 없었다.

《아무래도 우린 당분간... 이 동막이공사에선
손을 떼야 할가봐요.》

《?!》

반원들의 얼굴엔 기대의 빛이 가셔지고 의혹의
빛만이 짙어졌다. 순애는 망설이었다. 그럴 때

재촉하듯 마을쪽에서 편걸차를 단 트랙토르가 아
침 대기를 뒤흔들며 굴러나오고있었다.

《반장동진 우리 분조 농사차비가 늦어질가봐
걱정이 크셔요. 우리에게 트랙토르도 선참 배치
해주면서... 그래 모판만들기와 거름실어내는 일
을 먼저 해야겠어요.》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 하긴 해야지.》

분조의 좌상인 권치도가 수궁하면서도 덧붙이
었다.

《그렇지만 그 일에 몽땅 붙어돌아갈것까지야
있을가. 거름내는덴 적재기로 하면 뒤사람 있으
면 될건데.》

그러자 분조장의 굳어진 기색으로 하여 침묵만
지켜오던 반원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다.

《모판짓는것도 그렇지요. 지난 가을에 자리를
떠놓고 도랑까지 쳐놓았으니 예닐곱이면 될걸가
지고.》

《그렇게 하면 동막이도 계속할수 있겠는걸요.
분조장, 너무 걱정하지 말라구.》

순애는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기의 고
심을 제일처럼 여기며 의논해주는 반원들, 그앞
에서 피로운 빛을 보인다는것은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가. 순애는 애써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그럼 말은 일들을 서로 주인답게 잘하자요.》

순애는 로력배치를 하고 찌나가는 물속에 들어
서서 암팡지게 감탕흙을 파올렸다. 삽날에 띄어
동독에 덧쌓이는 감탕흙은 엇구수한 해감내를 물
씬물씬 뽕긴다. 수백년을 두고 해감이 쌓여진 이
기름진 땅에 버가 그루를 박고 싱싱하게 자랄
앞날을 그려보느라던 저절로 마음이 즐거워졌다.

(창호동무가 이 땅에 바치는 나의 로력을 그리
도 몰라준단말인가.)

때없이 갈마드는 피로운 생각도 발목이 시그럽
도록 기름진 땅과 싱그러운 향취속에 묻혀버리군
했다.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사정없이 들춰놓는 일
이 다시 나질줄이야...

점심참에 순애가 오후엔 거름내기와 모판짓기
현장을 돌아보리라 마음먹고 총총히 집으로 돌아
왔을 때이다.

방에 들어서듯마듯 어머니가 성난 어조로 말을
붙인다.

《야야, 네가 무슨 일을 저질러놓고 다니느냐?》

《?!》

《웃사람이 시키면 그대로 할게지. 오래지 않아
시집갈 가시내가 오지랴 넓게 자꾸 나설건 뭐
냐?》

밖에서 당한 일의 여파가 집에까지 밀려오다
니... 순애는 아연해져서 구들우에 사려놓은 새끼
에 눈길을 떨구었다. 가늘어지기도 하고 굵어지
기도 한 새끼오리... 어머니는 어제부터 분조의
팽상모판에 쓸 새끼를 하루에 300발씩 보장할것

을 결의하고 꼬기 시작했는데 허우뚱하게 사려놓은 통구리는 100발도 되나마나한데다가 고르롭지도 않았다. 그것이 그대로 안정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말해주는듯싶어 순애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어머님, 저는 그저 분조일을 잘하자고 할뿐이에요.》

《그만뉘라. 반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찾아와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고 물어보기까지 하겠냐? 난 제자식을 허물할수 없어 맞갖지 않은 일이 생겨도 그저 나를 탓해달라구만 했다. 조용히 지내다가 시집이나 갈게지...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속태우며 성가시게 굴테냐? 오늘은 좀 말해보자.》

기어이 다짐을 받고야말듯이 어머니의 태도는 전에없이 단호하고 결연했다.

순애는 안타까웠다. 몇년전만 해도 자기 마음을 아랑곳 않고 어머니가 지청구를 하기만 하면 《어머니, 뭘 그러세요? 그럼 싫다는데요. 정 이리시겠어요.》하고 그 사랑깊은 품에 몸을 던지고 간지럼을 피우며 장난기 섞인 응석도 부리였었다. 그럴때면 《원 계집애두...》하고 욕하면서도 손으로 어깨를 그러잡고 어쩔수 없다는듯이 품어주던 어머니... 그러나 그 따뜻한 가슴은 지금 성장한 딸에 대한 불안으로 애처롭게 떨고있지 않는가. 순애는 어머니의 주름잡힌 얼굴가에서 흰 머리카락이 울화를 새기지 못하여 가볍게 젖는 채머리질에 하늘거리고있는것이 눈에 띄자 그만 참지 못하여 《어머니!》

하고 목메인 소리로 부르며 어머니의 손을 꼭 그러잡았다. 아버지도 없는 오누이를 키워오느라고 온갖 일에 마디마디 굶어진 그 거칠은 손에는 딸의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떨어졌다.

《어머님, 이 딸을 용서해주세요. 저는 어머님 몰래 창호동무한테 편지를 썼던거예요.》

《뭐라구?!》

《결혼식을 미루자고 그랬더니 창호동무한테서 회답이 왔는데... 어머님도 동의하는가고 물어오지 않았어요.》

《.....》

어머니는 억이 막히어 커다랗게 치뜬 눈으로 딸을 망연히 바라보기만 했다.

《어머니, 저도 피로와요. 하지만 제 마음을 꼭 이해하여주세요. 어머니만 응낙하시면 전 지금이라도 창호동무한테 편지를 쓰겠어요.》

《아이구- 네가 정말 환장을 했구나.》

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딸의 손을 뱉 뿌리치며 말했다.

《그러잖아도 오늘 창호, 그 사람한테 전보를 쳤다. 빨리 좀 왔다가라구.》

《아니, 전보를 쳐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반장이 돌아간 다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순도와 의논해보았더니 그 애 말이 매부를 오게 하여 일을 바로잡는수밖에 없으리라고 하더구나. 그래 나도 이젠 그렇게라도 해야겠다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오히려 선손을 쓴것을 다행하게 여기는듯 이렇게 말하고 돌아앉았다. 바늘끝도 들지 않을것 같은 그 고집스러운 모습을 애끓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순애는 얼른 자리를 일며 물었다.

《순도가 전보치려 언제 갔어요?》

《이젠 돌아올 때다.》

어머니의 이 통명스러운 대답을 확증하기라도 하듯 때마침 밖에서 발자국소리가 났다. 급한 발걸음소리는 보지 않아도 순도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도는 기름칠한 작업복을 걸치었는데 삐뚜름하게 올려붙인 작업모밀로 콧수머리가 한줄이나 내놓이였다. 순애를 마뜩지 않게 힐끔 흘겨보고는 모르는듯이 외면해버리는 것이 벌써 할대로 다 하고온 태도이다.

《그래 전보를 뭐라구 쳤니?》

《누이가 알아누웠으니 빨리 와봐야 한다고 했어. 왜?》

순도는 제사 시뚝해서 이죽거린다.

《거짓전보를 치고도... 어서 달려가서 취소하고와.》

《흥, 벌써 날아갔을 전파를 어디 가서 붙잡아오나. 》

《네가 정말... 그런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순애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상이 되었지만 순도는 천연스럽기만 했다.

《심리나 다녀왔더니 배만 고프네.》

하고 순도는 제손으로 점심을 찾아먹으려고 부엌으로 내려가버린다.

순애는 하는수없어 스스로 체신분소로 향하였다.

(어찌하여 순도까지 헤덤비며 나서는지...)

어머니의 웅고집으로 하여 가뜩이나 마음을 주체할길 없는데 순도의 엉뚱한 행동까지 덧짐으로 실려와서 순애는 아득해지기만 했다.

워낙 집안의 유일한 남자로 귀여움만 받고 자란 순도는 뽀머리 굵은데다가 곧잘 기분에 떠서 왕청같은 일을 저질러놓곤하여 어머니와 순애의 속을 태우기 일쑤였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엉뚱한 일을 하고도 잘한듯이 천연해있는 동생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순도가 친 거짓전보로 창호동무가 정말 달려오기라도 한다면 무슨 뉘대로 대하겠는가?)

갈마드는 생각으로 경황없이 발걸음을 채우치는데 동쪽길아래에서 가래를 줄과 함께 사려서 멘 권치도가

《분조장, 나 좀 보게.》

하고 불러세웠다. 그는 꾹 힘을 쓰며 길우에 올라서자 《원참!》하고 언짢은 기색으로 혀를 찼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작업반장이 모판짓는데 와서 야단쳐 오전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네.》

권치도는 화난듯이 어깨에 메였던 가래를 내려 짊으며 말을 이었다.

《모판을 너무 많이 만든다고 그러지. 그래 말해 주었네. 지금 막고있는 새땅에도 모를 내야 하지 않겠는가고, 그랬더니 반장의 말이 모판을 늘군다 해도 거기에 쓸 활장대가 없다는 것이었네.》

《걱정 마세요. 활장대는 작년에 쓰던것을 간수해 둔게 있어요. 그러니 우린 계획한대로 해야 해요. 시장하시겠는데 어서 들어가 식사하세요.》

권치도는 순애의 축간 얼굴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 다시 쓸수 있다면야... 그래 분조장은 점심이나 먹고 나타나나?》

그제야 순애는 자기도 점심전이란 생각이 피뭇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무심히 대답해버린 작년에 썼던 활장대를 올해에도 다시 쓸수 있겠는지 그것부터 확인해보아야 했다.

《먹지 않구요. 어서 들어가보십시오.》

순애는 이 말을 남기고 곧장 작업반창고로 향했다.

올해에 쓸 활장대는 작업반장이 갖춰주었다. 그것은 새땅에 널 모까지 타산한것이 아니었다. 작년에 썼던 활장대를 재생하지 못하게 된다면 큰 야단이다.

순애는 소우리가 자리잡은 둔덕진 발사래를 굽히 취올랐다. 작업반창고는 소우리옆에 결달렸는데 거기 추녀밑에 2년째 써온 활장대를 가려두었다.

활장대무지앞에 이르러 순애는 눈을 크게 치른 채 망연히 서버렸다. 간수할 때에 돌려놓았던 나래깃들이 마구 뜯기고 흩어져 활장대무지는 드러내 놓인채로 방임되고있었다. 고삐에서 풀어진 소들이 우리에서 벗어나와 그렇게 만들어놓은것이 분명했다.

순애는 불안한 예감에 모대기며 무지에서 활장대 하나를 뽑아 후리여보았다. 야무지게 탁 튕기는 소리를 내며 꺾어졌다. 다시 한대를 뽑았다. 이번에는 후리듯마듯 꺾어진다. 한대 또 한대... 비바람에 고삭아버린 활장대는 한대도 쓸것이 없었다. 워낙 2년동안이나 써서 수명을 다했다고 볼수 있는 활장대이기도 했다. 그래도 산이 멀어 나무가 그리운고장이라 버리기 아쉬워서 쌓아두었던것이였다. 그러나 현실적요구의 절박성은 그런것을 시인하게 하지 않았다.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는데 내가 왜 자주 와서 살피지 못했는가. 이제 반원들을 무슨 얼굴로 대할가? 또 활장대감은 어디서 구하고...)

순애는 이런 후회와 자책에 싸이어 고개를 수긋하고 걸음을 옮기다가 뺑상모판 가까이에 이른것을 깨닫고 머리를 들었다. 모판에는 벌써 반원들이 나와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일손을 잡을념을 앓고 동막이공사장쪽을 바라보며 서있기만 했다. 이꼴리듯 그쪽에 눈길을 돌린 순애는 뜻밖의 광경에 그만 걸음을 멈추고말았다. 동막이에 붙었던 반원들이 몽땅 이쪽으로 밀려오고있는데 그 앞장에는 리종수가 서있는게 아닌가.

(지시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젠 자신이 직접 나서서 반원들을 이끌고있구나.)

이때 리종수도 순애를 알아본듯 고개를 번듯이 쳐들고 곧추 순애를 향하여 걸어왔다. 걸기에 씨엿씨엿 걸어오고있는 그의 모습은 훨훨 날아오는것만 같았다. 다른때같으면 가슴이 섬적해졌을 순애였지만 오늘은 왼손으로 옷고름을 꼭 잡아 잡고 (바른손엔 창고에서 들고온 활장대가 쥐여져있었다.) 침착하게 작업반장을 맞이했다.

《왜 지시한대로 작업조직을 하지 않았소?》

리종수는 순애앞에 두발을 벌리고 섰다.

《지시한대로 우린 거름도 실어내고 모판도 만 들고있어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도 봤어. 이 반장의 체면을 봐주느라고 저기에 저렇게 많은 로력을 불었나?》

리종수는 순애의 바른손에 쥐여있는 활장대를 힐끔 스쳐보더니 말을 이었다.

《그래 아직도 색일수 없어 그런걸 들고다니느냐? 활장대무지까지 가 봤으면 이젠 일이 어떻게 되여야 하리라느것쯤은 생각해야지...》

《아니예요. 모판은 꼭 늘려야 해요. 동막이를 완성해야 하니까요.》

《아직도 네가?!》

리종수는 사납게 미간살을 모아붙이며 분노를 터뜨렸다.

《난 네가 공명심으로 이렇게까지 들떠버린줄은 몰랐다.》

《아-니, 제가 무슨...》

《그래 이게 뭐냐? 농사차비는 어찌 되던 큼직이 동이나 하나 막았다구... 너는 그렇게 이름내고 가버릴 사람이지만 우린 이 땅을 타고앉아 농사를 지을 사람이야.》

《아저씨!》

옷고름을 잡아잡은 순애의 왼손이 바르르 떨리다가 기운없이 내려졌다. 활장대도 땅에 떨어졌다.

《내가 시킨대로 바로잡거나 해라!》

리종수는 이렇게 언명하고 발길을 뚝 돌려세웠다.

순애는 흐려진 시야로 희미하게 어릿거리는 반장의 뒤모습을 쫓다가 그만에야 그 자리에 팔짱 주저앉았다.

(나의 일을 그렇게만 생각하니 어머니의 마음도 그렇게 들춰놓은게 아닌가? 아, 어쩌면 반장이 저씨가...)

참고참았던 서러움이 눈물로 왈각 솟아올라 두 손으로 얼굴을 싸잡았다.

동막이현장으로 나가다가 반장을 만나 이끌려온 반원들과 모판에 나왔던 반원들이 순애를 에워쌌다.

《우리가 여기로 안오겠다고 우겨서 반장이 더 성났던게야.》

누군가 허아래소리처럼 하는 말을 권치도가 받았다.

《다 내탓이야. 활장대 말만 꺼내지 않았어도... 분조장, 새기라구.》

《아니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순애는 눈물로 흐려진 눈길을 들었다. 동정과련민의 정을 가득 담고 자기를 지켜보고있는 반원들을 가려보자 입술을 감뻘며 일어섰다.

《왜 이렇게 모여섰나요? 우리들이 하자고 스스로 펼쳐나섰던 일이 아니예요.》

《그래도 분조장이 가슴아픈 뒤말을 듣는걸 보구서야 어떻게...》

순애는 이 동정의 말이 가슴에 더 맺혀와서 결연히 말했다.

《아니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물러설수 없어요. 전 이 땅에 대풍을 마련하기전엔 어디도 안가겠어요.》

《?!》

반원들은 놀라며 순애를 지켜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파릿한 얼굴은 근엄한 빛을 띠었는데 약간 벌린 입술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라고 안타까이 청원할듯이 떨리고있었다.

《순애.》

인숙이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눈썹에 웃고름을 가져갔다. 반원들도 숙연히 침묵하구있었다.

순애는 감시 고개를 떨구고있다가 발앞에 떨어진 활장대에 눈길이 미치자 그것을 주어들었다.

《활장대도 베여와야겠어요. 산이 멀긴 해도 자동차를 리용한다면... 그 일은 제가 맡아하겠으니 어서 헤쳐가서 일들을 하세요.》

순애는 이렇게 말하고 바다쪽을 향하여 먼저 발걸음을 땀다. 제일 중요한 동막이현장에 가려는것이다. 리종수한테 이끌려왔던 반원들이 뒤따랐다.

순애는 줄줄이 따라선 그들을 보자 다시금 눈시울이 달아올랐다. 서러움에서가 아니었다. 자신

을 이겨넘은 기쁨과 함께 따라나서준 반원들에 대한 고마운 정이 밀물처럼 가슴가득히 차올랐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이른새벽에 순애는 활장대를 베이러 일손이 켜 반원 넷을 데리고 산으로 떠났다. 농장의 자동차가 군에서 화학비료를 실어오기 위해 뛰고있었는데 순애의 부탁을 받고 운전수는 올때에 산에 거치기로 약속해주었던것이다.

4

드문드문 서있는 활장대감을 찾아 오르는 사이 순애는 산중턱을 넘어섰다. 개암나무, 가독나무의 잡관목산발은 돌서덜로 이뤄지고있었다. 키낮은 딸기나무와 분지나무덩굴이 치마자락을 물어뜯고 손등을 긁었다.

(순도가 친 전보를 취소하지도 못했으니 전보사연을 끝이끝대로 믿고 창호동무가 온다면... 아니, 아침차에 벌써 왔는지도 몰라. 그가 나의 일을 어떻게 알아주려는지...)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 불안과 안타까운 생각으로 하여 순애는 자기가 어떤곳에 들었는지 하는것도 알지 못하였다.

(거짓전보를 쳤다는것을 안다면 얼마나 원망할가. 순도가 그런 엉뚱한짓을 하다니... 어마나!)

순애는 가독나무잎으로 가리워진 웅덩이를 잘못 밟고 풍덩 물러앉아버렸다. 그 서슬에 휘여잡았던 참나무가지를 놓았는데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순애의 얼굴을 휘갈겼다. 왼볼에서 불이 확 이는듯싶어 감았던 눈을 떴다. 그때 저만치 앞에서 있는, 밧그스름히 물이 오른 미끈한 시당나무가지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손짓하듯 바람결에 흐느적거리었다.

(공연히 혼자생각만 하다가 저걸 놓칠뻔했지.)

순애는 왼뺨이 확확 달며 저러나는것도 잊어버리고 그리로 뛰어갔다. 일찌기 도끼날을 받아 검스레 등걸이진데서 돌아오른 2년생의 가지는 세대나 되었다.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베이자 우에 또 맞춘한 가지가 눈에 띄었다. ...연신 나타나는 활장대감들...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이 베여안은 단이 아픔에 넘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한것은 피로운 상념을 잊어버리고 농사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 미끈한 나무가지들을 모판마다에 활등처럼 휘여박고 비닐박막을 씌워놓으면 그속에서 움터날 벼싹들... 그 귀엽고 정다운 모양을 그려보느라면 마음은 즐거워지기만 하였다.

순애의 발앞에서 날아오른 메새 한마리가 푸릇푸릇 깃을 치며 저만치 가서 다급스레 뽕뽕뽕 우짚었다.

《분조장동무-》

반원들이 불러대는 목소리가 먼데서 메아리쳐왔다. 그제야 순애는 활장대감을 찾아다니는 사

이 산정까지 올라와버린 자기를 깨달았다.

《내려가요-》

순애는 입에 손나발을 해대고 길게 소리치고는 나무단을 걸어안고 산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반원들이 기다리는곳에 이르렀을 때 한 반원이 짐을 받으려고 다가서다가 소스라치듯 놀랐다.

《어디서 굴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그 얼굴은...》

그제야 순애는 상채기난 왼쪽 볼이 아려나고 넘어지며 참나무가지에 후려치웠던 일이 상기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활장대감들이 연신 눈에 띄지 않았던가. 순애는 커다란 나무단을 내보이며 조용히 말했다.

《난 운수가 좋았어요. 활장대감발에 들었던거예요.》

...트럭에 활장대단들을 싣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날이 저물었었다. 반원들이 달려나와서 자동차를 에워쌌다.

《늦었군요. 우린 걱정스러워 막 마중을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베느라고 늦었지.》

《정말, 이거면 우리 모판의 두배도 가리우겠는걸.》

반원들이 이렇게 치하를 아끼지 않고 있을 때 인숙이 어머니가 순애를 한옆으로 불러냈다.

《우리 일이 세상에 소문나게 되었어. 오늘 우리 한데 신문기자가 왔더랬어.》

하고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하늘색 양복을 입은 젊은 기자는 먼저 작업반장한테 들리어 이야기를 듣고 나온듯 새땅을 찾는 현장을 둘러보며 이게 정말 될만한 일인가고 따져 묻더라는 것이다. 민음성이 적어하는 태도여서 인숙이 어머니는 내키지 않는 대답만 했다. 그러자 그는 이내 이쪽의 내숙을 알아차린듯 말없이 옷동을 벗어놓고 일손을 잡았는데 어떻게든 불임성이 좋은지 잠시후 친숙해져서 인숙이 어머니스스로가 분조의 일들, 특히 분조장이 기울여온 애바른 노력에 대해 허물없이 다 이야기해주었다는 것이다.

《...내 얘길 다 듣고 그 기자선생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건 정말 신문에 낼 일입니다.> 그리고나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놓다가 그만둔 것도 현장으로 가겠지. 거기에서 마사진 삭도활차를 주어들고 이리저리 살피더니 이만한거야 잘 만들어 놓을수 있다고 하지 않겠나. 너무 쉬운 장담같아서 우리는 바로 그것때문에 새땅을 찾아가 잃는가 하는 갈림길에 섰던거라고 말해줬지. 그러자 빙긋이 웃으면서 수리분조가 어느쯤에 있는가고 물어보지. 나는 가리켜주면서도 기자선생이 수리분조를 알면 어쩔텐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왜 찾는가고 되물었단다. 그러니까 한다

는 소리가 <나도 기계를 좀 알지요. 어디 해봅시다. 하루밤이면 깎을수 있을것 같은데...> 하고 그 활차를 들고 씨엿씨엿 걸어가겠지. 글썄 우리 일을 그렇게 잘 알아주다니...》

인숙이 어머니는 감심하여 혀를 끝끝 차기까지 했다.

《정말 고마운분이군요. 이제 제가 찾아가 인사하겠어요.》

순애는 옷을 갈아입고 수리분조로 가보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갔다. 이제라도 삭도만 성공된다면... 그러나 집에서 그른 맞아준것은 어머니의 책망이었다.

《너 정신있니? 그 사람이 오리란걸 알면서 어디를 쏘다니니?》

《창호동무가 왔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순애는 뛸뛸 가슴을 부여안았다. 하나 어머니의 얼굴은 노여움과 실망의 빛으로 컴컴하게 그늘지고있었다.

《아가 반장 아들 경수가 그 사람이 두고간것이라면서 저 종이꾸레미를 가져왔더구나. 반장을 만나 네 말을 듣고는 돌아가버린게지. 그렇지 않다면 밤이 깊도록 안들어올 까닭이 있느냐?》

종이꾸레미는 의롱앞에 놓여있었다. 순애는 편지라도 남겨놓지 않았을가 해서 헤쳐보았다. 약품들과 어머니에게 보내온 등고리적삼 등이 나열뿐이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버렸다니...

어머니는 딸의 해쓷해진 얼굴에서 상처차국까지 찾아보자 가슴이 찢기는듯 한숨만 내쉬었다.

《내 잘못이지. 생똥스레 전보치게 해가지고... 저 애 정상을 어떻게 보나...》

순애는 어머니의 녀두리가 가슴을 저미여 집에서 뛰쳐나오고말았다.

어디를 어떻게 걸었는지 어둠속에 회색해보이는 보도랑이 앞을 막아나섰다. 순애는 그앞에 발을 멈추고 섰다가 저도모를 설음이 왈칵 끼쳐와서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반장의 말만 듣고 돌아가다니... 이 가슴에 간직했던 말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가버리다니...)

야속한 생각이 밀물처럼 밀려들어 순애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잡고 소리없이 울었다.

한창 울고나자 하늘의 별들이 내려앉은 보도랑물이 무언가 정답게 속삭여주는것만 같았다. 순애는 수면에 어리는 별빛을 하염없이 지켜보다가 울음에 지쳐 자기를 잊어먹고 장난에 팔려버린 아이처럼 그 별빛을 건져보려고 살그머니 손을 물속에 잠그었다. 순간 별빛은 미끄러지듯 멀어지며 부서진다.

(창호동무와 함께 그리였던 꿈도 이렇게 깨여지고마는게 아닌가?)

도소재지교외의 바다가를 거닐며 주고받았던

말들, 고향땅에 부치는 자기의 꿈을 소중히 여겨 자신도 농촌에 성능 좋은 농기계를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낼것이라고 그렇듯 열정을 담아 말하였던 그 약속... 그런데 창호동무는 이제와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게 아닌가. 내 의사를 들어보지도 않고 가버릴 때엔... 버티어보렴, 어디 얼마나 견디나 보자는 심사겠지. 그앞에서 어머니는 얼굴이 새까매져 한숨만 쉬고 또 나까지 울고...

순애는 불시에 사무쳐드는 자기에 대한 불만에 싸여 보물에 잠그었던 손으로 물을 활활 저었다. 이때까지 모대겨왔던 모든 피로운 생각을 깨끗이 털어버리듯이. 그런 다음 자리를 일어 수리분조로 향했다. 삭도가 놓일 동막이공사장을 눈앞에 그려 보면서...

언덕산에서 줄줄이 내달릴 삭도, 이내 찾아낼 기쁨진 새땅, 거기에서 벼가 소리치며 자라나게 하리라.

래일을 그려보는 보람속에 어느덧 수리분조에 이르렀다. 밤인데도 수리분조는 쉬지 않고있었다. 목공실에선 기계톱소리가 짜르릉거리고 야장간에선 버림질소리가 야무지게 튕겨나왔다.

순애는 활력에 넘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다가서다가 선반기실앞에서 우뚝 발을 멈추고 눈을 휘둥그렇게 치떴다. 반쯤 열려있는 문사이로 작업장이 보이는데 선반기앞에 순도와 가지런히 선, 나들이 옷을 벗어버리고 와이샤쓰바람으로 일손을 잡고있는 사람은 창호가 아닌가. 늘 인상 좋게 떠돌던 서글서글한 웃음대신 긴장한 눈빛으로 돌아가는 선반기를 주시하며 순도에게 뭔가 설명해주고있는 창호, 인숙이 어머니가 기자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창호동무였구나!

순애는 가슴을 치는 걱정이 하도 커서 마음은 선반기실로 달려들어가지만 못박혀버린듯이 발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순애는 가슴을 들먹이며 간신히 선반기실문턱을 넘어섰다.

《창호동무!》

창호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커지면서 움직일줄 몰랐다. 온 하루 먼산에 가서 나무가지에 굽히여 그 동그스름한 불편에 활킨 자리가 난 순애의 모습이 서름하게 안겨져서인지... 그러나 상글 하게 피어나간 눈섭아래 기쁨으로 빛나는 순애의 눈길과 마주치자 창호의 얼굴에 미소가 확 피어났다.

《왜 쉬지 않고 나왔소?》

《.....》

물어놓고보니 자기로도 싱거운 말을 했다고 생각되는듯 창호는 빙그레 웃으며 다시 입을열었다.

《정말 수고가 많았소. 난 여기 와서 다 들었소.》

《집에도 들리지 않고, 어쩌면...》

눈에 이슬이 뿜 돌며 흐르자자 순애는 손을 뒤의 문설주로 가져갔다. 그저 서있기엔 걱정이 너무도 커서 몸을 지탱하기조차 어려웠듯 순애는 문설주에 기대이면서 고개를 수그리었다. 흐르는 눈물이 상처가 비낀 볼을 적시었다.

이때 창호와 누이를 번갈아보고있던 순도가 자리엔 자기가 방해물로밖에 되지 않음을 깨달은듯

《에 더위, 소풍을 좀 해야지.》

하고 모자를 벗어 땀발도 서지 않은 이마를 뺨뺨 문대며 밖으로 나갔다. 순도의 그러는 양을 보고있던 창호와 순애는 서로 눈길을 마주쳤다. 그러다가 순애가 젖은 눈을 깜박이며 미안한듯이 먼저 말을 뱉다.

《바로 나때문에 순도가 거짓전보를 치는 소동을 일으켰던거예요.》

《순애동무가 어떻게 했기다가...》

《아시면서도... 고향땅에서 농사를 더 지어보고 싶은 저의 마음을...그런데 창호동무의 그런 편지를 받게 되리라곤...》

순애는 얼굴을 활짝 붉히며 뒤말을 잊지 못했다. 상봉의 기쁨이 잦기도전에 그 말부터 꺼내게 된 자신이 민망해졌기때문만도 아니었다. 바로 그 일을 두고 그는 얼마나 안타깝고도 피로운 심리적 고충을 당해야 하였던가.

《참 성미두... 그러니까 볼에 상처를 내고다니지...》

창호는 가슴속의 중한 이야기를 나누기엔 아직 마음을 사로잡은 상봉의 흥분이 큰듯 이렇게 웅으로 돌려버리며 선반기쪽으로 돌아섰다.

《지금 순애동무 사업에선 삭도를 놓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것 같은데... 깎던걸 빨리 깎지요.》

하고 선반기를 다시 돌리는 창호의 얼굴엔 서글서글한 웃음대신 전에없이 신중한 빛이 비껴들고 있었다.

순애는 농기계공장에 갔을 때처럼 묵묵히 창호의 일손을 도왔다.

5

동막이공사장으로 삭도줄이 길게 내리드러운 산언덕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5작업반성원들뿐 아니라 소식을 들은 모든 농장원들이 삭도개통을 보러 와서 농장의 경사처럼 흥성거려였다.

《참 재간도 좋군요. 흙집이 뚱뚱 떠서 저렇게 먼데까지 날아가게 한다니...》

《우리가 몇달 걸려서 못한 일을 하루밤사이에 제격 만들어놓았으니 정말 하늘의 별도 따올 재간이지요.》

사람들이 삭도설치의 마지막일손을 다그치고있는 창호를 지켜보며 주고받는 소리에 어깨가 들썩해진것은 순애 어머니였다.

《저 사람은 이런 일쯤은 별로 크게 여기질 않

는다오. 내가 갔을 때 공장구경을 시켜주면서 집
채 같은 기계를 가리키며 <어머니, 이걸 제가 보
름동안에 조립해놓은거랍니다.> 하질 않겠나요.》

창호가 오늘과 같은 일을 이뤄놓느라고 집에도
들리지 못했다는것을 알게 된 순애 어머니는 그
저 얼굴이 환해서 사위에 대한 자랑이다.

《순애가 농장의 보배라고만 생각했더니, 형님
은 정말 사위를 잘 골랐어요.》

《내가 골랐나, 저희들끼리 뜻이 맞아서 된 일
인걸. 전세월엔 부모가 딸자식 살릴 걱정이 컸지
만 지금은 놔둬도 돼요. 사람 보는 눈도 우리보
다 낫지요.》

순애 어머니는 사위에 게묻히여 이렇게 딸자랑
도 했다.

《순애는 정말 열남이 짜지요. 저 개펄땅을 일
구자고 들고나서서 기어이 해내는것만 봐도... 들
자니 안되는 일이라고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는
보양인데...》

이런 말들이 오고가자 리중수는 듣기 거부하여
슬며시 자리를 떴다. 일이 이렇게 번질줄이야,
연분이 깊은 한쌍의 청춘이 어떤 엄청난 일을 이
루어놓았는가! 오늘아침 삭도농기공사를 시작할
때 자기의 심중을 비쳤더니 관리위원장은 사뭇
신중한 기색으로 말했었다.

《주체교육을 받고 자라난 우리 젊은이들을 똑
똑히 알아야 하오. 그들의 주인다운 립장과 혁명
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뒤떨어지고말지, 쓸
모없는 폐물도말이요.》

아픈 지적이였다. 하지만 눈앞에 벌어진 광경
은 그것을 실증하고있지 않는가. 내가 그냥 우직
스럽게 순애의 발기를 깔아뭉갠더라면 사람들이
오늘처럼 기쁨에 겨워 흥성거리겠는가.

리중수가 이런 자책에 싸여있는데 관리위원장
이 그를 불렀다.

《반장동무, 이젠 시작해보도록 하지. 다 된것같
은데.》

리중수는 바가지통에 흙을 퍼담고있는 순애를
돌아다보았다. 오늘 여기 주인은 분조장이 아닌
가. 그는 순애곁에 다가서며 조용히 불렀다.

《분조장.》

은근하고도 부드러운 반장의 목소리에 순애는
놀란듯이 리중수를 쳐다보았다.

《오늘은 동무의 소원이 이뤄지는 날인데... 어
서 주관해서 개통을 시작하라우.》

순애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보이고 창호한테로
다가섰다. 창호는 다 설치해놓은 삭도를 어느 한
곳 미진한 구석이 있을세라 하나하나 살펴보고있
었다.

《이젠 시작해보지 않겠어요?》

창호는 순애를 얼핏 스쳐보기만 할뿐 아무 말
도 없이 삭도나사를 푹푹 조인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밤 상봉이후 전에없이 신중한 얼굴로 묵묵

히 일손만 잡아온 창호였다. 순애는 그의 심중을
헤아리듯 웃고름을 감아잡고 조용히 서있었다.

이때 관리위원장이 다가왔다.

《이젠 다 되지 않았소?》

하고 관리위원장이 말을 걸어서야 창호는 돌아
섰다.

《예, 다 됐습니다.》

《그럼 첫 삭도를 띄워보시오.》

《아니, 제가 어떻게...》

《오늘 일에선 동무도 우리와 함께 같은 주인인
데 뭘 그러오?》

창호는 난처한듯이 뒤덜미를 긁으며 사람들을
돌러보았다. 믿음을 담은 친근한 눈길들이 고무
하듯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창호는 잠시 머뭇거
리다가 사람들속에서 인숙이 어머니를 찾아보자
말을 건넸다.

《난 첫 삭도바가지를 아주머니가 밀것을 제기
합니다.》

《아-니, 뭐라구요!》

첫 삭도개통의 영예가 자기한테 차례질줄은 꿈
에도 생각 못했던 인숙이 어머니는 소스라치며
질겁했다.

《아유- 반가운 손님을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
다고 이리시네.》

《난 아주머니가 새땅을 찾기 위해 여기 흙을
등짐으로 나를 발기까지 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
다.》

인숙이 어머니는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순애한
테 매여달렸다.

《분조장, 난 어떻게 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앞
에서...》

딱한 립장을 어리광으로 모면해보려는 아이와
도 같은 그의 행동에 사람들은 즐겁게 웃었다.
그러나 순애만은 웃지 않았다. 인숙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한다.

《아주머니가 삭도를 남던져 밀게 되였다는것을
알면 인숙이가 얼마나 기뻐하겠나요.》

인숙이 어머니는 어른의 타이름에 고즈넉해진
순진한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더니 허리끈을 줄
라매며 삭도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삭도줄이 늘
어진 언덕아래를 잠시 굽어보다가 눈길을 들어
남쪽을 바라보았다. 물건너 친정이 있는 교동땅
에 부친 애끓는 마음인양 가느스름히 좁힌 그의
눈에 이슬이 펴 돌고있었다.

다음순간, 인숙이 어머니는 입술을 꼭 옥물고
삭도를 밀기 시작했다. 레루장의 수평궤도를 따
라 활차 구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 바가지는 삭도
줄에 옮겨앉았다. 그러자 인숙이 어머니는 당황
하기 시작했다.

《이걸 어찌나, 저 혼자 달아나요!》

순애가 뛰어들며 소리쳤다.

《놓으세요!》

그 순간, 삭도바가지는 인숙이 어머니를 뿌리쳐버리고 쓸살같이 내달렸다.

《멋지구나-》

《하하하...》

확자한 환성과 웃음소리에 떠받들리워 바가지는 공기를 가르며 소리를 내면서 허공 날아내려가 동막이 현장에 이르러 떨어졌다.

궁둥방아를 짊은 인숙이 어머니는 너무도 놀라운 광경에 눈이 휘둥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고있다가 순애가 내어드는 손을 잡고 일어서더니

《꿈같애. 정말... 어찌면...》

하고 순애의 품에 다시 매여달리며 마구 얼굴을 비비었다. 그 어리광부리듯하는 모습에 창호는 저도모르게 눈을 습벅거렸다.

분조에서 나어난 축인 순애, 날씬한 몸매에 머리수건을 가튼히 졸라맨 모양은 아직 학생티를 가지지 못한듯이 애되어보이지만 여기 분조에선 반원들이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진심으로 의지하는 가장 친밀한 옷사람으로 되고있는게 아닌가.

저렇듯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고있기에 그처럼 고향을 뜨기 아쉬워하는게 아닐까? 불현듯 갈마든 생각으로 하여 창호는 사람들이 다가와 예뻐싸며 손을 잡아줄 때까지 자기를 잊은 사람처럼 서있었다.

삭도가 은을 내고 농장의 사로청원들까지 떨쳐나서서 동막이공사는 이틀후에 마무리짓게 되었다.

6

썩- 처절썩...

파도가 멍성장처럼 말리며 다가와선 뚝에 이르러 휘딱 뒤번져지면서 물갈기를 날리었다. 밀물이 서풍에 실려 급히 밀려들고있었다. 강물처럼 좁아졌던 바다가 폭을 넓히며 굵실굵실 불어올랐다.

동막이를 끝낸 폭우를 순애와 함께 견고있는 창호에게는 뚝에 마주쳐 키를 솟구는 파도가 자기 가슴을 치며 무언가 호소하는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여기에 와서 보고 들을 모든 일들이 지울수 없는 인상으로 마음속에 사무쳐오기때문인지도 몰랐다.

농기계공장의 유능한 기능공이 왔다고 작업반장들이 저마다 청하여 돌아보게 된 농장의 농기계창고들과 건조장들, 모내는기계며 벼수확기며 종합탈곡기들... 농민들의 농사일을 대신하는 그 소중한 농기계들에서 전문가의 손이 제때에 미치지 못했음으로 하여 마모되고 파손된 개소를 찾아보게 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저리었던가. 더더구나 가슴아픈 일은 농촌기술혁명의 앞장에 서야 할 순도가 그 일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판꿈을 꾸고있는 사실이었다.

바로 오늘아침이었다. 래일 창호가 떠나가게 된다는것을 알고 순도는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

았는데 농촌에선 청춘의 보람을 느낄수 없기때문에 매부를 따라가 큰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겠다는 것이었다. 누이가 농촌사업을 위해 그처럼 고향을 뜨기 아쉬워하는 반면에 동생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있다는것이 사뭇 놀라운 일이였지만 자기를 믿고 한 처남의 청인이라 그 문제는 좀 두고보자고 좋은 말로 밀어놓았던것이다.

어떻게 하면 걸땀만 들어 모자를 비뚜름히 제껴 쓴 순도를 바르게 이끌어줄수 있겠는지, 아직 농촌사업에 힘들고 어려운 구석이 많이 남아있는것만큼 혁명하는 립장과 높은 자각을 가지고 나서야 하련만... 그래서 그도 누이처럼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가.

불현듯 창호의 눈앞에 삭도바가지를 밀어보고 기쁨에 겨워 순애의 품에 안겨들던 인숙이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큰 믿음을 받고 사는것처럼 보람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창호는 정찬 눈길로 순애를 돌아다보았다. 순애는 고개를 다소곳이 수그린채 걷기만 했다. 창호가 자기 생각에만 골몰하지 않고 순애의 마음을 헤아려보았더라면 그가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에 싸여있겠는가 하는것을 짐짓 눈치차렸을 것이다.

순애는 창호가 이제 자기 생각에 대한 의견을 말하리라는 기대속에서 은근히 불안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있었다. 그럴만도 한것이 그사이 창호는 순애의 남다른 결심에 대해 듣기만 했을뿐 아직 거기에 대해 한번도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싸여 진중한 얼굴빛을 짓고있는 창호였다. 하지만 순애는 심장의 예민한 감각으로 오늘은 그가 자기 심중을 더 놓으려고 한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런데 창호는 여전히 무거운 얼굴로 좀처럼 말을 떼지 않는것이다.

(진정 나를 이해하고 찬성한다면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하지 않으련만...)

순애는 버릇처럼 웃고름을 만지작거리었다.

파도가 더 세차게 밀려왔다. 전에 창호와 나란히 걸었던 도소재지교외의 바다는 그리도 조용하더니만 오늘 고향의 바다는 왜 이렇게 뒤설레기만 하는지. 동쪽을 치는 물결이 흰갈기를 날리면서 련방 다우쳐오고있었다. 마치 다할길 없는 순애의 마음과도 같이.

《순애동무.》

문득 창호가 부르는 소리에 순애는 그의 상기된 얼굴을 얼핏 쳐다보고는 세차게 뛰는 심장의 고동을 이길수 없어 고개를 수그리며 나직이 말했다.

《어서 말씀하세요.》

창호는 잠시 동간을 두었다가 말을 뱉었다.

《웬일인지 나의 머리에선 삭도바가지를 밀어보

고 기뻐하던 아주머니의 모습이 떠나지 않는군요.》

순애는 뜻밖의 말에 한순간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나 차라리 그 말이 숨가쁜 긴장을 늦춰주며 한결 마음을 침착하게 다잡아주는 것이었다. 그럴 것이 인숙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그에게 있어서 더없는 자랑이며 기쁨이기도 하였다.

《그 아주머니는 진짜 농장의 주인이예요. 누가 보건말건 늘 일을 찾아하군하지요.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할수 있는것은 지난날의 불행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남달리 모지른 결심을 품고있기때문이지요.》

하고 순애는 원쑤놈들에게 남편을 잃은 너인이 애지중지 키워온 외동딸을 도시에 시집보내고 거기 가서 살다가 고향땅을 잊을수 없어 조카딸 인숙이를 데리고 돌아온데 대해 이야기하고나서 말을 이었다.

《그 아주머니 친정이 저 교동도에 있어요. 사위한테서 돌아올 때엔 저 교동도에 대한 생각을 지을수 없었기때문일거예요. 저렇게 빨리 건너다보이는걸요. 저 땅을 바라볼적마다 그 아주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나요. 그래 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앞당기겠다고 그리도 열성이지요.》

창호는 묵묵히 남쪽에 시선을 겨누었다. 란무하는 파도너머로 교동도가 의연히 소리치면 화답할듯이 가까와보인다. 황토색의 산굽이며 점점이 널린 시누런 초가집들이며... 퇴색한 그림처럼 생기를 잃어버린 섬, 한지택으로 잇닿아고 한파속에 숨쉬며 살아왔던 조국땅의 한부분이어서 사람들은 생활이 펴이고 행복이 커갈수록 저 땅을 바라보며 더욱 일손을 다그쳐가는데 아니겠는가.

인민의 갈망, 민족의 숙원이 서리서리 엉켜있는 저 땅, 한시도 미룰수 없는 통일의 절절한 념원이 마구 가슴을 두드리는것만 같았다. 하여 창호는 이제까지 해온 상념들을 한고리에 꿰어놓듯 절박한 심정으로 생각을 달리였다.

원쑤와 직접 대치하고있는 여기 농업전선을 지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삭도가 완성되자 1,500만톤 알곡고지점령에서 한걸음 크게 떼었다고 그리도 반가와하던 농장원들, 농장에 갖춰진 농기계들을 살펴줄것을 바라던 작업반장들, 그들을 도와 농촌기술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한다면... 그렇다. 순애의 결심을 찬성하고 결혼식을 한해 미룬다고 하여 근본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자기 고향을 공산주의락원으로 꽃피워보려는 그의 아름다운 지향에 더 큰 희망의 날개를 활짝 퍼올리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럴 때에야 순도도 바로 이끌어줄수 있을것이다. 농촌이 아직 도시에 비해 뒤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구석이 많다고 하여 저마다 도시생활을 동경한다면 누가 농촌혁명을 담당하여 수행하겠는가. 힘들고 어려운데가 있기때문에 바로 우리 청년들이 혁

명하기 위해 농촌으로 진출해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남쪽땅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이고장에서 걸음걸음 원쑤를 치는 심정으로 사회주의농촌건설에 적극 헌신하여 통일의 문을 하루빨리 열어젖혀야 하지 않겠는가!

《순애동무.》

창호는 심장의 박동을 귀전에 느끼며 순애를 향하여 돌아섰다.

순애는 흥분에 떨리는 창호의 목소리에 웃고름을 꼭 감아잡으며 고개를 돌렸다. 창호는 뭔가 안타까이 찾아보려는듯 눈시울이 파르르 떨리는 순애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을 건넸다.

《나는 동무의 편지를 받아보고 그 결심이 보통의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정을 이루는것이 한해 늦어진다는 아쉬운 생각을 놓을수 없었소. 그래 여기로 달려오면서도 동무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을가 하고 속으로 은근히 탄 점을 쳤지요. 그렇지만 정작 와서 모든것을 직접 체험해보고서야 그게 얼마나 속물적이었던가 하는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

《나는 동무가 고향의 앞날과 고향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속에서 행복을 찾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았소. 그것은 나서자란 고향땅을 더 빨리 발전시키려는 깨끗한 량심에서 출발한것이라고 생각하오. 그것이 값있고 소중한것이라면 어떻게 순애동무만의 량심으로 되어야겠소? 그러한 량심은 당이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친 혁명적인 량심이요. 아직 조국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쪽땅을 바라보고있어야만 하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청년들을 더 보람찬 투쟁으로 부르고있는게 아니겠소! 더 길게 말하지 않으려오. 한번 정했던대로 돌아오는 5. 1절날에 우리 결혼식을 합시다.》

《예?!》

순애는 창호의 말을 어떻게 리해하면 좋을지 몰라 창백해진 얼굴을 반듯이 쳐들고 저으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는거예요?》

《어떻게 하긴... 결혼식을 하고 내가 여기 와서 일하면 될게 아니요. 둘이 함께 농촌혁명의 주인이 되잔말이요.》

순애는 웃고름을 꼭 감아잡은채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창호를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황황히 불타는 창호의 눈빛이 너무도 부시여서 이길수 없는듯 다시 고개를 수그린다. 그 순간, 순애는 온몸에 파도쳐오는 세찬 걱정을 참을수 없어서

《창호동무!》

하고 부르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끝없는 행복이 눈물로 되어 솟아흘렀다.

창호는 들먹이는 순애의 어깨를 꼭 그리잡고 흥분에 gal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오늘의 맹세를 잊지 말고 내내 억세게 살아갑시다.》

청춘의 아름다운 사랑을 축복하려는듯 발아래 동쪽에선 파도가 더욱 높이 키를 솟구고있었다.

짜- 철썩, 처절썩!

×

이튿날아침, 창호는 순애일가와 리종수, 그리고 반원들의 전송을 받으며 떠나갔다.

창호를 태운 빠스가 배기가스를 날리며 언덕진 구룡을 돌아가버리자 사람들은 서로서로 눈길을 마주치며 웃음지었다. 리별의 서운함보다도 다시 맞아들일 사람이라는 믿음과 기쁨이 더 컸던 것이다. 결혼식을 하고 신랑이 신부한테 오게 되리라니...

순애 어머니는 너무도 놀라운 사실에 그저 자신이 꿈속에 있는것만 같았다. 녀자란 세상에 태여날 때부터 남의 집 문턱을 넘어서 운명을 타고 나서 집난이라고 불리워왔으며 또 한번 시집만 가면 출가외인이라고 그 집사람이 되고마는것이 옛날부터 정해진 법도가 아닌가. 그런데 누구나 다 부러워할 좋은 자리에서 김창호가 순애를 따라 여기 끝나루마울로 장가를 오겠다니...처음엔 너무도 생각밖이여서 곧이들으려 하지 않다가 창호가 순애의 분조장사업이 중요할뿐아니라 자기도 여기로 오면 더 보람스러운 일을 하게 되리라고 차근차근 깨우쳐주어서야 고개를 끄덕이었던 것이다.

생각하면 순애가 그토록 창호의 마음에 들었던것이 자랑스럽기 그지없다. 하긴 그 어디에 내세운들 빠지지 않을 순애가 아닌가. 아무렴 누가 낳은 딸이라구... 순애 어머니는 사위가 타고 떠나간 넓은 한길에 나서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싶은 심정이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성수나 할때 순도는 마치 자기를 잊어먹은 사람처럼 벗어주고 흔들던 모자를 주무르며 한열에 우두커니 서있기만 했다. 멋들어지게 제껴놓곤하던 양복저고리앞섶 한쪽이 안으로 접혀들어간것도 모르고 얼굴에 무거운 그늘을 드리웠다. 그것은 그가 자기 《꿈》이 깨어져버린 허전한 마음때문만이 아닌듯싶었다. 창호의 단호한 결심에서 반게 된 충격이 큰듯 무거워보이는 얼굴엔 생각깊은 진중한 빛도 깃들어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큰 충격을 받아안은것은 작업반장 리종수인듯싶었다. 그는 전에 없던 심각한 낮빛으로 빠스가 사라진 큰길을 점토록 지켜보다가 자기가 그대로 서있음으로 하여 다른 사람들도 돌아서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어서들 돌아가지, 창호동무야 이내 돌아올 사람이 아니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발길을 돌려세웠다. 그러나 리종수는 뒤떨어져서 혼자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순애는 반장의 행동을 눈여겨보다가 발걸음을 늦추어 그와 동행이 되었다. 하나 순애로서 무슨 말을 할수 있으랴.

묵묵히 걸음을 옮기던 리종수가 먼저 말을 뱉었다.

《내가 눈먼 일들을 했지... 순애, 지난 일을 너무 나무람게 생각지 말라구.》

《아저씨, 저한테도 잘못이 많았어요.》

《아니야, 순애는 속을 많이 태웠을거야. 내가 순애의 체기를 바로 들어준적이 없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새땅을 찾아놓는다 해도 순애가 가버리면 거기 농사는 헛탕치고말것이란 생각이 들었지. 누가 순애만큼 그 땅을 알뜰하게 가꿔낼가, 하고 생각할적마다 공연히 화가 나기도 했었지.》

《아저씨...》

순애는 가슴이 몽클해졌다. 그리고보면 분조장으로 손잡아 이끌어준 작업반장의 가슴속에는 의연히 자기를 아끼는 마음이 깊이 깔려있었던게 아닌가.

리종수가 스적스적 걸음을 옮기며 다시 말을 뱉었다.

《나는 순애와 같이 살고 일하면서도 순애의 마음속에 피여난 아름다운 꿈을 몰라봤는데 창호, 그 사람은 보았거든. 역시 로동계급의 심장이 달라. 이제 창호가 오면 우리 일이 더 잘 피이면서 모든게 잘되어갈거야.》

리종수의 굳어졌던 얼굴이 부드러워지면서 느슨한 미소가 피어나고있었다.

순애는 기뻐다. 작업반장까지 이처럼 기대해주는 창호동무, 그와 함께 이뤄놓을 앞날의 생활은 또 얼마나 희망 넘치고 보람찰것인가!

순애는 그날을 그려보듯 눈길을 들어 전야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프락또르들이 부지런히 논을 갈아번지여 저 멀리 바다가까지 잠을 깬 대지는 온통 거무죽하다. 그우에 아침해발이 찬연히 비쳐들고 논두렁마다에는 때이른 아지랑이가 피어나 사물거린다.

훈훈한 바람이 불어온다. 벌써 봄빛이 완연하다. 아니, 순애의 가슴은 봄빛으로 약동하고있었다.

아, 생활은 얼마나 거창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가!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는 동화, 우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최길상

우리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주체혁명위업의 후비대들이다. 새세대들을 앞날의 주인공으로 튼튼히 키우지 않고서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도 혁명의 승리와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후비대로 튼튼히 키워야 우리 혁명의 대를 꽃같이 이어나가며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 사상사업의 강력한 무기의 하나인 주체문학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는 혁명적 아동문학은 새세대들을 당의 전투적후비대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무거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아동문학을 발전시키는 문제를 혁명의 전도와 조국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우리의 혁명적 아동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보살피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72년 1월 24일 동화, 우화 창작과 관련하여 주신 교시는 아동문학발전의 강령적지침으로서 동화, 우화 창작의 새로운 양양을 가져오도록 하는데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그때로부터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 아동문학 특히 동화, 우화 창작에서는 실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었으며 새세대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우리 문학의 대화원속에서 동화, 우화 창작의 성과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수령님의 교시를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를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아동문학의 꽃동산을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72년 1월 24일 교시에서 아동교양을 위한 영화를 창작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동화나 우화 같은것을 가지고 의인화의 수법으로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을 내용으로 교양적이고도 흥미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강령적교시에서 아동문학의 본성과 동화, 우화 창작의 형상적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동화, 우화 창작에서 나서는 제반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다.

동화, 우화 창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아동문학의 다른 형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이들을 가르치는것도 어디까지나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아동문학작품을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창작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아동문학의 본성으로부터 나서는 원칙적요구이다.

아동문학은 그 본래의 사명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어린이들은 세계를 독자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약하며 세계에 대한 견해도 전일적으로 형성되어있지 못하다.

이러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동화, 우화는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을 때라야 어린 독자들을 공감시킬수 있고 그들의 친근한 벗으로 될수 있다.

동화, 우화를 어린이들의 요구에 맞게 창작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심리와 감정, 취미 등에 기초해서 그 종자와 형상수법을 탐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동화, 우화에 그려지는 내용들은 어린이들의 시점에서 인식되고 평가되며 그들의 리해에 맞게 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는 의인화와 과장, 환상과 전도, 반복 등 동화, 우화의 여러 형상 수단과 수법들을 탐구리용하며 알기 쉽고 명백하면서도 간결한 줄거리, 극적으로 석연한 갈등,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사건의 도입 등에 의한 발랄하고 약동하는 정서와 통쾌한 웃음 등을 명백히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동화, 우화를 창작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로서 사상을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의인화의 수법으로 보여줄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의인화의 수법은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는 가장 힘있고 적중한 형상수법의 하나이다.

그것은 의인화의 수법이 어린이들의 지적수준에 맞고 현실에 대한 그들의 감수의 방식에서 가장 적절한 수법으로 되기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첫걸음발을 땀 때로부터 어머니의 품과 집안식구들을 알아보기 시

작하며 주위세계의 사물현상에 대하여 제나름으로 관찰하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흔히 어린이들이 말 못하는 놀이감과 이야기 줄고받으며 지저귀는 못새들과도 함께 기쁨을 나누는것을 보게 된다.

어린이들은 주위세계의 천태만상에 활력을 부여하며 그 모든것들에도 자기들과 다름없는 생활이라는것이 있고 그것들도 또한 자기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잘 이해할것이라고 믿는것이다. 그리하여 자기가 기쁠 때면 화분의 꽃들도 기뻐서 웃는것 같고 자기가 노래할 때면 고운 새들도 함께 흥에 겨워 노래하는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물현상을 인격화하여 제나름으로 생각하기를 즐기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의인화의 수법은 류사한 특징들을 가진 사물현상들의 비교를 통하여 대상을 파악하려는 그들의 사유형식에 맞는 수법인것이다.

의인화의 수법은 어린이들에게 대상의 특징을 마치도 살아움직이는것 같이 인격화하여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현실감과 친근감을 주게 된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정서와 심리에 맞는 의인화 수법을 효과적으로 적중하게 리용함으로써 어린 독자들의 환영을 받는 더 좋은 동화, 우화를 창작해야 할것이다.

의인화의 수법을 창작에 구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의인화대상의 폭을 넓히고 류사성을 극복함으로써 개성화된 의인화적형상을 다양하게 창조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동화, 우화에서 의인화의 대상으로 될수 있는것은 참으로 무한히 다양하고 풍부하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주체시대의 대기념비적인 창조물들과 한평전선을 이겨내고 주체농법이 꽃피나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자랑찬 현실 그리고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된 보다 문명하고 살기 좋은 미래의 조국의 모습은 다 우리 동화, 우화에 반영되어야 할 의인화대상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인화대상의 본질적특징들을 잘 살려 의인화에서 진실성을 보장하는데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동식물의 자연생태적특징과 우리 인민의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전통적관습을 잘 고려하는 문제 또 그것을 각이한 인간생활과 각이한 성격에 맞게 형상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또한 자연과 사회의 여러 현상들에서 볼수 있는것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의인화의 대상으로 설정함에 있어서도 그의 형태와 속성을 잘 고려

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기본은 의인화되는 대상들이 어떤 교양적목적을 추구하는데 부합되며 어떤 형상적효과를 살리는데 복종되는가, 우리의 생활과 어떤 편관을 가지며 그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리로움을 주는가 하는것을 기준으로 하여 공부정을 설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만일에 의인화대상에 대한 깊이있는 탐구과정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흔히 볼수 있는 동식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하는데 머물거나 의인화에서 얻을수있는 보다 생동한 예술적매력을 보지 않게 된다면 작품은 류사성에 빠지게 되며 동화, 우화의 주인공들은 도식적인 성격으로 되고말것이다.

그러므로 동화, 우화 작가들은 동식물들과 사물들의 유용성의 측면과 오랜 세월을 통해 형성된 전통적관습, 미적감흥을 주는 측면들을 깊이 연구하여 의인화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작품의 종자에 따라 내세운 의인화된 주인공에게 생동한 성격을 부여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지난날의 일부 발표되지 못한 동화, 우화들에서 대상의 본질적속성과는 맞지 않게 탐구가 없이 의인화함으로써 생활의 진실을 외곡하거나 주인공들의 성격을 단순화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것을 고려할 때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가령 정의로운 짐승들로서는 노루와 사슴, 곰만 등장하고 무장한 짐승은 고슴도치로만 등장한다면 어제 읽은 동화, 우화와 또 오늘 읽은 동화, 우화가 다른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을것이며 필경 류사성에 빠지고말것이다.

사실상 의인화되는 대상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탐구하면 단순하지 않다는것을 알게 된다. 레를 들면 곰은 힘이 세기도 하지만 우둔하기도 하다. 이것은 곰의 생태적특성과도 맞으며 또 오랜 관습에 의하여 형성된 사람들의 표상에도 맞는것이다. 그러므로 곰은 힘센것으로써 정의로운 성격으로 그릴수도 있고 또 우둔하고 미련한 인물로 성격화될수도 있는것이다.

이것은 간단한 실례이지만 의인화되는 대상의 본질을 여러 각도에서 깊이 탐구하면 할수록 동화, 우화에서도 성격의 다양성을 얼마든지 보장할수 있으며 도식적인 인물형상을 배제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동화, 우화 창작에서 의인화수법을 옳게 살려쓰기 위해서는 대상의 가장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속성에 의거하면서도 그것을 단순화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다양성을 보장한다고 하여 의인화대상의 본질적특성을 무시하지도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창작실천적으로 중요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성격과 정황의 요구에 따라 의인화대

상을 전형화하는 문제이다.

의인화대상을 선택하는데서 반드시 자연생태적 특성과 유용성, 미적표상 등 제반 특성들을 철저히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것들은 해당 인물의 형상적요구에 따라 고려되는 측면이 다를수 있다.

의인화대상의 선택은 사실주의적전형화와 관련되는 문제인바 작품의 종자와 사상주제적과제에 따라서 자연생태적특성, 유용성, 미적표상 등 일면의 속성들 가운데서 보다 중요한 어느 한측면만을 부각시켜 강조할수도 있고 거기에 부차적인 측면을 배합하는 식으로 전형화하여 보여줄수도 있다.

동화, 우화에서 의인화대상들을 인격화하여 보여주는것은 결국에는 의인화된 대상들을 통하여 인간의 성격, 그의 지향과 리상, 념원을 보여주자는데 있다.

성격을 떠나서 문학의 형상문제를 말할수 없듯이 동화, 우화에서도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작품의 형상문제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동화, 우화에 나오는 주인공을 일정한 개성적특성이 뚜렷이 살아난 성격으로 그리자면 자연히 의인화대상의 자연생태적특성, 유용성, 미적표상 등 속성들 가운데서 어느 한측면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물론 작품의 종자와 형상과제에 따라서 의인화대상이 가지고있는 일련의 속성들 이러저러한 측면들을 동시에 다같이 주인공들의 성격에 체현시킬수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더욱 좋을것이다. 그런데 왕왕 이런 경우에 형상의 류사성을 범하기 때문에 동화, 우화 창작에서는 의인화대상의 폭을 더욱 넓히면서 어떤 측면, 어떤 속성들을 전형화 하여 보여줄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항상 심사숙고 하여야 하며 깊이있는 탐구가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동화, 우화에 등장하는 의인화된 대상들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개성적인 성격을 창조하여 형상의 독창성을 살려야 할것이다.

동화, 우화 창작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또한 그것을 교양적이면서도 흥미있게 만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사상적내용과 흥미문제에 대해서도 명백한 해명을 주시였다.

동화와 우화에서 교양성문제와 흥미문제는 그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근본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동화, 우화에서는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을 내용으로 하여 교양적이고도

흥미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작품창작에서 언제나 동화, 우화의 사상적내용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선악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동화, 우화의 사상적 내용을 보장해야 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그 내용의 혁명성과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고수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동화, 우화에는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 등 온갖 계급적원수들을 끝없이 증오하는 내용, 새것이 승리하고 낡은것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성,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는 내용,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정신으로 무장하도록 하는 내용, 로동을 즐기고 사랑하는 내용, 나라의 모든 재부와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내용,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품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내용,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한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동화, 우화창작에서 내용의 혁명성과 계급성을 철저히 고수하는데 가장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으로부터 동화의 내용이 단순하고 명백하게 되여야 한다고 해서 그의 혁명성과 계급성을 약화시키는것은 조금도 허용할수 없는것이다.

동화, 우화의 내용이 단순하게 되여야 한다는것은 그들의 특성에 맞게 이야기를 알기 쉽고 명백하게 하라는것이 지 결국 사상성을 약화시키라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들려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동화, 우화들은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으면서도 계급적선이 명백하고 교양적가치가 비할바없이 큰 우리 시대 동화, 우화의 훌륭한 본보기로 된다. 우리는 이러한 동화, 우화들이 담고있는 사상적내용의 심오성과 철학성을 기준으로 하여 동화, 우화의 사상적내용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들려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동화 《놀고먹던 꿀꿀이》에는 인격화된 집짐승들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은 누구나 다 로동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일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사는 보람과 가치가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혁명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 혁명을 하지 않고 혼자만 잘살겠다고 리기주의를 부리며 일하기 싫어하고 안일해이하게 살아간다면 생일잔치때에 반찬감이나 되는 돼지와 같은 신세와 별다른것이 없게 된다는 사상을 깊이 안겨주고있다,

이 동화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일하기 싫어

하고 놀고먹는 돼지는 그른것, 미운것으로 되었고 부지런한 짐승들은 옳은것 고운것으로 전형화되었다.

그러므로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을 내용으로 한다는것은 그 사상적본질에 있어서 로동계급적인것을 긍정하고 로동계급의 리익에 배치되는 온갖 그릇된 사상을 폭로하고 부정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 동화, 우화에 담고있는 사상적내용이 지난날 인민구전동화가 담고있던 《권선징악》적인 내용과는 그 본질적특성과 계급적지향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날 동화, 우화에서의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그 계급적제약성으로부터 선과 악에 대한 평가 자체에서 제한성을 가지고있었을뿐아니라 온갖 사회적악덕에 대한 태도에서도 매우 소극적인 립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화, 우화 창작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명백히 하고 선한것과 악한것의 관계를 로동계급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해결해나감으로써 우리의 새세대들이 온갖 선하고 옳고 아름다운것들을 그대로 닮게 하며 악하고 그르고 추악한것들을 끝없이 증오하고 그와 견결히 싸우도록 교양하는 내용으로 철저히 일관시켜야 할것이다.

이로부터 동화, 우화 창작에서 지난날의 구전동화를 리용하는 경우에도 력사주의적원칙과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게 되는것이다.

동화, 우화의 사상적내용을 심오히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것은 주인공의 성격을 명백히 하는것이다. 동화와 우화의 등장인물들은 궁부정의 관계가 처음부터 명백한것이 특징이다.

동화, 우화에서는 성격적대조를 명백하게 하는것이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하다. 그리하여 동화, 우화는 처음부터 어린이들이 긍정인물들의 편에 서고 부정인물을 증오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동화, 우화는 철저히 당정책적요구들을 반영하여야 하며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론증하며 새세대들에 대한 공산주의적분리와 도덕품성에 기초하여 창작되어야 한다.

당면하게 우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동화의 사상적내용을 더욱 심화해나가야 하며 특히는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에 대한 계급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계급교양주체의 작품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공산주의교양을 주제로 한 작품을 더 활발히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다.

동화, 우화 문학의 교양적기능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하여 새세대들의 지덕체교양에 이바지하는 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절박한 요구이다.

영광스리운 당중앙에서는 아동영화는 지덕체를 내용으로 하여 아동심리에 맞게 동화나 우화 같은것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주었다.

어린이들은 새것에 민감하며 배우려는 욕망이 강하고 무엇이든 다 알고싶어한다. 어린이들의 이러한 심리적특성은 인민학교로부터 중학교단계에 올라가면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동화, 우화 작품은 어린 독자들이 사상적교양을 받도록 하여야 할뿐아니라 인식적교양도 풍부히 받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로부터 동화, 우화의 내용은 지식욕에 불타는 어린 독자들에게 무엇인가 귀뜸도 해주고 자연과 사회를 관찰하는 눈을 틔워주며 과학을 탐구하려는 욕망과 자연을 개조하고 이 땅위에 공산주의락원을 건설하겠다는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과학지식탐구에 불타오르도록 적극 추동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높은 사상의식과 깊은 지식, 고상한 도덕과 건장한 체력은 공산주의적인간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며 풍모이라는것을 자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동화, 우화 문학을 창작할 때에는 종자를 똑바로 켜 다음에는 형상해야 할 대상들, 의인화의 대상들을 깊이 연구하여야 하며 다양한 생활을 찾고 새로운 발견을 하여 명백하고 풍부한 지식과 진리를 작품속에 담아야 한다.

동화, 우화 창작에서는 사상성을 높이는것과 함께 흥미있게 하는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동화, 우화에서 교양적측면과 흥미문제는 그 어느 한쪽에도 기울어져서는 안될 중요한 두 측면이며 그것은 유기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동화, 우화가 교양적가치는 있는데 흥미가 없다거나 흥미는 있는데 교양적가치가 없다는 식의 평가는 있을수 없으며 또 있어서도 안된다.

교양적가치가 있는 작품은 흥미가 있는 작품이요 흥미있는 작품은 레외없이 높은 교양적의의를 가지고있는 작품이라고 보는것이 우리의 인식에 기본적으로 옳은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이다.

이를테면 교양적가치는 없으나 흥미는 있다고 하는 작품은 필연코 그 흥미가 피상한 이야기를 령기적으로 엮어놓은 값싼 《흥미》아니고 다른 그 무엇이 될수 없다는것은 뻔하다.

동화, 우화를 흥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화, 우화의 특성을 잘 살려야 한다.

작품의 흥미문제는 곧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문제와 직접 관련되는것으로서 종자를 골

라잡는것으로부터 소재의 선택과 이야기줄거리의 짜임새, 형상수법, 언어문제에 이르는 전반적 형상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동화나 우화는 다 읽음새가 단순하고 명백한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화, 우화에서 읽음새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지나친 복선들을 잡아놓는것과 같은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동화, 우화에서는 또한 자연묘사, 성격묘사, 초상묘사에 지나친 지면을 주지 말아야 하며 정론적인것이 생경하게 로출되거나 여운을 준다고 하여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어린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 버리는것과 같은 애매한 결론같은것을 없애야 한다.

그러므로 작품이 흥미있게 되기 위해서는 동화적종자와 우화적종자에 따르는 소재를 적당하게 특징적으로 골라잡아야 하며 웃음이 있고 엉뚱하기도 하며 변화롭고 다채로운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때야 어린 독자들이 흥미진진한 동화와 우화의 이야기속에 자기도모르는사이에 끌려들어가 작품의 세계에서 함께 공감하고 느끼는 과정을 통하여 교양을 받게 되는것이다.

동화, 우화의 흥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환상을 자유분방하게 펼쳐야 한다.

동화, 우화의 환상은 이 형태들의 가장 기본적인 형상수법의 하나이다. 환상을 떠나서 동화, 우화의 형상문제를 말할수 없다.

동화, 우화에는 참으로 환상을 즐기는 아동들의 심리세계와 사상정신적지향을 대변할수 있는 제반형상적요소들을 구비하고있을뿐아니라 여기에는 또한 그들의 생활적리상인 크나큰 포부와 꿈이 심각하고 다양하게 담겨져있다.

특히 동화의 환상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환상의 진실성문제이다.

동화적환상은 현실생활에 토대하면서도 생활 그대로가 아니며 작가의 허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동화에 도입되는 환상은 어디까지나 환상의 계기와 전개, 환상처리에서 생활적진실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즉 어떤 방법과 수법으로 환상을 도입하든지간에 그것은 반드시 필연적인 계기에 의해 전개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동화문학에서 기본핵을 이루는 환상적요소를 잘 리용하지 못하여 대상을 인격화하는데 그치고 현실을 단순히 의인화된 세계로 도해하는것과 같은 일부 편향을 극복하고 동화에 환상

의 세계를 풍부히 펼쳐주어야 한다.

동화적환상의 기초에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념원과 그와 련결된 작가의 리상이 놓여있다. 일견 비현실적인것 같은 환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어린이들의 지향과 념원, 작가의 대상에 의하여 천명된 진리가 형상에 체현되어있는 한 그러한 요소가 강하면 강할수록 동화의 사상에술적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우리의 벽찬 위대한 현실은 그대로 이런 독자들에게 끝없는 꿈과 랑만을 안겨주며 그것은 현실 그자체에서 산생되는 끝없는 환상을 폭넓고 힘있게 펼쳐줄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체시대의 위대한 창조적변혁들과 대자연개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이룩되고있는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들, 자연의 비밀을 정복하고 인간에게 복종시키는 시대의 거창한 전진속에는 얼마나 많은 환상이 비껴있는가.

우리는 또한 현대생활을 동화적환상으로 재현함에 있어서인민적인 구비전설의 요소를 도입하여 새로운 동화적형상을 창조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동물과 자연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시대의 뉘을 불어넣으며 인민창작의 옛이야기들을 현대성의 요구에 맞게 창작에 적극 도입하는것은 동화적형상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동화적환상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항상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지키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동화적환상이 주체시대 어린이들의 리상을 대변하면서도 그들의 꿈과 공상에 더욱 힘찬 것을 달아주어 그것이 앞날에로 부르는 희망의 노래로 될때 우리 어린 독자들은 동화를 흥미있게 읽을것이며 커다란 교양을 받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72년 1월 24일 동화, 우화 창작과 관련하여 주신 교시는 우리 혁명적 아동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강력적지침으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새세대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로 지덕체를 갖춘 새형의 공산주의 새 세대로 교양육성해야 할 숭고한 시대적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동화, 우화 창작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특성에 맞으며 교양적이고도 흥미있는 동화, 우화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나의 공장 외 1편

윤명숙

내 자란
탁아소의 요람도
너에게 있어라
천짜는 엄마가 보고 싶어
장난감북으로 직포직장 창문을 두드리던
나의 유년시절도
너에게 있어라

어제날
천을 잘 짜던 어머니의 그 자랑도
모두 나에게 안겨준 공장이며
직기바다 순회길이 멀고 멀어질수록
아버이수령님을 가까이 뵈옵는
끝없는 영광을
공장이며 네가 안겨주었구나

아버이수령님 몸소 걸으신
사랑의 자욱따라 순회길 날아도는
내 심장 북처럼 뛰여라
한밤에도
수령님 가시는 사랑의 길우에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비단꽃을 수놓아가는
기쁨
아, 언제나 마음속말을 너와 속삭인다

언제나 가락맞게 울리는 직기소리
내 걸음따라 흐르는 비단의 흐름
땀에 젖은 내 마음도
네가 먼저 알아
언제나 꽃으로 반겨주누나

공장이며 나의 정든 공장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의 청춘 꽃피라고
천을 짜는 예술을 배워준 공장이며

너보다 더 좋은곳
나는 몰라라
나의 행복도 너와 함께
당의 크나큰 믿음도
너와 함께 받아안았구나

아버이수령님 받드는 깨끗한 마음
저 하늘을 가를수 없듯이
너와 나를 뗄수 없여라
언제나 그 언제나
하나로 이어진 우리네 운명을...

너와 떨어질수 없구나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것이
너로구나
쓰다듬으면 쓰다듬을수록
더 고와지고 황홀해지는것이
너로구나
나의 직포기야

살며시 손잡이를 잡아도
네 맥박이
내 숨결에 흘러
너와 나는 하나의 몸인듯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해

너 없이는 못살듯
마치 공기처럼 햇빛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되여라

내 소원도
내 희망도
네가 다 꽃피워주어
내 마음속에 날개를 둔쳐주느냐

순회길따라
네결을 오갈 때면
향기풍길듯 탐스러운 꽃물결이 흐르고
내 눈동자에 맑고맑은 하늘빛을 담아주지
산딸기 무르익는 고향의 산길과도 같아

언제나 언제나
네결을 달리는 마음이더라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운 감격을
날마다 너와 나눈다
년간계획을 끝낸 축하의 꽃다발도
네 가름대우에 놓여있어
나는 기쁘다

네 정든 음향은
어린애처럼
동생처럼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리광 부리는듯
네가 제일 사랑스럽구나

벗들과 할 말도
어머니와 속삭일 이야기도

너에게 다 말한다
너와 함께라면

너는 내 생활의 노래
내 희망의 노래
어버이수령님께 드릴 기쁨도
너와 함께 지냈어라
조국의 귀중함도
너와 함께 배웠어라

오, 그때문에
그때문에
나는 행복하여라
너에게 바치는 내 정성
내 불타는 심장이
너때문에 있는것이

고전시

의거가

안중근

만났도다 만났도다
원췌 너를 만났도다
너를 한번 만나려고
수륙으로 몇만리를
천신만고 거듭하여

가시성을 더듬었다
혹은 룡선 혹은 화차
로국 청국 방황하고
너를 오늘 만나보니
너뿐인줄 알지 말아

오늘부터 시작하여
한눈두눈 보는대로
남의 나라 빼앗은놈
내 손으로 죽이리라

병사의 노래

리안눌

이해도 저물어가는
북쪽의 길우에
세찬 바람 스며드네
갑옷을 뚫고

말은 변방의 눈보라속을 달리고

매는 까마득 구름우에 나는데
나라 위해 싸울 튼튼한 이 몸
원췌 향한 이 기세 더욱 장해라

싸움의 노래부르며 북쪽땅에서
서리빛 칼날을 옷음속에 보노라

생활의 길동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의 주인공들은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하여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는 근로자들과 함께 강을 막아 천년언제를 쌓으며 바다를 메워 조국땅을 넓히며 산상을 뚫아 새땅을 갈아엎고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거창한 흐름속에서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주고 열정이 식으면 열정을 돋구어 주고 힘이 부족하면 힘을 더해주는 문학작품의 사상교양적역할과 생활력을 우리는 그 어느 초소에 가서 그 누구를 만나든 뜨겁게 느낄수 있는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항일혁명투사들이 고난에 찬 시련의 길을 동요없이 헤쳐온 불굴의 의지, 죽어도 잃지 않는 혁명적신념은 바로 언제나 혁명전사 한사람 한사람을 끝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위대한 태양의 품에 근원을 두고있으며 그 품에서만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가 꽃피날수 있다는것을 높은 사상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감명깊게 보여주고있습니다.

언제나 전사들과 함께 피어린 투쟁의 길을 걸어오시며 자신께서 당하시는 육체적부담을 생각하지 않으시면서도 전사들의 자그마한 아픔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며 멀리 떨어져있는 전사들에 대해서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성림을 비롯한 20여명의 후방밀영대원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어버이사랑을 통하여 항일투사들이 불속에 던져도 타지 않은 불사신으로 자라난것이 바로 수령님의 인간에 대한 믿음과 위대한 사랑이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조국진군의 길을 것처럼 발바닥 뜨겁게 밟으며 오뇌에 가슴을 뜯고 회오의 짙은 물로 발등을 적시며 걸은 리성림을 40년대의 첫봄, 조선혁명의 무성한 새 계절을 부르는 벅찬 조국진군길에 자량과 긍지를 안고 세워주고싶으시어 그들을 찾아오도록 사방으로 정찰조와 소부대를 계속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애타게 찾으시던 전사가 부상당

한 몸으로 자기보다 더 심한 증상을 당한, 걷지 못하는 너대원을 이끌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렵고 먼 사선의 길을 헤쳐 사령부를 찾아온것이 너무도 기쁘고 대견하시어 뜨거운 걱정을 누르시지 못하십니다.

바로 여기에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고 두려움을 모르고 곳곳이 싸워나가는 불굴의 혁명가로 성장한 전사에게서 기쁨을 찾으시고 몹시도 대견해하시면서 믿음을 안겨주시는 위대하신 장군님의 어버이사랑이 어려있습니다.

참으로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형상을 통하여 그이께서 지니신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혁명전사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죽어도 영생하는 삶으로 빛나는 혁명가들의 고귀한 생이 존재한다는것을 훌륭히 가르쳐주고있습니다.

사랑과 충성으로 엮어진 수령과 전사와의 혈연적관계, 그것은 진정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할수 있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모시고 천금 주고도 살수 없는 그 사랑, 그 은정에 보답하기 위하여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도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간직하고 투쟁하는것은 우리모두의 신성한 의무이며 권리인것입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 떨쳐나선 전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원히 충성의 한길을 역세게 걸어나가도록 힘있게 고무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있게 싸워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습니다.

농업과학원산하 국영농장 석철목

수령님 모신 영예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준엄하고도 간고한 혈전만리길을 헤쳐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싸운 투사들의 그날의 그 모습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며 불타는 위훈으로 이끌어줍니다.

저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들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뜨겁게 보살펴주시는 사랑의 이야기 측면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귀하

신 영상은 장엄한 시대적환경속에 훌륭히 모시면서 수령님과 혁명전사들간의 동지적사랑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7련대장이었던 오중흠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온 혁명전사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투에서 부상당하여 돌아왔을 때 아버지수령님께서 그의 손에 난 약간한 상처자리도 무심히 보시지 않으시고 그를 립시병원으로 보내시며 치료를 받도록 해주셨으며 그자신도 모르게 온갖 심혈을 기울여주시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언제나 대담하고 능숙한 지휘관이었으며 오직 사령부의 안녕을 지켜싸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1939년 룡파송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의 죽음을 그처럼 애석해하시며 떠나간 전사의 무덤가에서 오래도록 곁을 떠나지 못하시는것입니다.

사랑과 충성은 한순간도 떼어생각할수 없는 아름다운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사의 육체적생명은 비록 갔으나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그 고귀한 품모는 오늘도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주며 영원히 혁명선렬들처럼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있습니다.

실로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간고한 항일혈전의 나날 수령님과 혁명전사들간의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를 뜨겁게 보여주는 우리 시대 또 하나의 완성된 문학작품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고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습니다.

**함경남도 정평군 조양협동농장 농장원
강경숙**

2천고지 벌목장에서

사람들은 나서 죽을 때까지 교양속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에게서도 배우고 선생들에게서 배우고 영웅들, 이름난 과학자들, 생활선배들, 소설과 영화의 주인공들에게서도 배우며 자신을 참된 인간으로 수양해간다고 생각합니다.

벌목공들인 우리는 자신들을 두고 대자연이라는 광활함과 천년대목을 베어넘긴다는 억센 기상으로 하여 좀해 심장이 뛰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편소설 《축원》(천세봉)을 읽은 저의 가슴은 만바람을 맞은 숲처럼 세차게 설레입니다. 참으로 소설은 높은 사상에술성으로 하여 마음

을 공감시켰습니다.

주인공 한씨의 높은 정신세계는 크나큰 견인력을 가지고 독자인 저를 작품의 세계로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 정확이의 립장에도 서보고 관리위원장을 하는 만며느리 조봉애의 위치에도 서보고 정확이의 애인 연순이의 마음도 되어보며 주인공들과 같이 가슴아파하기도 하고 종파놈들의 쏘라닥거림에 분격하기도 하고 가슴에 불덩이 같이 뜨거운것을 다져넣기도 하였습니다.

종파분자인 군에 내려왔던 도농산국장 허승재가 축산은 산간지대에서 하는것이지 벌방지대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군에서 조직한 축산일군강습까지 해산하고 큰마일에 와서도 축산을 걸어치우라고 당정책을 외곡해나섰을 때 어머니 한씨는 추호의 양보도 없이 견결히 투쟁하여 당의 축산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갑시다.

저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순환식채벌방법을 지켜 어떻게 일해왔던가, 생산을 위해 한씨처럼 속에 옥같이 정결한 마음을 안고 뛰었던가를 자책속에 더듬어보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 저는 주인공 한씨처럼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어머니가 지닌 것처럼 고귀한 충성심을 지니고 있지 못하였기때문입니다.

멀리 동터오는 아침, 조용히 안개밭이 걷히는 길위에 단정히 옷차림을 한 너인이 길위에 티하나 있을세라 비질을 하는 모습, 어머니의 이 형상은 하루에도 몇번씩 눈앞에 떠올라 자신이 걷는 길을 더듬어보곤합니다.

저는 장편소설 《축원》을 통하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삶을 어떻게 빛내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이 소설은 앞으로 저의 생활과 마음속에 영원한 길동무로 되어 저를 이끌어주는 영원한 《혁명동지》가 될것입니다.

저는 소설의 주인공들처럼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받들어 순환식채벌방침을 지켜가며 제가 서있는 2천고지 벌목장에서 조국에 더많은 통나무를 보내겠습니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신양림산
사업소 설령작업소 리락수**

주인공처럼 살립니다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생활적으로, 론리성있게 취급한 작품일수록 독자들에게는 언제나 잊을수 없는 강한 여운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고 주인공이 지닌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사업과 생활을 통해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장편소설 《령마루》(염단웅)의 주인공은 아버지

수령님과 당이 바라고 의도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의 길, 영생하는 삶의 길을 걷는 그런 인간입니다.

진실하고도 다양하며 평범하면서도 숭고하고 정서적색깔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어있는 이 소설은 읽으면 읽을수록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에 대하여 다시금 반복하여 되새겨보고싶고 영원히 간직하고싶습니다. 그만큼 형상을 개성적으로 독특하게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림은 사업에서 빈틈이 없고 오직 당적원칙만을 아는 그런 일군이지만 때때로 범하게 되는 생활상실책으로 하여 자신의 사업에 그 무엇인가 빈구석이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며 그것을 3대혁명의 거창한 흐름속에서 당비서인 김성재를 통하여 심각히 반성하게 되는것입니다.

소설은 완성된 인간이란 있을수 없으며 부단한 투쟁과 끊임없는 인간관계속에서 오늘의 인간들의 립장과 태도가 더욱더 확고해지고 공고해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종합적기계화마구리문제를 둘러싸고 현우림과 박상만과의 관계, 강희철과 금옥이 문제가 일정에 오르며 윤혜영이 처음에 알수 없었던 기사장 현우림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현실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저는 소설을 두세번 반복하여 읽는 과정에 영원히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 충성다하려면 현우림처럼 살며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가슴이 뜨겁게 느꼈으며 현우림처럼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영예감을 간직하고 자기말은 초소에서 영원히 충성다해나가야 한다는것을 가슴뜨거이 받아안을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머리속에는 3대혁명의 기치밑에서로 돕고 이끌며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인간들의 앞장에 말이 없고 무뚝뚝하며 뜨거운 심장을 지닌 현우림이가 서있는듯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서도 쓰러지지 말고 어버이수령님과 당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길에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어떻게 빛내여나가야 하는가를 말없이 가르쳐주고있습니다.

함북도 은덕군 6월 30 일탄광 1갱 정영남

졸업을 앞둔날에

장편소설 《령마루》(엄단웅)는 졸업을 며칠 앞둔 새세대인 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언제나 현우림이처럼 살자!) 저는 몇번이나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소설의 주인공처럼 살며 투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것은 독자들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저는 실생활과정에 따라배워야 할 현우

림과 같은 훌륭한 사람을 종종 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이나 감상문에 자기의 심정을 적는답니다.

그리고는 의식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들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목적이 없는 생활-이는 삶이 아니라 죽음이다!》현우림의 이 말은 언제나 높은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수령님과 당을 위해 꽃피워나가게 할 결의를 굳게 해줍니다.

운명을 선고받은 현우림이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감으로 병원문을 뛰쳐나가 전투장에서 그 몸으로 광산의 종합적기계화를 위해 자기가 더 살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을 력서에 표시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저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없게 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졸업후 자신의 직업, 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새 출발을 놓고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을 읽으면서 확고한 목표와 생활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어느 초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빛나는 생을 바치려는 그 마음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의 첫기슭에서부터 언제나 현우림과 같은 훌륭한 당원들을 잊지 않고 또 그들처럼 살며 그들처럼 투쟁하여나가겠습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보통강고등학교

5학년 6반 김의란

심장을 치는 말

《당신은 국가물자를 가지고 더 <선심>을 쓰지 마요》

이것은 단편소설 《덕홍나그네》(《조선문학》5호 정창운)의 주인공 덕홍나그네가 죽음을 앞둔 시각에 자재인수원에게 남긴 말입니다.

이 대목을 읽는 순간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곧 나에게 남긴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난생처음 생활의 보람을 느끼면서 더없이 깨끗한 량심으로 공장을 위하다가 이름없는곳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 그 순간에 하고싶은 말인들 얼마나 많으랴만 오직 이 한마디를 남긴 덕홍나그네앞에 내 무엇을 더 숨기겠느냐.

얼마전에 한 친구가 저에게 줄칼 몇종을 얻어달라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앞으로 그와 거래할 일을 생각해서 남의 눈을 속여가며 줄칼을 얻어주었습니다.

꽃피는 오늘의 행복과 찬란한 래일의 꿈을 안고사는 현시대의 나처럼 국가물자를 가지고 《선심》쓰기를 좋아한다면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품이 이토록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것을 무엇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생활을 미화분식하지 않고 진실하게 그려졌기때문이며 지나간 생활이지만 오늘의 시대정신과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게 문제성있는 생활의 한 단면을 전형화하였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로동계급의 자세를 잃지 않고 꿋꿋이 지켜내는 덕홍나그네.

객주집주인이 공구 쓴 값을 내라고 하면서 모독했을 때 《전쟁3년동안에 당신같은 벌레들이 살아남고 아까운 사람들이 죽은건 가슴아픈 일이에요...》라고 하면서 객주집주인을 《벌레》로 낙인합니다.

그러다가 덕홍나그네가 그후 공장에서 가져온 삽과 곡괭이를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깍듯이 인사차림을 하는것을 보고 로동계급의 문화성, 령도적지위와 자각성에 대해 가슴뜨겁게 느끼었습니다.

독자들은 덕홍나그네가 생의 마지막순간에 남긴 말을 천근무게를 가진 《로동계급의 선언》으로 심장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작품을 읽고 난후부터 저는 덕홍나그네와 같은 혁명화의 거울에 자신을 자주 비쳐보군합니다.

그러면 신념이 부풀고 결심과 각오가 굳어지며 주장이 생깁니다.

-모두가 덕홍나그네와 같이 나라의 주인된 자각과 로동계급의 본분을 굳게 지킬 때 나라는 얼마나 부강해질것인가!-

참으로 소설은 친근하고 엄격한 혁명화의 길동무입니다.

자강도 강계시 연주동 69 반 박재흥

《맑은 시내》가 되고저

《조선문학》5호에 실린 단편소설 《맑은 시내》(전홍식)는 후대들을 책임진 교원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느끼게 하는 소설입니다.

우리 교원들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하고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쓸모있는 혁명인재들로 키워냄으로써 자기의 영예로운 임무를 다할수 있는것입니다.

바로 《맑은 시내》에는 후대교육의 직접적담당자인 교원-혁명가로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진실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백순금은 맑은 시내에 성실한 량심을 비추어보면서 후대교육교양에 전심을 다해나가는 정지훈교장에게서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정지훈교장이 순금에게 하고있는 말을 꼭 저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옵니다.

《...지단해의 교수경연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 방법을 그대로 되풀이하

는건 마음에 안드오. 모든것이 새로와지는데 교수방법도 끊임없이 새로와 져야 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교원의 발자국이란 창조 없이는 찍혀지지 말아야 하는건데...》

그리하여 이미 치르어버린 45분수업을 보충하기 위하여 립산사업소양어장을 향하여 밤길을 다그치는 순금이는 정지훈교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에 나와 자기가 못다한 수업을 하고있는 광경에 부딪치게 됩니다.

흐르는 맑은 시내처럼 한점의 티도 없는 교육자적량심으로 후대교육교양에 전심을 다하는 정지훈교장에 비하여 백순금이가 자신은 그 얼마나 먼거리에 있는가고 생각할때 저는 저자신이 순금이와 더불어 정지훈교장에 비해서 아득한 거리에 있다는것을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이켜보는 순금의 다음과 같은 마음은 저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아니다. 나의 한생도 저 시내물처럼 흘러갈것이다. 언제나 맑구, 줄기차구, 또 지칠줄도 모르게...)

맑은 시내-교원의 티없는 맑은 량심이 어릴 때 거기에 비끼는 아이들의 얼굴도 티한점없이 맑고, 래일의 우리 조국은 바로 이 맑은 시내처럼 청신하고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소설은 흔히 우리 생활에서 볼수 있는 평범한 세부들을 통하여 추구하는 문제성을 생동하고 간결한 묘사와 치밀하고 진실한 감정조직으로 짧은 형식에 맞게 원만하게 처리하였다고 봅니다.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해나가는 길에서 교원-혁명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영예의 붉은기 강선고등중학교 교원

진순희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 따라 거세찬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는 사회주의 건설장들에서 우리의 문학작품들에 대한 긍정적인 반향은 나날이 커가고있습니다.

문학작품의 주인공들이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본보기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며 생활의 참된 길동무로서의 임무를 다한다면 그이상 기쁜 일이 없을것입니다.

앞으로 독자들은 장편소설들과 《조선문학》에 실리는 문학작품들에 대한 소견들을 자기들의 실생활과 결부시켜 더 많이, 기탄없이 써보내주기를 바랍니다.